





농촌과 도시의 경계마을

용인시 기흥구

# 지곡동 마을



용인문화원























세너빌리  
아파트

리치나스빌리지

대자골  
전원마을

당배울

달과전빌

삼행포장

동해주차

성심장도  
교회

향금요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세계이정빌

이명기전

무악산빌

용인에코파크  
수련원

보아산 (402.80m)





A detailed background map of Yongin-si, South Korea, showing various districts, roads, and landmarks. The map is rendered in a light, sketchy style. A white circle with a black border is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containing the title. A horizontal line extends from the right edge of the circle across the page.

## 일러두기

- 이 마을지는 용인문화원의 용인시 마을 연구 기록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지곡동은 도시화의 물결로 전통적 마을공동체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는 대표적인 용인의 마을로 그 경계에 서 있는 현재 모습과 과거를 기록해 귀중한 향토문화의 자산으로 남기고자 선정하였습니다.
- 지곡동 마을지를 제작함에 있어 그간 용인시지 및 기흥읍지 등의 중첩되는 내용을 가급적 제외하고 지곡동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며, 최근 조성된 전원마을과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내용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집필진은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 조사연구하고 기술하였음을 밝힙니다.



## 간행사

용인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집단적인 취락을 형성하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온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장입니다. 때문에 각 시대별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독특한 전통과 생활문화를 전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구조 속에 각종 의례나 세시풍속 등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북부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죽전, 기흥, 구성 등 서부지역의 급성장과 함께 90년대 인구 20만명에 불과하던 중소도시가 20년 만에 100만명이라는 거대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은 문화의 전 부문에 걸쳐 심한 변동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곧 마을 공동체의 해체, 새로운 외지 인구의 대량 유입, 전통적 농업 생산 기반의 변화와 도시화 등이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삶 전체의 가치와 양태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용인 시민의 삶을 자신의 전통과 문화에서 크게 이탈시켰고,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용인시의 옛 모습은 머지않아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

을지를 편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지구를 중심으로 도시화된 용인의 서부지역은 불과 20여 년 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용인시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은 아직 도시화의 물결이 덜 미치고 있습니다.

전통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박물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시화가 진전되기 전에 마을에 대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 첫 삽을 뜨게 된 <마을지 발간 사업>은 앞으로 연례적인 문화원 중심 사업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 지곡동 마을지 편찬을 위해 수고하신 이종구 용인학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마을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협조해주신 용인시 관계자와 지곡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용인문화원장 조길생





## 축사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장 정찬민입니다.

먼저, 100만 용인시의 향토역사를 자산으로 남기고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용인마을지」를 편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인시는 도시화의 물결의 중심에 있으면서 예전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의 모습에서 지금의 현대적인 도시가 될 때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용인의 전통 마을에 대한 관심과 보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용인마을지」 편찬을 통해 용인 고유의 마을공동체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삶의 흔적과 기억을 기록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마을의 현실을 알리고 전통사회의 문화적 원형에 대한 관심을 도모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 용인이 우리의 전통과 향토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



고,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시고 향토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함으로써 용인마을지 편찬을 추진하신 조길생 용인문화원장님과 이종구 용인학연구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용인지역 고유문화 및 역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쓸 것을 약속드리며, 각 마을의 고유한 향토문화가 문화콘텐츠로서 자리 잡아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인마을지」 발간에 힘쓰신 용인문화원 및 용인학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용인의 소중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 축 사

마을공동체의 모습과 역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미래로 계승하는 마을지사업의 첫발이 될, 「용인 지곡동 마을지」발간을 100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새로이 발굴하여 용인시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헌신해 오신 용인문화원 조길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옛날과 달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 시대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은 삶의 흔적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 주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업입니다.

용인문화원에서는 일찍이 읍면동지 발간을 통해 뜻 깊은 사업을 이어왔으며, 이번 마을지 발간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마을공동체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기록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조하는 중요한 문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마을지 발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인 지곡동 마을지」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용인문화원과 조길생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용인시의회도 용인의 향토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의회 의장 김중식



## 환영사

용인시와 용인문화원의 배려와 관심으로 지곡동 마을지 편찬사업이 성사됨에 깊이 감사드리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별 마을단위로 총체적인 내용을 담아 제작하는 마을지 발간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지곡동지 발간은 마을 이름을 얻고 사람들이 정주해 살기 시작한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더욱 그 뜻이 깊기만 합니다. 그간 기획과 준비 과정에 참여해 주시고 집필에 나서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고장 지곡동은 도시화의 물결로 점차 과거의 모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던 선대들과는 달리 농업 종사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추억과 정서적 안식처가 되었던 숲과 들과 계곡도 이런저런 시설이 들어서면서 마을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늘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우리 마을은 어느 사이 아파트와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오늘의 변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

기는 것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우리 주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와 전통으로 내려오는 풍습 등 다양한 세상살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길이길이 후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뿌리를 두고 자라고 생활하였던 저로서도 영광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 연례행사 중에서도 지곡2동 경로잔치는 벌써 44회를 맞이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도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며 조상을 숭배하는 마을이 지곡동입니다. 다시 한 번 지곡동지가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정찬민 용인시장님과 조길생 용인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 감사인사 올립니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곡동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변 구







## 차례

### 1 지곡동 마을 개관

- 1-1 지곡동 마을 연혁 022
- 1-2 지곡동 지명 유래 028
- 1-3 지곡동 인문지리 환경 변화 039
- 1-4 지곡동 산업환경 변화 051
- 1-5 지곡동 마을 조직 062
- 1-6 지곡동 마을 인물 074
- 1-7 지곡동 자연과 식생 090

### 2 지곡동 생활·민속과 놀이

- 2-1 지곡동 마을 의식주 112
- 2-2 지곡동 민속과 세시풍속 124
- 2-3 지곡동 종교와 교육 137
- 2-4 지곡동 민간신앙 148
- 2-5 지곡동 전설과 일화 154
- 2-6 지곡동 일과 놀이 165



### 3 지곡동 문화유산과 문화자원

3-1 사은정(四隱亭) 196

3-2 음애 이자 고택 201

3-3 음애 이자 묘역 (세장지) 207

3-4 지곡동 도요지(陶窯址) 213

### 4 생애 구슬을 통해 본 마을과 삶

4-1 여성의 삶 226

4-2 집성촌 지곡동의 삶 • 청주 한씨 | 제주 고씨 | 밀양 박씨 | 청풍 곽씨 | 236

4-3 원로에게 듣는 지곡동과 삶 247

### 5 지곡동 이모저모

5-1 지곡동 마을협동 운동 264

5-2 문서로 보는 지곡동 271

### 6 사진으로 보는 지곡동

6-1 지곡동 구석구석 살펴보기 276

6-2 추억 속의 지곡동과 사람들 286

6-3 하늘에서 본 지곡동 290



명석 만들다 잠시 쉬고 있는 이진규씨댁 박양순씨 (1960년대)

# 1 마을 개관

- 1-1 지곡동 마을 연혁 022
- 1-2 지곡동 지명 유래 028
- 1-3 지곡동 인문지리 환경 변화 039
- 1-4 지곡동 산업환경 변화 051
- 1-5 지곡동 마을 조직 062
- 1-6 지곡동 마을 인물 074
- 1-7 지곡동 자연과 식생 090



## 1-1. 지곡동 마을 연혁

### 1. 지곡동 마을개관

지곡동은 기흥구에 속하는 동으로 본래는 기흥읍(器興邑) 지곡리(芝谷里)라 불렸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이전에는 기곡면(器谷面)에 속해 있었다. 북쪽은 기흥구 보라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은 기흥구 상하동과 처인구 삼가동에 접하였고, 서쪽은 기흥구 공세동과 고매동에 닿으며 남쪽은 화성시 동탄읍 중리와 처인구 이동면 서리와 이웃하고 있다.

지곡동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방패모양으로 좌우의 산이 높고 가운데가 평평한 분지 형상을 하고 있으며 중앙에 지곡천이 좌우를 나누며 정북(正北)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치우쳐 흐르고 있다. 지곡천은 지곡동의 동남쪽 사가막마을 위편 고등골고개 부근과 남쪽 지곡저수지 상류 덕골고개 부근에서 발원하며 도중에 안다래울과 매주골에서 나오는 실개천과 합류하여 북으로 흘러 기흥저수지에 합류한 뒤 서해로 들어간다.

지곡동의 동남쪽에는 부아산(負兒山)이 솟아있고 서쪽으로 보라산(甫羅山)<sup>1)</sup>이, 동쪽

1)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보라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곡동 주민들은 이 곳을 '뽕산'으로 부른다. 또는 절이 있어 '절골산'으로 부르고 있다.



에는 까마구봉, 연화봉(蓮花峰), 이진봉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북쪽에는 두암산(斗巖山)이 있다.

지곡동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로 생각되나 유적이나 유물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인근의 상갈동의 신석기시대 집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삼국시대의 유적도 확인된 것은 없으나 고려시대의 무덤으로 김달상이나 오현 등의 묘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기막골에 있는 가마터가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만도 3개소가 되는데 적지 않은 도자기나 용기파편이 출토되고 있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 후기에는 지곡동에서 도자기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지곡동의 도자기는 필연적으로 덕골고개 너머에 있는 서리백자유적과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감암리(甘



岩里)의 위치도 고개 너머 감바위일 것으로 본다면 그 뿌리는 고려백자에 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곡동은 논보다는 밭의 비중이 6:4 정도도 많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1969년 지곡저수지가 축조된 이후 논·밭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전에 비해 농사가 한결 수월해 졌다. 그리고 들이 넓지 않아 소출은 높지 않으나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가 많지 않다. 또 지금은 315번 지방도가 민속촌부근에서 사은정고개와 개고개를 지나 용인시청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마차도 지나기 어려운 길로 겨우 지게나 지고 넘나들 수 있는 좁은 길 뿐이었다. 따라서 지곡동은 전쟁이나 내란과 같은 난세(亂世)에 몸을 보전할 수 있는 피난지로 불리기도 했으며 1970년대 후반까지도 용인지역에서 가장 오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었다.



지곡동은 농사와 더불어 인근에 비해 높은 산에서 싸리버섯이나 야생표고, 청버섯 같은 종류의 버섯이나 취나물이나 다래순 같은 산나물, 밤과 도토리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고 산토끼나 꿩과 같은 산짐승을 사냥하는 일이 쉬운 편이었다. 또 1960년대 이전 만 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근 산에서 채취한 나뭇짐을 지고 수원장이나 신갈까지 팔러 다니기도 했다. 비교적 산세가 험한 지곡동은 예전에는 호랑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적어도 1950년대 까지 여우사냥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매우 많아 농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용인지역에 개발의 여파가 밀려들면서 인구도 늘어나고 지곡동도 리(里)에서 동(洞)으로 승격 되었으나 여타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개발이 더딘 편이다. 이는 아직도 전통과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창고와 음식점이 들어선 것을 제외한다면 예전에 비해 큰 변화는 없는 편이다.

지곡동은 아직도 전통적인 농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논농사와 밭농사가 중심이나 주위에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서면서 공장이나 창고에 다니는 사람도 생겨났다. 또 본인들의 농지에 창고나 공장, 또는 식당을 지어 직접 경영하거나 세를 놓아 임대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많다. 농지도 기흥구의 아파트촌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주말농장

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외지인에게 매각하여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율로 따져 보면 2017년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는 면적은 과거에 비해 약 20%미만 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공장이나 창고, 전원주택, 아파트 등을 따라 지곡동으로 유입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전통 마을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아파트, 전원주택단지 그리고 이주민들의 입주로 원주민은 5% 미만이나 아직까지 수지 지곡동이 아닌 기흥구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지곡동은 기와집말이라는 지명을 낳은 음애 이자선생의 고택과 묘역이 남아 있는데 음애선생의 후손들인 한산이씨가 많고 박씨, 한씨, 남씨, 고씨, 광씨 등이 거주하고 있다.

북쪽에는 사은정(四隱亭)이 있는데 정암 조광조 선생과 음애 이자 선생을 비롯한 네분의 은사(隱士)들이 교류했던 곳으로 한산이씨와 한양조씨의 세교(世交)는 오늘날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곡동은 사기막이나 다래울, 기와집말이나 중간말, 한촌과 박촌말 등 여러 마을을 이



루고 있으나 예전부터 지곡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1754년에 간행된 이 자선생의 문집(文集)인 『음애집(陰崖集)』에는 지곡(智谷)으로 되어 있고, 187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도 지곡동(智谷洞)으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지(芝)가 아닌 지(智)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후 1919년에 일본인들에 의해 간행된 『조선지리지』에는 기곡면에 속한 11개 동리가운데 하나로 지곡리(芝谷里)라고 표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芝谷’이라는 정식명칭의 한자표기는 약 100년이 조금 지난 표기일 뿐이다.

지금은 대부분이 지곡동이라는 공식지명이나 기와집막이나 다래울 같은 마을이름을 사용하지만 적어도 50~60대 이상의 마을 주민들은 지곡동 전체를 가리켜 ‘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너 어디사니?” “질 살아요.” “어르신 어디 가시나요?” “질 가네.” 같은 종류의 질문과 대답가운데 나타나는 ‘질’이 지곡을 가리키는 통상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질’은 길[路]을 가리키는 방언이다. 이는 기름이 지름이라고 소리나는 충청도 지방의 방언과 같은 현상인데 용인지역 또한 충청도사투리 못지않게 비슷하게 발음되는 땅이름이 많다.

그러나 길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지곡을 특징짓는 고유지명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명의 발음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원형을 찾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비록 한자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200년이 훨씬 넘은 음애집이나 호구총수의 지곡이라는 한자표기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오늘날 지명유래의 설명처럼 지초(芝草)로 인해 생긴 지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전 표기가 지곡(智谷)이기 때문인데 만약 마을의 한자이름이 지금까지 지곡(智谷)으로 사용해 왔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 살아서’라고 하는 지명유래를 듣게 되었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

지곡이 우리말 땅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질’의 본래 발음은 무엇일까? 하나는 지명유래에 보이는 부아산 뒤쪽에 골짜기가 있어서 뒤실> 디실> 지실로 변음되어 지곡이 되었다고 한다는 설명의 연장이다. 지실>질의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와집말의 변형이다. 지실의 옛 이름은 ‘디실’이다. 이때의 ‘디-’는 ‘디새’에서 온 말인데 디새는 ‘기와(瓦)’의 옛 이름이다. 또 디새는 ‘지새’나 ‘지애’라는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흔히 만날 수 있는 ‘지새울’은 결국 ‘기와울’이라는 뜻

## 기흥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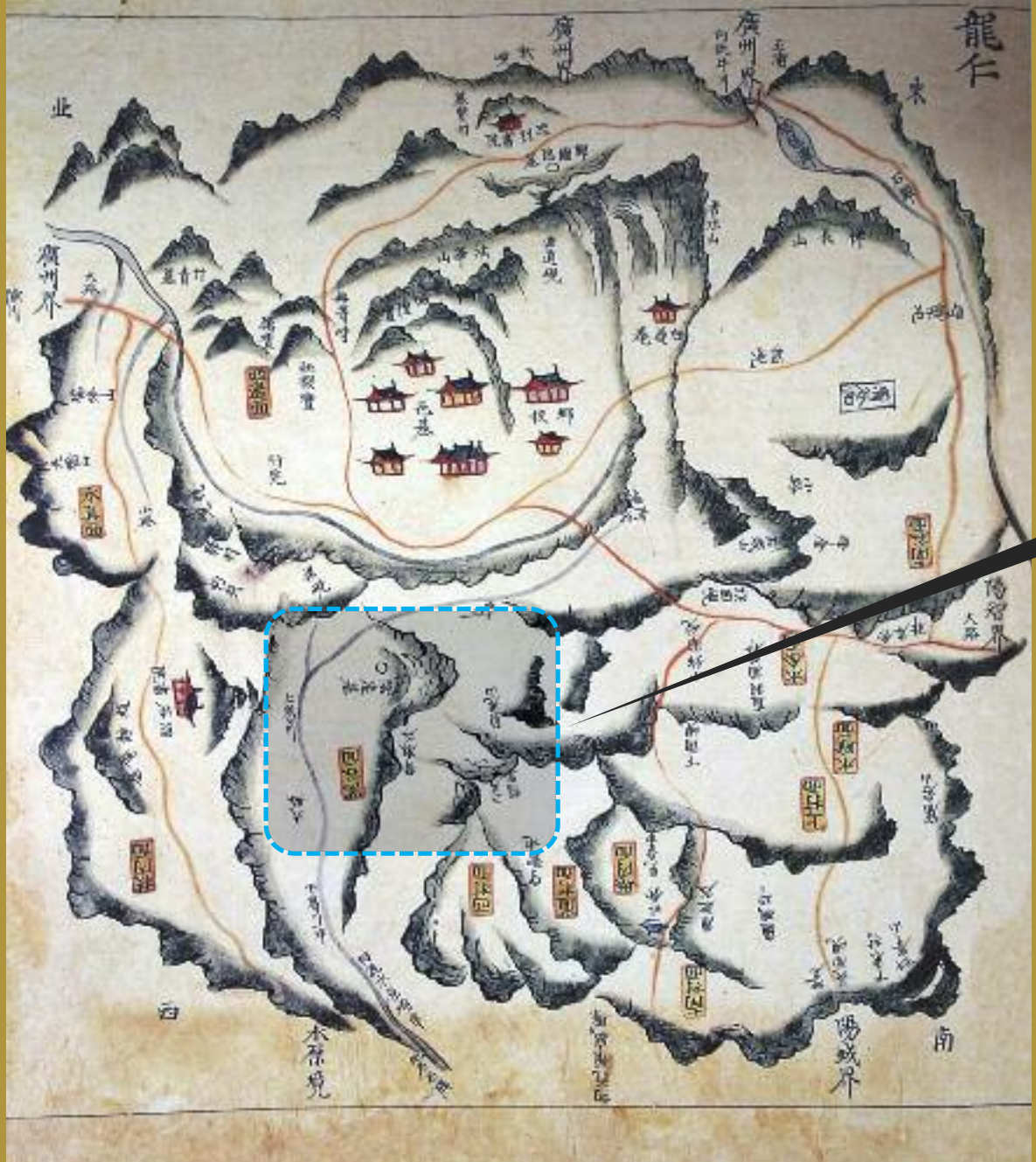
이 되고 ‘기와집이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이때 한자표기를 지곡(知谷)이나 지사동(知事洞) 등으로 옮기기도 한다. 또 지금은 안성땅으로 넘어갔지만 용인에 속했던 고삼면에 바디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 한자로는 봉지곡(奉芝谷)이라고 쓰는데 이는 ‘바깥+지실’이라는 뜻이다. 바깥쪽이라는 뜻을 가진 ‘밖’의 옛말이 ‘밭’인데 이것이 앞에 붙어 ‘밭+디실’바디실’이 되고 뜻을 그대로 한자로 표기한다면 외지곡(外芝谷)이 되어야 하겠지만 ‘밭을 ‘받든다’는 뜻으로 생각해 봉(奉)자를 앞에 붙인 결과다.

용인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와집말을 열거해 보면 기흥읍 공세리에 기와집말이 있고 영덕리에도 기와집말이 있으며 같은 기흥읍의 지곡리에도 기와집말이 있다. 또 남사면 봉무리에는 개짓말이 있으며 백암면 근삼리에는 가집말이 있다. 또 마을의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소지명까지 합친다면 더욱 많은 기와집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와집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어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초가집말은 없다. 이는 아마도 초가가 일반적이던 시대에 마을과 마을을 구분 짓고 특징짓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마을이름으로 남지 않은 이유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초가가 웅기종기 자리 잡고 있던 마을에서도 기와집은 규모가 크고 확연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마을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이 같은 마을이름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초당골(草堂谷)이니 하는 이름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을에 있는 일반적인 집들과는 다른 경우에 붙는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실의 축약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다만 지실이 뒤실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지새울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초(芝草)에서 유래된 지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위의 지곡(智谷)이라는 표기 또한 순수한 우리말 땅이름을 지혜를 나타내는 한자 ‘智’자를 빌어다 한자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정양화





## 1-2. 지곡동 지명 유래



## 1. 마을 유래

▶구성말(마을) : 한천말에서 용인방향으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바로 밑에 있던 마을. 지금은 마을이 없고 새로 지은 집이 한 채 있으나 예전에는 구성말이라고 불렀는데 구성말은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기와집말 : 다래울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가운데 음애 이자선생 고택과 가묘가 있기 때문에 기와집말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커다란 기와집이 마을을 특징지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자선생 고택 옆에 사당이 있으며 음애선생의 후손인 한산이 씨와 고씨를 비롯하여 여러 성씨가 혼재하고 있다. 예전에는 약20여 호가 살았다고 하며 지곡 2통에서는 가장 큰 마을이다. 음애이자고택은 1997년 용인시향토유적 보존가옥으로 지정되었다가 경기도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2016년 해체복원시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박촌 : 박촌말 또는 박천말이라고도 부른다. 민속촌 입구에서 315번 지방도를 따라 사은정고개를 넘어 지곡동입구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지곡천을 따라 올라오다보면 오른쪽에 맨 처음 보이는 마을이 박촌이다. 박촌은 밀양박씨가 300여 년 전부터 세거하여 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990년대까지만해도 10여 호 정도 거주했으나 현재는 4호에 불과하다.

▶다래울(마을) : 지곡동에 있는 마을. 지곡2통에 속하며 민속촌방향에서 올라가다 지곡2통 마을 회관 왼편에 있는 마을이다. 그리 크지 않은 마을로 10호 미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며 마을 뒤에 음애 이자선생 묘소가 있다. 한자로는 월애동(月厓洞)이라 쓰는데 음애 이자선생이 달을 즐겨 맞이한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달애를 ‘달+아래’로 보아 생긴 표기로 전형적인 글자풀이로 보인다. 달은 우리말에서 ‘산’을 나타내는 옛말로 뫼와 달리 삼국시대에 쓰이던 말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다면 산 아래 있는 마을이라는 풀이가 더 신빙성이 있다. 또 숲에 다래가 많아서 다래울이라 부른다는 풀이도 있다.

▶사기막(마을) : 지곡동에서 용인시청방향으로 넘어가는 맨 끝에 자리한 마을. 삼가동 궁촌마을, 속칭 고등골마을로 넘어가는 고등골고개 아래편에 있는 마을이다. 인근에 사기그릇을 만들던 사기장골이 있어 생긴 이름으로 사기막골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에는 15호 가량 거주했으며 여러 성씨가 혼재하며 곽(郭)씨가 몇 집 있다고 한다. 일설에는 천주교인들이 숨어살며 자기를 굽던 곳이라고 하기도 하며 실제로 지곡동 236번지나 산 28-10번지 등 세 곳에서 가마터가 발견되어 그릇을 굽던 곳임이 확인 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도기 파편들은 병과 항아리, 주자(注子) 등의 흑자와 옹기, 그리고 요도구가 발견되고 있으며 대접, 접시 잔, 등의 백자파편도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사기막은 자기와 옹기를 상당기간 만들었던 현장임이 분명하다. ≡사기막(沙器幕).

▶상동(마을) : 상동은 하동의 상대개념으로 마을에서 윗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다. 보통 웃말, 또는 윗말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곡동의 경우도 같다. 상동은 웃말의 한자표기이며 다래울과 사기막, 기와집말이 웃말에 속한다. ≡지곡2통.

▶중간말 : 중간말은 지곡1통에 속하며, 지곡1통과 지곡2통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지곡천을 사이에 두고 지곡1통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으며 30여호에 이르는 지곡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한자로는 중촌(中村). 중동(中洞)이라 표기된다.

▶하동(마을) : 상동의 아래편에 있는 마을로 지곡동에서는 중동1교를 기준으로 아래편에 있는 박촌말과 한촌, 중간말이 하동에 속한다. ≡지곡1통.



▶한촌 : 한촌은 박촌의 건너편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곡동입구삼거리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지곡천을 건너 왼편에 있는 마을이다. 사은정에서 지곡천 건너편으로 보이는 마을로 한씨(韓氏)들이 많이 살아서 한촌이라 부른다고 하며 한천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의 박천말처럼 소리값이 변화된 것이다. 한은 우리말에서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천말은 ‘큰+村’이 되어 큰 마을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한천말은 한씨들의 집성촌이기 때문에 한씨들이 많이 살아서 생긴 풀이가 설득력이 있다.

## 2.속지명

▶가마장등(능선) : 다래울마을 뒤편에 있는 능선으로 다래울골의 왼편에 있다. 예전에 웅기가마가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능선 밑 밭에서 웅기파편이 출토되고 있다.

▶개고개(고개) : 사은정고개에서 용인시청방향으로 직진하여 오른쪽으로 자봉씨니벨리 아파트단지를 지나 용인정신병원 방향으로 넘는 고개를 개고개라고 한다. 1914년에 간행된 『조선지리지자료』에는 구현(狗峴), 또는 구현(駒峴)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예전에는 마차도 지날 수 없고 겨우 지게나 지고 넘을 수 있는 고개로 마을 사람들이 신작로에 자갈부역을 나갈 때 주로 넘나들던 고개였다고 한다. 자갈부역이란 일년에 두 차례 비포장도로에 자갈을 모으고 보수하던 일인데 지곡동의 담당구역은 강남대를 지나 상하동과 어정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부근에서 어정쪽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고 한다.

▶거지뜰(논) 행성뜰 아래편에 있는 논. ‘맨날 마냥모나 심는 논’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함. ‘마냥모’는 제철보다 늦게 내는 모를 뜻하는 늦모라는 의미로 쓰인다. 예전에는 천수답이 많아서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모를 심을 수 없었는데 거지뜰은 개울 가까이 있어도 제때모내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고등골고개(고개) : 사기막 마을에서 동쪽으로 삼가동 궁촌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예전에는 마차도 다닐 수없고 겨우 지게나 지고 넘을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고 함.

▶구메고개(고개) : 지곡저수지 위편에서 고매동 동쪽 끝 고매골로 넘어가는 고개. 구메고개의 ‘구메’는 고매의 변음으로 고매리로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이다.

▶구암(바위) : 사기막에서 덕골고개로 올라가는 왼편에 있는 바위. 지곡저수지아래 장수촌 앞이 됨.

▶굴바위(바위) : 다래울골짜기 위편 안다래울에 있는 바위. 큰 바위 두 개가 마주대고 그 밑에 공간이 있어 굴바위라고 함. 예전에 그곳에서 투전판을 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

▶깊은골(골) : 사기막 마을에서 고등골 고개방향으로 올라가며 오른편에 있는 골짜기. 용인에서 고등골 고개를 넘어오면 왼편이 된다. 골짜기가 깊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까마구봉(산) : 다래울 위편에 있는 산. 매작골 오른쪽 윗편에 있다.

▶농바위(바위) : 사은정 아래편에 있던 큰 바위. 농모양으로 생겨 농바위라고 하며 한자로 는 두암(斗巖)이라고 쓴다. 사은정 주변을 정리하면서 땅속에 묻혀서 지금은 보이지 않음.

▶늘아골(골) : 깊은골 옆에 있는 골짜기. 늘아골은 늘어골의 변음으로 늘어진 골짜기라는 뜻으로 보인다.

▶다랑골(골) :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 음에 이자선생 묘역을 바라보며 왼편에 있다. 다랑구리라고도 부르는데 ‘-구리는’ ‘-골’의 연철형이다.

▶덕골고개(고개) : 기와집 말에서 송골을 거쳐 이동면 서리로 넘어가는 고개. 덕골은 ‘덕굴’이라고도 발음하며 덕골은 서리 상덕의 우리말 땅이름임. 지금은 코리아CC가 들어서 있어 골프장 가운데를 관통하게 되어 통행에 매우 불편함.

▶도장골(골) : 매작골 안쪽 왼편에 있는 골짜기. 지금은 써니벨리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두암산(斗巖山)(산) : 지곡동 서북쪽 끝에 있는 사은정 뒷산을 두암산이라 한다.
  
- ▶뒷능산(산) 지곡2통 마을회관 건너 음애이자선생 재실 뒤편의 산을 뒷능산이라 한다. 뒷능산은 ‘뒤+능陵+산’으로 뒤편에 능, 즉 큰 무덤이 있는 산으로 풀이할 수 있다.
  
- ▶못골(골) : 박촌말 앞에 있는 골짜기. 밀양박씨 선영앞에 작은 못이 있어서 생긴 이름임.
  
- ▶뒷골(골) : 바미산골 옆에 있는 골짜기. 매주고개로 이어진다.
  
- ▶뒷골(골) : 다래울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 음애 이자선생 묘역을 바라보며 오른편에 있다.
  
- ▶대작골(골) : 배미산골 오른편에 있는 골짜기.
  
- ▶매주굴고개(고개) : 지곡동에서 공세동 코스트코 매장이 있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 매가 날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함.
  
- ▶무터골(골) : 불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 불당골과 만나 불당골 고개로 이어진다.
  
- ▶배나무골(골) : 다래울과 매작골 사이로 흘러내린 승선에 있는 골짜기. 한산이씨 족보에 이곡(梨谷)으로 기록됨.
  
- ▶배미산골(골) : 중간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중공군 시체를 묻었던 삼구텅이 위편으로 지곡2통 마을회관 서쪽 건너편이됨. 바미산골
  
- ▶박달재(골) : 병목(골)의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 덕골고개 오른편이 되며 골짜기의 이름도 되지만 고개의 이름도 된다고 한다.
  
- ▶방골고개(고개) ; 보라동 한국민속촌 경내 저잣거리를 지나 신갈로 넘어가는 고개.

방골고개는 보라동에 있으나 예전에 지곡동 마을 사람들이 주로 걸어서 드나들던 시절 외부로 나가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개였다고 함. 밤에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음.

▶방죽논(논) : 다래울마을 앞 음애선생 신도비 옆에 있던 논. 지금은 메워져 흔적이 없으며 예전에 큰 웅덩이가 논 옆에 있었다고 함.

▶병목(골) : 승축골 위에 있는 골짜기. 덕골고개 바로 아래편이 된다. 입구가 예전의 호리병 목처럼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게 전답이 펼쳐진다.

▶부아산(負兒山)(산) : 지곡동의 동남쪽에 있으며 이동면 서리와 처인구 삼가동의 경계에 있다.

▶북골(골) : 파방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

▶불당골(골) : 불당골 고개로 올라가는 골짜기.

▶불당골고개(고개) : 지곡동에서 고매동 불당골로 넘어가는 고개. 예전에 공세동에 있는 기흥초등학교로 걸어 다니던 학생들의 통학로였음.

▶보라산(산) : 기와집말 서남쪽에 있는 산. 해발 215미터. 보라산(甫羅山).

▶빨논(논) : 기와집말에서 덕골고개로 올라가는 지곡저수지 옆에 있는 논. 예전에 투전을 한번 뽑아서 산 논이라고 해서 빨논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함.

▶사기장골(골) : 깊은골 옆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사기그릇을 굽던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으로 지금도 사기그릇파편을 볼수 있다. 사기장골에서 아래편에 있는 사기막골이라는 마을이름이 유래되었다.

▶사은정고개(고개) : 한국민속촌 앞에서 용인시청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 정상부근에서 왼편으로 사은정과 남부CC 입구가 되는 남부CC삼거리가 있고 오른편으로 지곡동입구 삼거리가 있다. 사은정고개는 산장고개라고도 하는데 사은정이 줄어들어 변형된 말이다. 보라동에서는 사은정고개를 일러 복고개라고 부른다.

▶산제봉(산) : 다래울마을 남쪽 건너편에 있는 산이라하여 산제봉(山祭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산 정상에 산제당이 있다.

▶삼구덩이(터) : 세 개울 옆에 있던 커다란 구덩이. 예전에 삼, 즉 베를 짜는 원료인 대마(大麻)를 찌던 곳이라고 함. 1.4후퇴때 마을에 들어왔다 죽은 중공군 시체를 15구 이상 끌어 묻었던 곳으로 현재는 하천으로 변해 있다.

▶상동3교(다리) : 지곡2통 마을회관앞에서 지곡저수지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기막 입구 삼거리에서 사기막마을 방향으로 건너는 교량.

▶새터골(골) : 매작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샘골(골) : 다래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샘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다래울(골)에서 김량장으로 장보러가는 ‘장고개’가 있다.

▶세개울(하천) : 장승배기옆에 있는 지곡천을 가리키는 이름. 예전에는 마을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모여 먹감는 장소였다고 하며 바로 위에 삼구덩이가 있었다.

▶송축골(골) :기와집말에서 서리 방향으로 지곡저수지가 있으며 이 저수지 왼쪽골짜기를 말한다. 이 곳에 곰보돌이 많이 있다.

▶주막거리(터) : 지곡동입구 삼거리부근에 있던 주막집터. 예전에는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주막이 한 채 있었음.

▶안다래울(골) : 다래울마을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앞들(들) : 기와집말 음애 이자고택 앞에 있는 들로 연못이 있었다.


▶연화봉(산) : 음애 이자선생 묘역이 있는 큰나라 오른쪽에 있는 산. 연화봉(蓮花峰)으로 연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연화봉으로도 불리고 있음.

▶용피산(산) : 한천말 동북쪽에 있는 산. 상하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예일교(다리) : 지곡1통 박촌마을 부근에서 지곡천을 건너 예일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량으로 예일유치원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엘예섯마지기들(들) : 사기막 마을 바로 윗편에 있는 들. 논을 전부 합치면 열여섯마지기가 된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함. 지금은 창고가 많이 들어서 있음.

▶우리교(다리) : 중동교에서 우리산업(주)로 건너는 교량.

▶음애이자묘역(묘소) : 지곡2동 마을회관 건너편에 있으며 경기도기념물 제172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광조와 함께 개혁정치를 펴다가 기묘사화 때 파직된 조선 중기의 문신 이자 내외의 합장묘로 같은 묘역에 아버지 이예건(李禮堅), 형 이운(李耘), 이누(李耨) 아들 이추(李秋)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큰나라.

▶이고개(고개) : 중간말에서 매작골을 거쳐 상하동 민제궁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도장골에서 오르면 이고개 정상에서 만나 민제궁으로 넘어간다.

▶이진봉(산) : 매작골 위편에 있는 봉우리. 예전에 진터가 있었다고 한다. 이진은 옛진의 변음으로 ‘예[古]+陣’으로 풀어볼 수 있다. 처인고 고림동의 이진말이 고진(古陳)으로 옛날 진터가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인데 지명의 변화가 동일하다. 하여 산제봉(山祭

峰)이라는 이름이 생겼음.

▶작두골(골) : 중간말에 있는 골짜기. 큰 작두골과 작은 작두골이 있으며 대작골 오른편이 됨. 작은 작두골에는 물맛이 이름난 샘이 있었음.

▶장고개(고개) : 다래울에서 삼가동 고등골 안터로 이어지는 고개로 주로 용인장으로 가던 고개였다고 한다. 높이는 더 높아도 고등골고개보다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주로 다래울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고개라고 한다.

▶장승배기(터) : 지곡2통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중간말로 향하는 길옆에 있음. 예전에 장승을 깎아 세웠던 곳으로 지금도 돌장승이 세워져 있음.

▶절골(골) : 기와집말 뒤 골짜기. 현재도 작은 암자가 있다.

▶절골논(논) : 다래울 입구에 있는 논. 예전에 절터가 있었다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함.

▶절터(터) : 매작골 위편 까마구봉 아래편에 있는 절터. 넓고 평평하게 생겼으며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고 함. 돌을 제치면 죽은 빈대가 있다고 했음.

▶중동교(다리) : 지곡1동 마을회관 부근에서 매작골 전원마을로 이어지는 교량.

▶중동1교(다리) : 지곡1동 마을회과부근에서 지곡2동마을회관 방향으로 지삼로를 따라 건너는 교량. 지곡동삼거리입구에서 사기막방향으로 이어지는 지삼로가 왼편에 지곡천을 두고 진행하다가 중동1교를 건너면 지곡천이 오른편으로 이어짐.

▶지곡2교(다리) : 지곡2동 마을회관 앞에 있는 교량.

▶지곡저수지(저수지) : 지곡동 남쪽 덕골고개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저수지. 1969



년에서 70년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유역면적은 107ha 물리면적은 34ha이다.

▶지삼로(길) : 지곡동삼거리 입구(사은정고개)에서 지곡천을 따라 진행하다가 사기막을 지나 고등골고개를 넘어 처인구 삼가동 삼가역부근까지 이어지는 도로.

▶체봉골(골) : 사기막골 입구 왼편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 옛적에 초분이 있던 골짜기라고하는데 체봉은 초분의 변음으로 보임. 초분(草墳)은 죽은 이의 시신을 임시로 묻거나 쉼으로 덮어 놓았다가 시일이 경과한 뒤 뼈만 추려 묻는 습속으로 남해안과 섬 지방에 최근까지 남아 있었던 장례습속임. 초분이 있던 골짜기에 공동묘지가 자리잡았다고 하여 지명과 꼭 들어맞는 예로 설명하고 있었음.

▶큰나라(능선) : 음애 이자선생 묘역이 있는 능선을 큰나라라고 부른다. 풀이하면 ‘큰+나라’가 이는 큰날의 연음이 된다. 긴등, 즉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을 ‘긴날’이라고도 하는데 큰날은 큰 장등 정도의 뜻을 가지는 말이 된다. ☞음애 이자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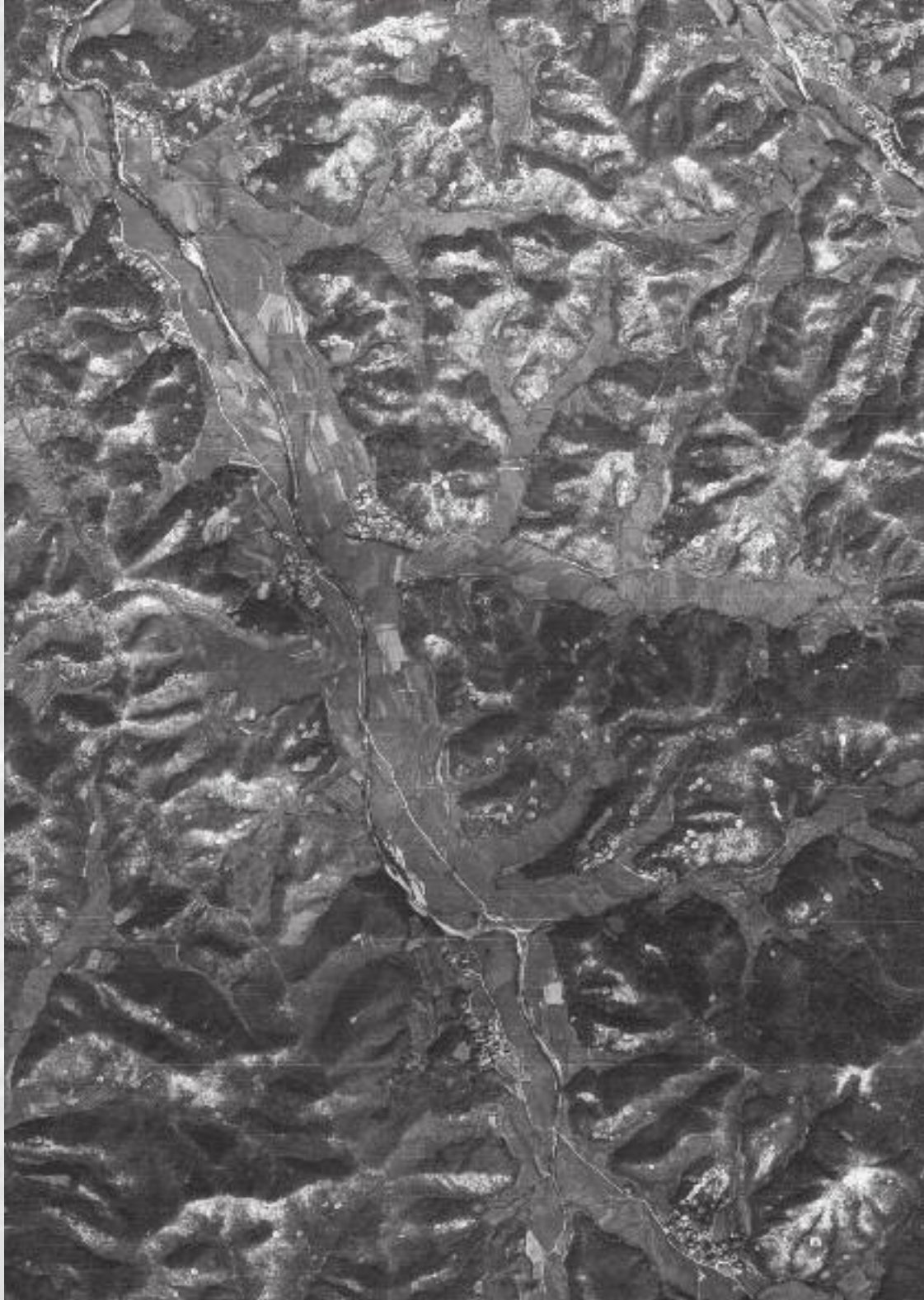
▶파방골(골) : 다래울골짜기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 변전소 입구 오른편이 됨.

▶하동교(다리) : 지곡동삼거리 입구에서 315번 지방도를 따라 용인시청방향으로 지곡천을 건너는 교량.

▶행성뚝(터) : 상여를 보관해두던 창고가 있던 자리로 장승배기 가까이에 있었음.

▶홍두깨날(능선) : 다래울골짜기 안에 있는 능선. 능선아래편에 변전소가 있음. 옛날 어느 지관이 귀(貴)한 사람은 나지만 부(富)한 사람은 나지 않는 자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옴.

▶황새들(들) : 중간말 북쪽 예일유치원 건너편에 있는 들.



### 1-3. 지곡동 인문지리 환경 변화

## 1) 용인의 옛 모습 (1960년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은 1966년 9월에 찍은 것으로 당시 용인군 일대와 기흥 그리고 지곡동 주변의 지리환경을 살필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와 현저히 다른 도로망이다. 용인을 동-서간 횡축으로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은 42번 국도이다. 이와 더불어 **수여선<sup>1)</sup>**을 빼 놓을 수 없다. 수원에서 여주까지를 연결하는 협궤열차 수여선의 용인구간은 원천-덕곡(현재 흥덕동)-(터널)-신갈-어정-(터널)-삼가-용인-마평-양지-제일(간이)-오천(이천)으로 연결되는 노선도가 선명하다.

42번 국도 역시 노선은 대동소이하다. 신갈동을 보면 신갈초등학교 앞으론 42번 국도가, 학교 뒤론 협궤열차가 달렸다. 42번 국도는 현재 상하동에서 효자고개(과거에는 작은 메주고개)를 넘어 삼가동으로 연결되지만 당시에는 어정을 거치고 메주고개(먹조현·覓祖峴)를 넘어 삼가동에 닿았다. 따라서 당시 항공사진으로 보면 상하동-삼가동 구간 도로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소로(小路)이었음이 확인된다. 국도 노선이 바뀐 것은 1973년 역북동에 제3야전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기존 도로노선을 상하동 쪽으로 돌려 작은메주고개는 대로(大路)로 바뀌게 된다.

당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인공 구조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기흥호수<sup>2)</sup>**다. 1964년에 준공하고 담수가 끝난 뒤여서 거대한 크기가 실감나게 느껴진다. 당시 흑백 항공사진에서 보여 지는 자연환경은 지금과 확연히 다른 산림이다. 당시 땀감은 대부분 나무를 채취해 사용했기에 높은 산마저 허영게 황폐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매장문화가 일반화되고 묘역 관리를 중시했던 탓에 마을 가구 수 만큼이나 분묘 수가 많음을 보게 된다.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당시는 고유한 전통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상구조는 산림과 하천 그리고 도로 외에는 드물게 학교와 공공청사 등 건물이 있을 뿐 비슷한 크기의 가옥들이 옹기종기 몰려있는 형상이다. 농지 역시 본격적인 경지정리 전이라 굴곡진 농경지의 모습이 정겹게 다가온다.

1) 일제 강점기인 1930년 12월에 사철인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여주 지역의 쌀을 수탈하려는 목적으로 부설하였다. 1942년에 수인선과 함께 조선철도에 양도되어 두 선을 합쳐 경동선(京東線)이라 하였다가 광복 이후 사철 국유화 정책에 따라 교통부 철도국 소유로 변경되었다. 1971년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여주와 수원 사이의 철도 교통 수요가 급감하여 1972년 4월 1일에 전 구간 폐선되었다. 폐선 당시 노선 연장은 73.4 km였다. <위키백과 참조>

2) 기흥저수지(기흥호수, 기흥 호수공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저수지이다. '신갈저수지'라고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58㎢ 규모로 조성했으며 1957년에 착공, 1964년에 준공되었다. 시설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이다.



1966년 지곡동 중간말 박촌말



1966년 지곡동 하동 한촌말

## 2) 지곡동의 옛 모습 (1966년)

1966년 9월 항공사진에 비친 지곡동은 ‘피난골’로 불리는 오지(奧地)였던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동쪽으론 삼가동 궁촌에서 사기막골로 넘어가는 고갯길은 실선처럼 좁고 지금은 공장지대로 변했으나 당시 마을은 온통 농경지 뿐이다. 지금은 낚시터로 유명한 **지곡저수지**<sup>3)</sup>도 보이 질 않는다.

사기막골에는 15호 정도의 민가가 형성되어 있고 지곡천의 발원지가 되는 지곡저수지 골짜기로는 민가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기와집말 주위로 10여 호가 자리하고 있고 읍애 이자선생 묘역 동쪽의 다래울에도 10여 호가 등지를 틀고 있는 모습이다. 묘역 서쪽

3) 지곡저수지는 1969년 축조되었다. 농어촌공사가 아닌 용인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곡동 마을 수리계(회장 이변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1966년 지곡동 기와집마을과 다래울



1966년 지곡동 사기막골

엔 민가가 아예 없다. 지금의 중동 길 양편으론 제법 호수가 많은데 각각 15여 호씩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쪽으로 마을 도로를 따라 박촌말로 불리는 곳에도 10여 호가 자리하고 있고 사은정 부근 하동 한촌말에도 비슷한 가구 수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동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동족촌을 촌락마다 형성하면서 큰 틀에서 지곡동을 이루고 있는 전통 농경사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3) 기흥의 옛 모습 (1987년)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를 통과하는 시기는 정치적으로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시대를 거쳐 신군부에 의한 민주주의 억압은 계속 됐던 기간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88올림픽을 앞둔 국민적 자부심의 고양, 인류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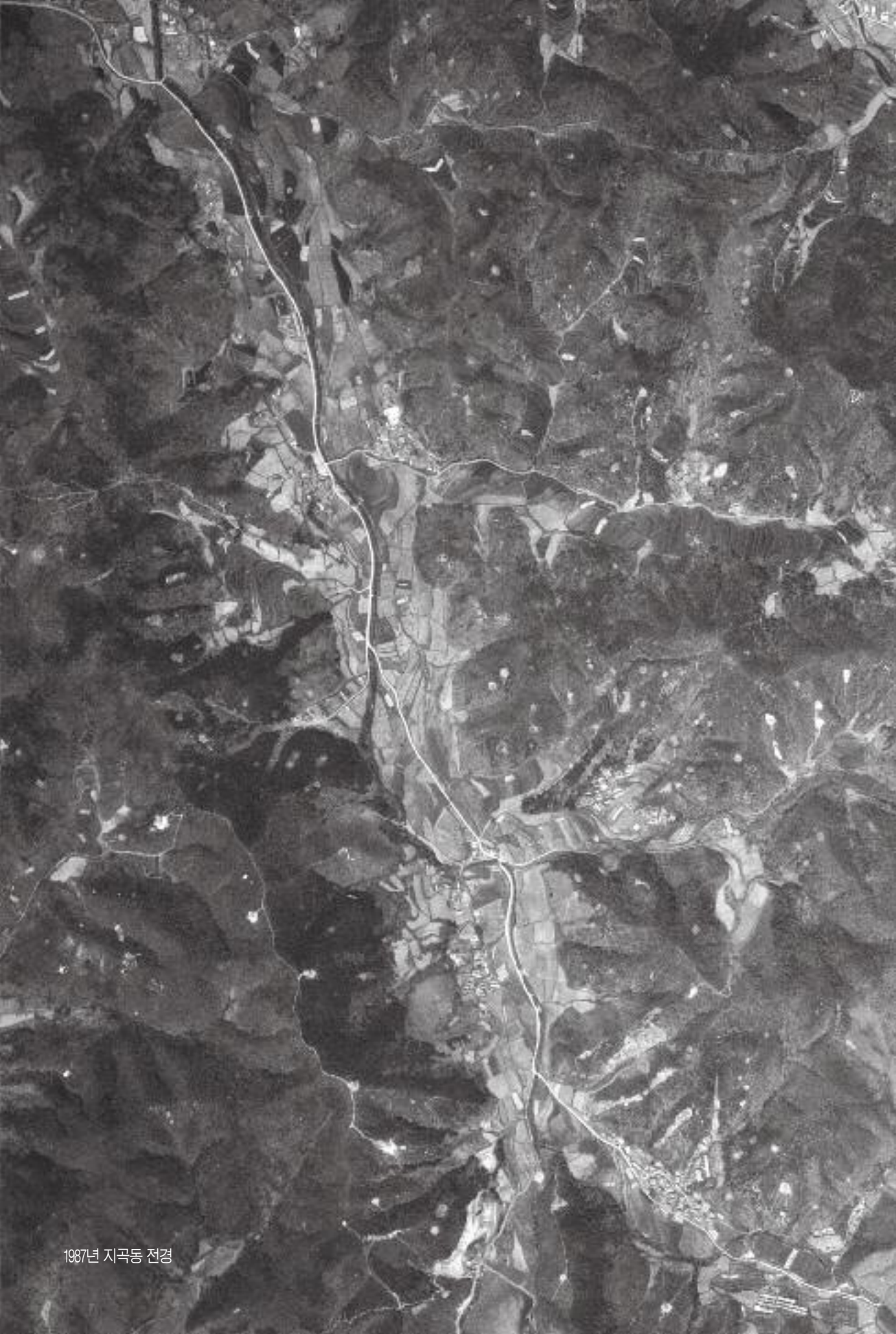
사회 경제영역에서 70년대부터 지곡동이 포함된 기흥권역은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경부고속도로**<sup>4)</sup> 서울-신갈구간이 1968년 개통되면서 교통의 중심으로 떠 오른 가운데 70년대부터 산업시설이 급속히 기흥을 중심으로 자리하게 된다.

80년대 들어 기흥의 팽창은 기흥읍 **승격**<sup>5)</sup>으로 상징된다. 당시 용인군의 총면적 가운데 두 번째 규모의 면적에 산업과 교통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교육기관도 급격히 늘어나 1985년 신갈고등학교 개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강남대학교(당시 강남사회복지학교), 루터신학교가 들어서는 시기다. 산업분야의 성장을 상징하는 것은 삼성전자 유치다. 1983년 농서리에 기흥공장을 준공하면서 반도체 산업 세계1위 신화를 만들어간 것도 기흥이다.

항공사진으로 보면 실감나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사업의 결과로 가지런히 정비된 농경지를 많이 볼 수 있다. 살기좋은 고장을 만든다는 전 국민적 운동의 결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벌여 가옥구조는 대부분 슬레이트지붕 또는 기와지붕으로 바뀌었다. 경부 고속도로가 새로 개설된 반면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철도는 사라지고 없다.

4)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68년 2월이다. 당시 서울 연지동 톨게이트에서 기공식을 한 후 착공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1차 구간이 완공되었다. 바로 서울-신갈까지였다.

5) 대통령령 제11772호(1985.9.26.)로 기흥면이 기흥읍으로 승격(2읍 9면)



1987년 지곡동 전경



#### 4) 지곡동의 옛 모습 (1987년)

항공사진을 통해 본 지곡동은 60년대와는 상전벽해의 모습을 보여준다. 도로는 포장도로로 바뀌고 폭도 넓어져 선명한 도로선이 드러난다. 용기중기 마을별로 형성되어 있던 집은 도로변을 따라 독립적인 위치에 지어진 경우가 늘었다. 특히 외관을 바꾸는 것은 농경지 비닐하우스 설치다. 과거 미작(米作)중심에서 특수작물이나 사계절 작물 생산이 늘어나면서 비닐하우스 농법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다. 겨울철 다양한 작업공간으로도 수요도 많아 대부분 집집마다 하우스 한 동씩은 눈에 띈다. 두 번째로 획기적인 변화는 농경지와 주거공간에 까지 파고 들어온 공장과 창고시설의 증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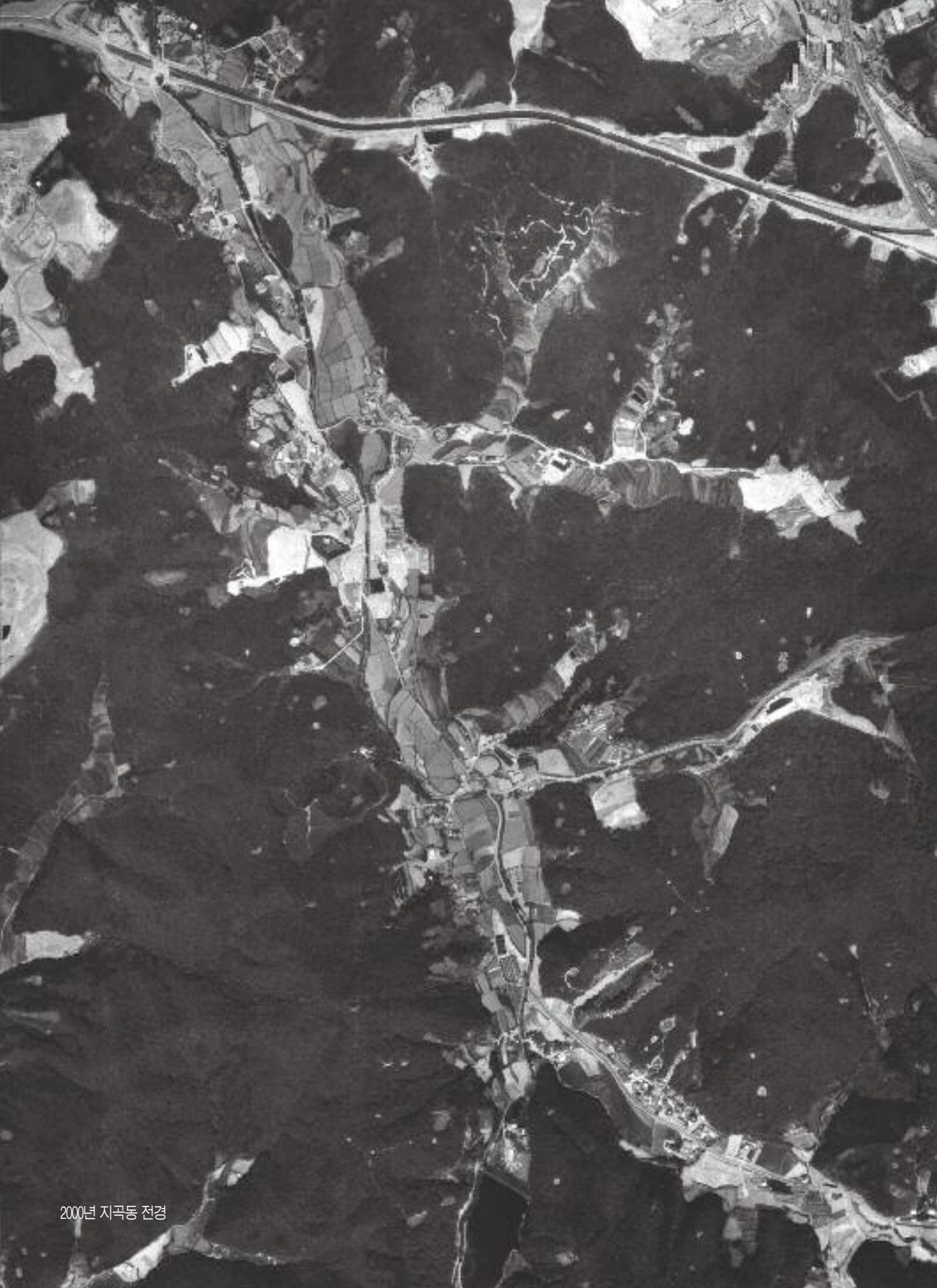
기흥일대에 대규모 공업시설이 들어서면서 하청관계에 있는 작은 부자재 공장들이 그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결과물로 지곡동의 공간구조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물류산업의 활성화는 교통이 용이하고 토지비용이 적은 지곡동을 찾게 되었고 농경지는 서서히 창고부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만 해도 마을공간은 여전히 농경지가 주를 이뤘으며 주업은 농업이었다.

#### 5) 지곡동의 옛 모습 (2000년)

21세기를 여는 밀레니엄 2000년, 지곡동의 커다란 변화는 지방도 제315호선<sup>6)</sup>의 준공이다. 기흥구 서천동과 상하동을 잇는 지방도로가 바로 지곡동을 통과하면서 지곡동 마을지도를 바꾸는 한편 획기적인 주변 환경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그 핵심은 농경사회의 해체과정이자 직업군과 핵심산업의 전환을 의미한다. 공식통계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주민들 가운데 가장으로서 전업적 농업종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은 농지를 전용하여 창고업 또는 주말농장 등 임대소득과 부대수입이 많은 겸업농으로

---

6) 지방도 제315호선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삼거리에서 화성시, 수원시를 거쳐 용인시 기흥구 상하교를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로 42번 국도와 상하동에서 연결된다. 2005년부터 평택에서 시작되어 2000년 지곡동을 거쳐 완공되었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외서천내서천을 지나 하갈라보라리의 한국민속촌, 지곡리 사은정 등을 경유한다. 수원 방면에서 신갈을 경유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연장 구간은 6.8km이고, 상하행 4차선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분 참조)



볼 수 있다.

아예 농업 종사자들이 농지를 용도 변경하여 창고대여나 공장에 임대하는 사례가 늘면서 손을 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전통농경사회를 지켜왔던 원주민들 구성 비율로 볼 때 대부분 노인층이 많은 탓도 있지만 ‘탈농업-탈농촌’의 심화라는 한국사회의 일반화된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출신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출향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경기남부 지역에 위치한 입지 특성에 기인하며 일자리가 양적 질적으로 타지에 비해 좋은 환경임을 반영한다.

주거환경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봉 씨니밸리 아파트 신축이다. 1,092세대 총1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도에 지곡동에 들어서면서 농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연마을 지곡동은 신도시와 결합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2000년 항공사진을 통해 본 지곡동은 1966년에 비해 농지는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그 자리엔 공장과 물류창고가 대체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말을 중심으로 농경지 훼손과 용도변경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반경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소와 물류단지는 기존 사용농지나 유휴지보단 개발허가를 통해 산지를 개발함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6) 지곡동의 현재 모습

최근 지곡동의 모습은 농촌과 도시의 경계에 서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여전히 농토가 폭 넓게 자리하고 있지만 구석구석 물류단지, **연구소<sup>7)</sup>**, 수련원, 물류창고, 제조공장이 들어서 있다. 주거형태는 전통적 농가와 양옥식 주택이 혼재해 있다. 특히 최근엔

7) 전 세계 'TOP 3' 글로벌 네트워크의 메카를 자부하는 기업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가 2013년 하동에 들어섰다. 이곳에선 600여 명의 연구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1977년 개원 이래 소방용품과 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로 담당하는 준정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 지곡동에 자리잡고 있다.

## 지곡동 행정구역

행정동	법정동	통리명	반	관할구역(번지)
상갈동	지곡동	지곡1통	1반	441~512, 564~615
			2반	315~380, 385~443, 513~563
상갈동	지곡동	지곡2통 (지곡)	1반	218~314, 381~384
			2반	1~127
상갈동	지곡동	지곡3통~5통	28개 반	자봉마을 씨니벨리(아)

## 상갈동 및 지곡동 인구통계 (2017.12.4 기준)

인구 (명)			세대수
계	남	여	
46,288	23,318	22,970	17,459

### 지곡1통

인구 (명)			세대수
계	남	여	
665	345	320	254

### 지곡2통

인구 (명)			세대수
계	남	여	
346	178	168	170

자봉 **씨니벨리아파트단지<sup>8)</sup>**라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 기존 지곡동 주민 수를 훨씬 앞서 신도시 주민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전원주택단지<sup>9)</sup>**의 등장도 마을지도를 바꾸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약 20여 년인 1998년 기흥읍 통계에 따르면 1통은 284명에 세대 수는 89세대 였으나 최근 통계를 보면 665명의 인구에 254세대를 이루고 있다. 지곡 2통의 경우 1998년에는 주민 수 243명, 세대수 77세대였으나 2017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각각 346명에 170세대를 이루고 있다. <도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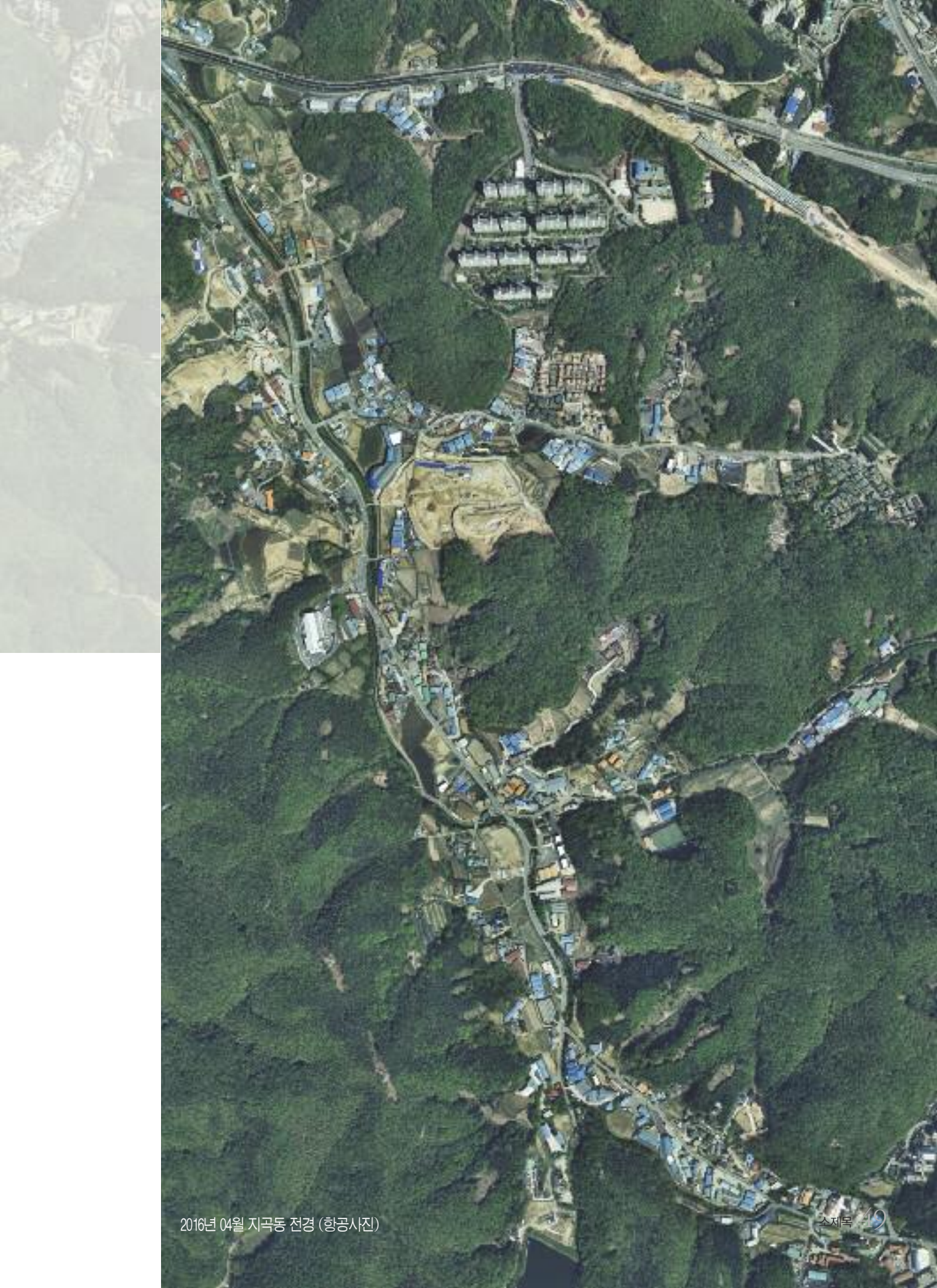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전통마을을 이루고 있는 인구 수의 급격한 변화는 없으나 아파트 단지화 전원주택의 등장에 따른 지곡동 전체의 인구 추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상표

8) 2004년 11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총 1092세대가 살고 있다. 14개동 / 총 2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봉마을 씨니벨리 아파트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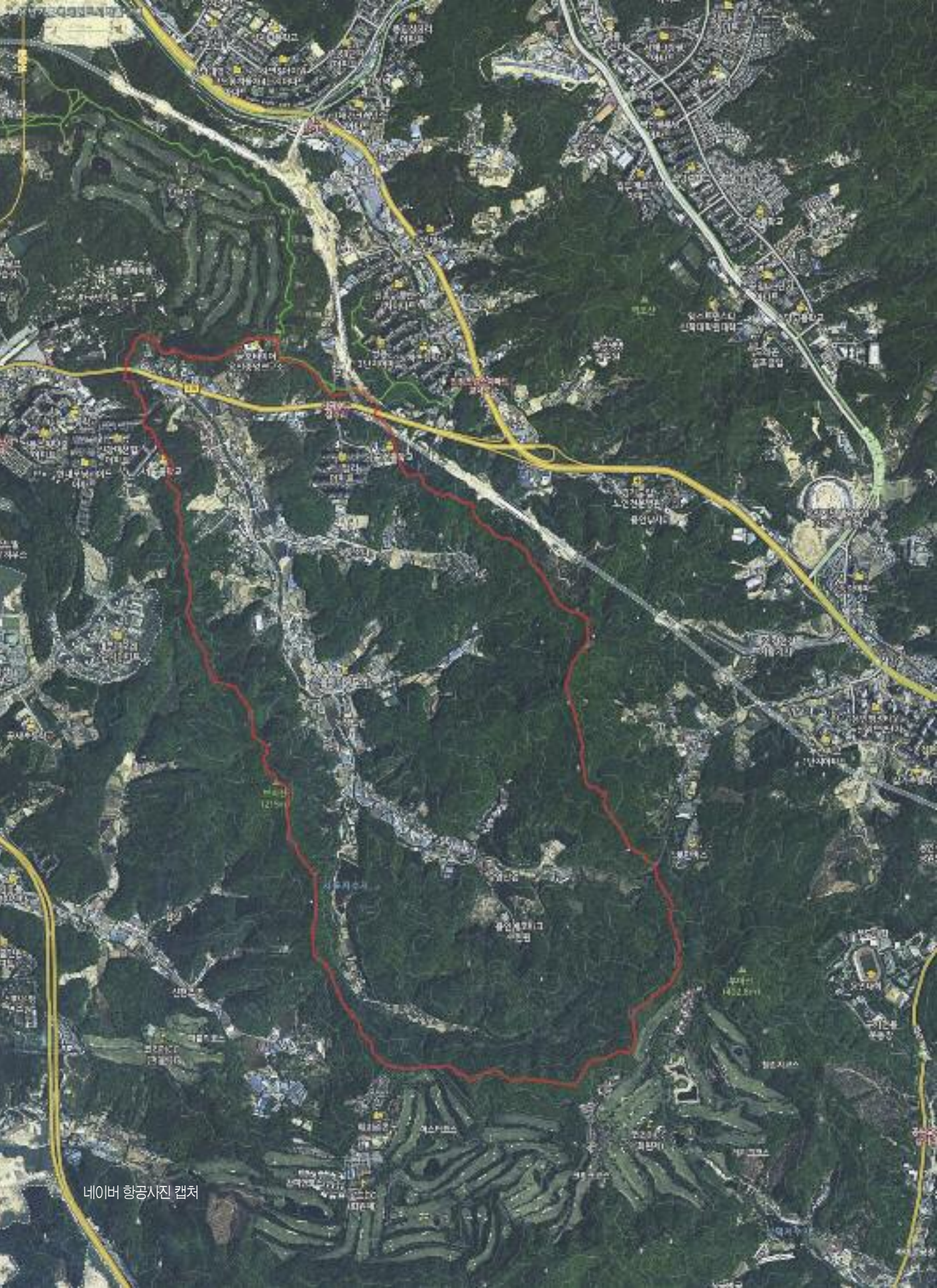
9) 매자골 전원마을, 리치니스빌리지 등이 이미 조성되어 독립적인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몇 몇 단지가 조성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2016년 04월 지곡동 전경 (항공사진)







## 1-4. 지곡동 산업환경 변화

지곡동에 주민이 살기 시작한 것은 네 곳의 성황당이 있고 고려시대 무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곡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산업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90년대 까지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1960년대 말 신갈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신갈이 먼저 발달되었는데 주변 때문에 발전한 것이 되었다. 1980년대 광주군 돌마면 일원에 분당신도시가 개발되고 이어 수지에 아파트촌이 형성되었으며 2010대 기흥구 남단에 동탄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기흥구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여파로 지곡동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각종 생산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업, 각종 공업시설이 입주하였다. 또한 대도시에 비해 지가(地價)가 저렴하여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형성되고 공기가 맑아 전원주택마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인구가 늘고 각종 음식점, 상점, 부동산업이 늘어가기 시작 하여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중심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기 시작 하였다. 현재는 농업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곡동에 농업, 임업, 상공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백 년 이어온 전형적 농촌마을

지곡동은 부아산에서 발원하는 두 줄기의 개울, 다래울 마을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개울 세 개의 개울이 합류하여 지곡천을 이룬다. 흐르던 물길은 지곡동 중간지점 매작골에

흐르는 개울이 합류하여 흐른다.

이 개울과 하천 주변에 논이 이루어져 벼농사를 지어왔고 물이 적은 산 인근에 밭농사를 지어왔다. 논 농사는 벼가 중심이 되나 1970년대 식량증산 사업으로 논보리를 심어 용인군에 논보리 시범마을이 되기도 하였으나 농업기술의 발달과 보리 수요부족에 따른 값의 하락으로 현재는 벼만 심고 있다.

현재는 각종 산업시설이 농지에 입주함에 따라 논농사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밭 농사로는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밀, 보리, 수수, 조, 파, 마늘, 무 배추 등을 재배하여 왔으나 보리, 밀, 조등은 가격이 하락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심지 않고 있다.

## 2) 지곡동의 특용작물

판매를 위한 특용작물로는 고구마, 담배, 누에, 오이, 고추 등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구마는 일제 시기부터 심어 싹을 띄워 김량장과 수원장에 팔아 지곡동 주민이 소득을 올리는 효자품종이었다.

○ 담배농사를 지어 담배 잎을 햇볕에 말리어 용인에 있는 전매소에 납품하여 소득을 올렸다. 1950년대 말 황색 연초를 만들기 위하여 건조실을 지었다. 건조실은 높게 지어 야함으로 이 건물은 당시 지곡동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으며 4곳이 있었다. 지금은 담배를 재배하지 않아 건조실은 존재 하지 않는다.

○ 양잠은 일제 강점기에 현 처인구 양지면에 잠업강습소와 잠종제재소(누에 알을 키워 보급하는 곳)이 있어 그 영향으로 용인 이외의 지역보다 일찍 지곡동에도 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누에를 기르는 농가는 없다.

1970년대 까지만 하여도 누에를 치기위한 흔적인 뽕나무가 밭 가장자리에 있었다. 1970년대 이곳 출신 농학박사 남중희가 실험적으로 참나무 누에치기를 삼골 참나무 숲에서 실시하였으나 성공은 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급자족 농업에서 상농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곡동에도 오이 고추 마늘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렸다. 2000년대 이후 각종 유통업의 입주로 인해 경작지 축소로 점점 쇠퇴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축산업은 비육우와 젖소를 키웠었으며 다래울과 사기막에 큰 목장이 있었다. 사기막골에 외지인이 들어와 수 천수의 양계를 치는 양계장이 생겼다. 한 때는 양돈업이 성행하여 수천 수의 양돈업이 성행하였으나 현재는 환경오염의 문제로 소멸하였다. 그 터에 물류업체나 제조 회사가 입주해 있다.

### 3) 용인 고구마 농사의 대표마을 지곡동

지곡동의 땅이 척박하고 산지가 많아 구황식품 중의 하나인 고구마를 일제강점기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인근에서 “**고구마하면 득골 고구마, 질 고구마**”<sup>1)</sup>라 할 정도로 지곡동 고구마가 수원장, 김량장에서 유명한 고구마 산지로 알려진 마을이다. 그리고 특용작물로 담배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참외, 오이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아무튼 지곡동에서 대표적인 상농업은 뭐니 뭐니 해도 고구마 농사였다. 고구마 생산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싹틔워 팔기

양력 3월 초순 집 인근 터를 직사각형으로 30cm~40cm 파고 가장자리에 이영을 두른 후 갈잎을 풍성하게 넣는다. 그 위에 인분과 물을 뿌리며 꺾꽂고 갈잎을 넣으며 인분과 물을 뿌린 후 흙을 약간 덮는다. 그 위에 고구마를 촘촘하게 놓은 후 다시 고구마를 흙으로 덮는다. 흙을 덮은 후 이영으로 덮는다.

20여일 지나면 싹이 트게 되고 싹이 트면 이영을 열고 물을 풍부하게 주고 밤이면 이영 덮기를 반복한다. 물은 개울이나 공동우물에서 퍼 나무로 된 오줌통이나 양동이에 담아 나른다.

이렇게 기른 고구마 순을 4월 말 5월 초에 자르기 시작하며 자른 순은 100개 한 묶음(한단)으로 하여 시장에 내다 팔게 된다.

---

1) 득골은 이동면 서리 덕골을 말하며 질은 지곡동을 말한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지곡동을 '질'이라 불렀다.

판매방법은 과거 교통이 불편 할 때 묵은 고구마 순을 머리에 이고, 지게에 지고 수원장(30리) 김량장(20리) 몇 시간을 걸어가 시장 난전에서 팔게 된다. 당시 한 단이면 가을에 쌀 한 되 값이었다. 밭 한 평 값은 쌀 3~4되 값에 불과하였으니 고구마 싹의 수익성은 대단하였다.

값이 좋으니 마을 모든 가구가 고구마 온상을 함께 개별적으로 시장에 팔기보다는 장날이면 트럭을 불러 공동으로 싣고 가서 위탁판매를 하거나 시장에 놓고 소매를 하였다. 현재에도 고구마 싹을 길러 판매하는 데 온상이 아닌 냉상으로 변화되고 이영으로 덮지 않고 비닐 하우스를 지어 기르는 방법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온상에서 냉상으로 변화된 데에는 일화가 전해진다. 정기준이라는 분이 게을러서 남이 온상을 할 때 하지 않다가 남이 하니 안할 수 없어서 땅을 약간 파고 갈잎이나 인분을 넣지 않고 맨땅에다 고구마를 놓고 흙을 덮은 후 이영을 덮어 놓았다 한다.

얼마 후 온상이나 냉상의 소출량이 서로 다르지 않음에 이후 모든 사람들이 냉상을 하여 일손을 크게 줄였다. 물주기는 냇가에 호수를 이용하여 물을 주어 과거보다 편리하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비닐이 보급되어 비닐하우스를 지어 그 안에 냉상을 하게 되었으며 이영으로 싹을 띄울 때 비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잘라야 했으나 지금은 하우스 속에서 자르다보니 비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으나 5월이면 더운 단점이 있기도 하다.



고구마 줄기와 잎



고구마 캐는 모습

## (2) 고구마 심기, 먹기, 캐기.

과거에는 쟁기로 고랑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하여 고랑을 만든 후 심게 되며 고구마를 심을 때 물기가 풍부하여야 함으로 가뭄이 들 때는 일일이 물통에 물을 저다 심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비올 때를 기다렸다 심게 되며 비온 후에는 고구마 싹의 값이 오르게 되고 농민들은 일손이 더 바쁘게 된다.

5월이나 6월경에 심은 고구마는 10월경에 캐어 방 윗목에 수수깡으로 저장고를 만들어 보관하였으나 지금은 종이박스에 담아 저장한다. 저장한 고구마로 봄에 온상 또는 냉상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고구마 자체를 판매하지 않고 모두 저장하였으며 겨울철 밤에 고구마를 꺼내어 화로 불에 구워 먹거나 아침에 학생이 학교에 갈 때 한 두어 개 가지고 가다가 길가 풀숲에 감추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먹기도 하였다.

현재는 교통이 발달하고 고구마 수요가 늘자 고구마를 캐자마자 판매하고 판매할 수



없는 잔챙이를 보관 하였던가 다음해 싹을 틔우고 있다. 쌀이 부족할 때는 밥할 때 고구마를 넣어 밥을 하여 곡식 대용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묵을 해 반찬으로도 활용 하고 있다.

#### 4) 산림자원 활용 먹거리와 소득

지곡동은 농지보다도 산지가 많은 오지마을 중에서도 오지이다. 노선버스가 다니거나 자가용이 보급되기 전에 외지로 나아가려면 신갈이나 상하동에 가서 버스를 타야만 하였다. 이곳을 가려면 산 고개를 넘어야하는 산지마을이다.

산이 많은 이 마을에서 봄이면 취, 고사리, 다래 순 등을 채취하여 나물을 무쳐먹고 여름·가을에는 각종 버섯을 따다 먹고 머루, 다래, 으름, 밤 등을 따 먹었다. 버섯 중에 독버섯인 파리버섯은 무더운 여름에 자라 이를 따다 밥에 비벼 이곳저곳에 놓아두면 파리가 와 이를 먹고 죽음에 파리퇴치용으로도 활용하였다

지곡리에 임산물로 이름있는 것은 밤을 들 수 있다. 밤나무는 집 인근에 자연적으로 자라거나 식수를 하여 길러 가을이면 밤을 따 판매하여 수입을 올렸다. 그 외에도 산을 이용한 수입원으로 별목, 나무장사, 버섯 기르기, 벌 키우기 등을 들 수 있다.

별목은 나무를 베어 판매하는 것을 말 하며 일제시기부터 지곡동에는 소나무, 전나무, 낙엽송 등이 많이 자라 이를 허가를 받아 별목하여 목재나 펄프로 판매 하여 수입을 올렸다. 또 가랑잎을 긁어모으는 갈퀴나무, 풀과 작은 나무 가지를 잘라 하는 낫 나무, 나무를 베어 쪼개는 장작나무, 솔잎만 긁어 하는 솔잎나무 등 다양 펄프를 지게나 마차로 김량장이나 수원에 내다 팔았다.

또 외지인들이 지곡동에 펄프가 풍부함으로 마차를 이용하여 이곳에 와서 슬며시 펄프 나무를 베기도 하였는데 주인이 있는 산에 함부로 오르게 되면 커다란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 사가기도 하였다.

1970년대 말 충청도에서 이사 온 김덕용이 사기막골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하며 이 표고버섯이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자 주민 여럿이 표고버섯 재배를 하였다. 현재는 참나무 구하기가 어려워 소규모로 먹기 위한 재배로 남아있다.



## 5) 지곡동의 가내 수공업

공업이란 원료를 사용하여 인간에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 한다고 볼 때 지곡동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집에서 여인들이 베를 짜고 옷을 짓고 비누 만들고, 가마니 삼태기, 짚신 짜는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은 볼 수 없다

과거에 지곡동에서 판매를 위한 공업 형태로 솥을 굽던 가마터가 여러 곳이 있었다고 구전에 전해진다. 도자업으로 다래울에 1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옹기 가마터가 있었다. 이 터로 인해 가마장등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또 사기막골에 1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가마터 두 곳과 인근에 유구 터미가 있다. 이로 인해 터가 있는 골짜기를 사기장골, 이곳에 있는 마을을 사기막골이라 한다.

현대적 의미의 공업은 양말공장을 들 수 있다. 양말공장 설립 과정을 보면 서울에서 양말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피난 와서 하다가 그 후 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와 기와집 말에서 결방살이를 하며 소규모 양말 공장을 운영하였다.

그 후 문씨가 사기막으로 이사하고 홍갑이라는 사람이 기와집말에서 양말을 짜다가 두 사람 모두 도시로 이주함에 지곡동 출신인 이현규, 이석구가 각각 기와집말에서 전보다 더 큰 규모 공장을 운영하였다.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기계는 수동이었고 실은 면으로 된 실 덩어리를 구입하여 문래를 돌려 실타래를 만들고 염색을 하여 빈 깡통에 실을 감아 기계에 놓고 잤다. 이 과정에서 남자들은 주로 기계를 움직이고 여자들은 실을 감거나 염색을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주민들이 농외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도시에서 자동으로 생산하는 나일론 양말이 제조 판매하기 시작됨에 지곡동 양말은 경쟁력을 약화되어 자연 없어지게 되었다.

## 6) 농업에서 임대업으로의 변화

지곡동 인근인 수지, 동탄이 아파트로 변화되면서 그곳에 위치하였던 각종 유통을 위



사기막골 창고 및 소규모 공장 시설

한 창고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타지보다 땅값이 저렴한 지곡동으로 이주하면서 창고 임대업이 급격히 발달 하였다. 농업을 주로 하던 주민들이 창고 임대업이 농업소득보다 높아지자 창고임대업으로 직업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지곡동 상동마을에 창고를 살펴보면 사기막골에 30여 곳, 기와집말에 30여 곳, 다래울에 11곳이 있으며 주로 100내지 60평으로 지어져 있다. 임대업의 수입은 월 평당 25,000원 씩 100평이면 250만원에 이른다. 벼농사를 지을 경우 쌀 2가마가 생산되면 30여 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그 수익성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농업은 점차 줄고 농지는 공장 터나 창고 터로 변화하였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 7) 공업시설 대거 입주와 지곡동의 변화

1980년대 중반에 중간 말에 설립 운영되었던 전자회사로 지곡동에 맨 처음 입주한 제조회사 이었으며 이후 건축자재 스티로폼 제조회사 <새한 수지>, 삼성전자에 핸드폰 부품 제조회사인 <알파정밀> 등이 1990년대 초 입주하여 지곡동 주민들이 농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우리산업

그 외 박스회사인 삼성포장,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유영산업, 잇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리콘을 소재로 만드는 칫솔회사인 <엘키멕스>, 삼성전자에 전선을 생산하는 <JS정밀>, 친환경 페인트 벽지를 생산하는 <프리바이오> 등 다수의 제조업이 성업 중에 있다.

그리고 다래울 앞산에 지곡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송골과 사기막골 사이 야산에 녹십자등 다수의 제약회사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에 있다.

현재 지곡동 제조회사들 대부분은 영세업체들이나 이들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는 중간말에 위치한 우리산업(주)가 있다. 이 회사는 1989년 설립 된 회사로 2010년대 초 지곡동으로 이전 하였으며 평택, 오산 천안 등지에서 자동차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연구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지곡동은 본사로서 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외국에 지사로 인도, 멕시코 중국 등에 있다.

## 8) 행상의 추억과 먹거리 마을 지곡동

1950년대 까지 지곡동에 특별히 상점을 형성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곳은 없었다. 이때 옷가지나 광목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단골로 집집마다 방문 판매하는 필육장수, 등잔불을 켜기 위한 석유장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리어카를 이용한 옛장수, 여름이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이스케이크 장수' 물감 등 잡화를 이고 다니는 박물장수 등이 마을을 찾았다.

아이스크림 장수는 마을을 다니며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케익히”를 외치며 골목을 누볐고 석유장수는 “석유 사려~ 석유 사려~”라고 외쳤다. 옛장수는 가위를 크게 소리 나도록 치며 다녔다.

또 가을이면 전라도 지방에서 키, 체, 대나무로 만든 조그만 바구니 등을 이고 지고 마을을 돌며 판매하였는데 이들은 밤이 되면 방이 여유 있는 집에 묵어가며 장사를 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1950년대 말 이 고장 주민이 집에 사탕, 오징어 멸치 등을 놓고 판매하다가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마을 구판장을 형성하여 간단한 생활필수품인 술, 초, 담배, 먹거리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상점다운 상점이 생겼다. 이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자 <새마을 상회>라는 간판을 걸고 물건을 판매하였다. 과거에는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곳을 가게, 상회라 불렀었으나 지금은 <슈퍼>라는 영어 말로 상호가 변화되어 00슈퍼라는 상호가 일반적이다.



지곡동 고페르(Gopher) 카페 사진

현재 하동에 편의점 두 곳이 있으며 이곳은 밤에도 지나가는 이들을 위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상동에는 한곳이 있으나 낮에만 운영하고 있다. 또 작은 트럭에 자동차로 물건을 싣고 다니며 마이크로 “콩나물이나 두부, 각종 야채가 왔어요~” 라고 외치는 이동형 자동차 외판도 성행하고 있다.

이외 서비스업으로 토지나 산 매매를 알선하는 부동산이 네 곳이 있고 최근 커피, 차 문화가 발달 하면서 각종 차를 판매하는 카페가 여러 곳 생겼다.

또 지곡동에는 식당업도 늘고 있다. 인구가 늘고 손님대접을 집보다는 음식점에서 하는 문화로 바뀐 점, 각종 산업시설이 입주하여 유동인구가 증가한 점, 한적한 곳에서 식도락을 즐기기 위한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각종 요식업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지곡동에 수십 곳이 성업 중에 있는 관계로 외지인들은 지곡동을 일러 ‘먹자골목’ 또는 ‘먹거리 마을’로 칭하기도 한다. 또 현재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활성화됨으로서 교외지역에 각종 상업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창고를 상점으로 꾸미고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의 상업시설이 입주해 있다.

## 9) 지곡동의 유통 및 연구시설

지곡동은 2000년대 인근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각종 유통회사들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찾아 유통업 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소규모 창고업과 대규모 물류단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의 내용을 보면 각 회사에 납품하는 물류창고 역할과 백화점에 납품하는 먹거리 저장창고 등이 있다. 특히 사기막골에 한국소방기술연구원이 입주해 소방 제품허가를 받기위한 저장 창고 등 수많은 유통회사가 입주하여 있다. 이들 중 큰 업체로 남양유업물류센터로 상동과 중간말 사이에 있다. 중간말 한 켠에 동서가구 물류센터도 큰 규모다.



금호타이어연구소



한국소방기술연구원



남양유업 물류센터

이종구

## 1-5. 지곡동 마을 조직

지곡동의 자연부락은 1통, 2통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동, 중동, 하동 마을로 분리되었던 것을 행정동 분리로 인해 중동, 하동은 1통, 상동은 2통이 되었다. 1통, 2통 합쳐서 약 60여 가구가 지형에 따라 조성된 자연마을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해 비해 3통 이후로는 지곡동과 상하동 경계에 서니벨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큰 왕래가 없어 자연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농업이 생업이었던 지곡동에도 1970년대 이후 산업화로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도회지로 떠나면서 지곡동의 전통적인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전원생활을 찾아 들어온 외지인들과 사업체가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곡동에서 태어나 유년과 청년시절을 보내고 조상을 모시면서 터를 잡고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전통이 있어 옛 정취를 이어주고 있다. 그러한 끈끈함이 상부상조와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하며 주민들의 크고 작은 일들에 힘을 합쳐 대처하며 더불어 살고 있다.

임원은 통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이 바뀌

기 전에는 이장이었던 호칭이 행정단위별로 통장이라고 한다. 통장은 마을의 기금을 관리하고, 공동으로 쓰이는 공간의 개·보수 공사를 책임지고 있다. 각 통마다 3명의 반장까지 모두 합쳐 8~9명의 임원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마을의 대내외적인 행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 마을의 토박이로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에 이른다. 씨니벨리아파트, 전원주택단지, 전통마을까지 합쳐 1400여 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으나 지곡동 자연마을 일원으로 활동하는 대상은 1통과 2통을 합쳐 최대 60세대 정도다.

마을 조직으로는 수리계, 수양장학회, 청년회, 새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상록회 등 지향회, 우정회, 고향회, 또래모임인 우정회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은 공동체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마을의 대소사에 참여하고 마을 발전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모임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부침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조직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리계

농촌에서 농가가 개별적으로 저수지나 보를 축조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한 마을 또는 몇 개 마을의 농민들이 공동으로 저수지를 축조 하였다.

지곡동 역시 천수답이 많아 1960년대 말 송골에 용인군에서 지곡저수지를 축조하였는데 저수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몽리**<sup>1)</sup> 면적내의 농업인들이 만든 조직이다.

70명 내외로 조직된 수리계 회원들은 200평당 살 2말 수세로 매년 200평당 쌀 2되씩 걷어 운영기금을 만들었다. 회의를 통하여 저수지의 주변 정리 저수지 둑 보수, 농번기에 물 보급시기 등을 결정한다.

수익창출을 위해서 수리계원과 비계원이 양식계를 묶어 소요경비를 출원하여 낚시터를 조성 운영하였으나 낚시터를 운영하는 전문 지식 부족과 운영 경비문제로 몇 년 운영하다 외지인에게 임대하여 그 기금으로 장학회를 만들었다. 양식계는 없어지고 수리계

---

1) 몽리지역이란 저수지 물이 닿는 지역을 말한다.



지곡저수지 (수리계)

만 남아있다. 현재 농토가 줄고 낚시터로 임대하였으므로 수리계는 하나에 친목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일 년에 1회 친목을 다지는 관광행사를 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세월이 변해 농지를 팔고 오지로 나간 사람이 많아 50명에 불과하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농사가 생업이므로 농사철에 논에 물을 대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리계는 이처럼 마을단위의 소규모 지역에서 농사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된 수리공동조직을 말한다. 지곡동 마을 맨 안쪽 지곡저수지 아래 쪽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주 또는 농사를 짓는 주민들 70명 내외로 형성된 조직이다. 수리계는 일시적으로 조직되었다가 소멸해 버리는 이익집단과 달리, 농업용수의 확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지속적인 상부상조 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공동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곡1동 마을회관



지곡2동 마을회관

지곡동 수리계의 성원은 해당 수리시설의 물로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한정된다. 수리계에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현재 이변구 계장을 중심으로 수리계 운영전반에 걸친 책임을 지고 있다. 수리계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한다.

또한 수리계원과 양식계원이 지곡동 미래의 희망이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양장학회가 있다.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있어 고·대입 학생들에게 입학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물론 장학회원들의 자녀만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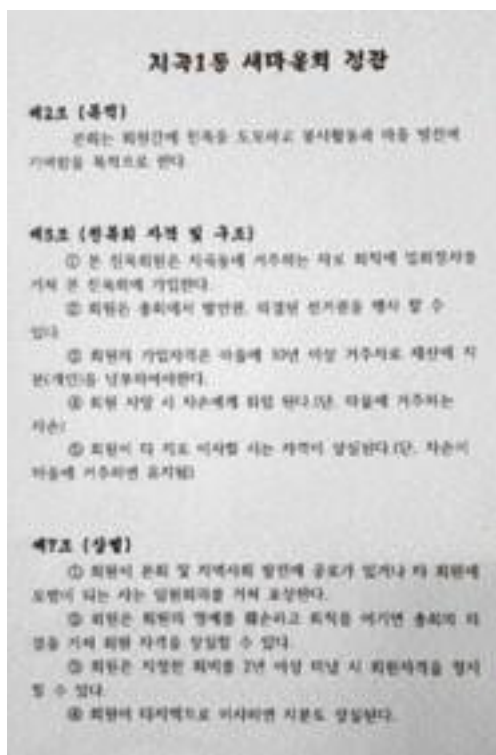
## 2) 지곡마을 청년회

청년회는 이름 그대로 마을 청년들의 모임이다. 1965년경 조직되었으며, 목적은 단합과 마을 봉사다. 경사보다는 애사에 열심이었다. 장례는 (옛날엔 다 매장이었다) 산역(그 때는 장비가 없었다) 부터 매장 봉분까지 완벽하게 했다. 기금이 없으니 수익사업으로 산에 밤나무도 심어보고 가게도 운영하고, 보리벼는 안쪼고 가루(고추 쌀 등) 빵는 기계(방아)도 운영하고 경운기 사서 수원까지 채소 등도 운반하고 탈곡기 부착해서 벼 털고, 동리것 제쳐두고 타동까지 원정 탈고도 했으며 경운기로 수원 도매시장까지 제수용품도 사다가 추석 정월엔 공급하고 경로잔치, 경로관광도 주관하고 정월 초하루 새벽에 북조리를 돌렸다. 그 후 도로가 넓어지고 차가 다니고 탈곡기계도 새로나오니 경운기도 쓸모가 적어졌다. 1리 2리로 분리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회가 생기니 청년회 기능도 쇠퇴되었다.

그 때는 이세라해서 여름에 보리쌀 한 말 가을에 쌀 한 말씩을 거출했다. 이 일은 개발위원회에서 했으며 한 말에서 이장 7되 반장 3되씩 계산해서 지급했다.

## 3) 새마을회

70년대에 농촌재건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고 마을가꾸기 운동이라는 이념아래 농촌사회에 새로운 조직으로 새마을회가 형성되었다. 정부 시책아래 지곡동 역시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졌고 당시 조직된 새마을회는 부녀회와 더불어 오랫동안 활기를 띄며 활동하였으나 새로운 직업을 찾아 도회지로



지곡1동 새마을회 정관



지곡2동 마을회관

떠나는 젊은 층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양식계와 함께 대표적인 마을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를 뽑아 마을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관내나 중앙에서 열리는 새마을 대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지곡2통 새마을회에서는 매년 동네 원로들을 모시고 경로잔치, 경로관광을 하는데 이는 청년회에서 주최하던 것을 새마을회에서 이어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역사가 올해 44년째가 된다. 이는 용인 관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온 경로잔치라 자부하고 있다.

역대 지도자는 이용주, 박중희, 장판수, 공택영, 한보희, 변재호, 임만직, 이근만, 고광덕, 곽성흙, 정기연 등이다.

#### 4) 노인회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에서 노인에게 대한 우대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으로 추진된 조직이 노인회다. 행복한 노년을 만들고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위한 경로효친사상에 따라 지곡동 노인회는 하동마을(1통), 상동마을(2통)으로 분리 운영되어 있다. 자격은 만 65세 이상 남녀 어르신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 수가 적음에 만 55세 이상은 준회원으로 조직되어있다.

노인회 회원들은 매월 10일, 20일에 아침조기 청소를 실시하며 청결마을 구성에 노력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그 이외의 행사로 상하동 노인회는 각기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봄에는 새마을회에서 주관하고, 가을에는 노인회에서 주관하여 타 지역 관광을 가기도 한다.



지곡1통 노인회 आयुह



지곡2통 노인회 आयुह



과거 부녀회



또한 초복에는 여름 동안 큰 더위를 잘 이겨내라고 새마을회에서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말복에는 노인회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별도의 노인회 사무실은 없으나 마을 회관 이 노인회의 모임장소이자 여가생활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회관은 최신식 구조를 갖추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쾌적한 환경에서 매일 모여 정담을 나누며 여가활동을 한다. 핵가족이 급증하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노인들의 존재감 상실 등으로 인한 우울함을 달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 5) 상록회

상록회는 1987년 창립되었으며 지곡동 자연마을에 거주하고 있거나 지곡동에서 성장한 이들이 모여 묶여진 친목 봉사단체이다. 이들은 지곡동 대소사가 있을 때에 솔선하여 일손을 돕고 있으며 특히 장례가 있을 때에 솔선하여 일손을 돕고 있다.

장례시 회방아를 닦거나 상여가 나아갈 때 상주가 망자를 위하여 노자 돈을 놓게 되는데 이 상여금은 상록회가 자비로 최소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노인회, 마을회에 보태어 마을에 미담을 남기는 조직이 되었다.

이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마을 공동 일을 의론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서는 이근만, 한규원, 최종실, 공태경 등이었으며 현재는 고광업이 맡아 봉사하고 있다.

## 5) 사은정 보존회

지곡마을 초입에 이자, 조광조, 조광보, 조광좌 4현이 한가로울 때 정자에 와 쉬고 만년에 강학하기 위하여 지어진 정자로 1516년 지었다고 <음애집>에 전한다.

네 분의 후손들 중 음애 이자 선생 후손들은 지곡동에, 회곡 조광좌 후손들은 인근 보라동에 살면서 두 선조가 형제처럼 지냈듯이 후손들 역시 형제 같은 우의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두 집안 후손들은 정자가 쇠락하면 종재를 들어 건물은 다시 중수하고 일 년에 몇 차례 모여 우의를 다지면서 시회를 열고 잔치를 열어왔다. 1990년대 들어와 정자인

근이 도시화되고 토지제도 변화에 따라 두 집안 명의로 된 종토 마을에서는 ‘윳토’로 불린다.

보존회원의 자격은 음애 이자 후손 남자, 회곡 조광좌 후손 남자이어야 하며 조직운영은 각 집안에서 10명씩 이사를 선출하여 20인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보존회 회장과 총무 양가에서 번갈아하고 차례가 된 집안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회장 총무는 한 집안에서 하지 않는다. 임기는 3년이다.

보존회는 매년 6월15일 총회를 개최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면서 선조의 유훈을 기리고 있다. 또 인근 학생들에게 글짓기 대회, 역사 골든 벨을 실시하여 선조의 유훈을 기리는 한편 이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7) 수양장학회

지곡저수지가 조성될 때 수리계가 조직되었었는데 저수지 완공 후 운영권을 수리계가 소유하고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 수리계원들은 저수지를 활용하여 이익사업을 하기로 하고 수리계원들 중 일부가 비계원과 자금을 염출하여 수익사업으로 낚시터를 조성하였다. 이때 형성된 조직이 양식계이다.

그러나 전문적지식이 없어 실패를 거듭하자 경험이 풍부한 외지인에게 낚시터를 임대하게 되었다. 이때 임대한 비용으로 계원이 각출한 원금은 계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돈과 찬조를 받아 수리계 전원과 양식계원이 수양장학회(수리계, 양식계의 이름을 차용한 명칭)를 1990년대 초 조직하였다. 이들은 매년 3월이면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생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처음엔 이자가 높아 장학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으나 현재 약1억의 이자로 소액의 장학금만 지불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자그만 시골마을에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대한 긍지가 높다. 역대 회장은 이현규, 이양구, 광창기, 이진규, 광용길 현재는 박성희 씨다.



지곡청년 자율방범대 모습 (2016년 체육대회)

## 8) 지곡 청년 자율방범대

1990년대 초 지곡동에 고광덕, 광성흙, 황종옥 등이 고매리에 있는 방법대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곡동에 뜻있는 청년들과 함께 방법대를 조직하였다. 1997년 민간인 기동순찰대 고매지대 지곡분대로 출발하여 200년대 초반, 지곡지대로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모임은 상록회와 더불어 지곡동의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정식 명칭은 <지곡청년 자율방범기동대>이다. 방법대와 청년회 회원이 중복됨으로 두 단체가 병합되었다.

현재 회원은 40여명에 이르며 지곡동에 거주하는 자로 연령분포는 4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이다.

조직당시 이곳이 교통이 불편하여 버스가 해진 직후 끊어짐에 신갈 수원의 학생들이 신갈에서 걸어와야만 함에 봉고차를 구입, 밤에는 학생들을 실어다 주었으며 밤이면조를 편성하여 야간순찰을 하고 마을 대소사에 각종 봉사활동을 하였다.

현재에는 교통발달로 정규적인 야간 차 운행은 하지 않으나 주민이나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운영하고 마을 꽃길 가꾸기, 지곡저수지 풀베기, 각종마을 일 돕기 행사를 실시하며 특히 매년 명절 전날(설날, 추석날)에 회원모두가 모여 하갈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레스피아’에서 친목과 건강을 다지기 위하여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회식은 언

제나 지곡동에서 한다. 비용은 마을 보조금 일부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역대회장은 초대 고광덕을 비롯하여 김승배, 남상우,곽성흙, 박제웅, 채정오, 임만직, 김문갑, 채정록 제씨 들이며 현재 계재설이 맡고 있고 총무는 김종무이다.

## 9) 우정회

우정회는 1973년 마을청년들 열두 명이 결혼식 때 금반지를 선물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우정회> 역시 마을대소사에 앞장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발전 하여 청년회에 서 주관 하던 경로잔치를 여러 해 주관하여 왔다.

우정회는 마을 봉사단체인 기동대, 상록회 보다 먼저 조직된 단체로 조직당시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맨 먼저 달려가 장례 일을 도왔다. 당시는 장례식장이 없어 각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밤샘활동, 상여 운구와 묘소 조성까지 회원 주축으로 장례를 도왔다.

현재는 봉사기능이 기동대 상록회로 분산되기는 하였으나 마을일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사망한 이들이 늘어 12명에 불과하며 회장은 돌아가며 맡고 있어 우정회 발족 멤버인 김상기가 다시 회장직을 맡고 있다.

## 10) 지향회 (지곡향우회)

1980년대 중반 지곡리 출신으로 이곳에 거주하거나 외지에 나가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친목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회원은 주로 1930 후반 년대 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당시 회원은 22명이었으나 사망자 8명, 사정상 탈퇴한 사람이 4명 현재 10명이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있다. 회장을 번갈아가며 맡기로 하였으나 현 회장 이준구(영복여중 교장 역임하고 중간말 태생)가 열심히 하여 줄곧 회장을 맡고 있다.

## 11) 마을을 이끄는 통장

마을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국가 행정조직의 하부기관으로 통장을 들 수 있다. 통장의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구장, 광복 후 리장, 최근 구가 형성되면서 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통장이 하는 일은 과거에는 주민의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도와주고 비료공급, 공과금 납부 하는일 등을 하였으나 현재는 국가에서 하는 일을 보좌하고 마을을 대표하면서 마을숙원사업인 도로확장, 각종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지곡동의 역대 이장(통장)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지동의 이장은 한사람이 관리 하였으나 현재는 1통 2통으로 분리 관리하고 있다.

이학규, 이지설, 한상진, 이현규, 이찬직, 김학원, 이만규, 이봉규, 한영희, 이동규, 이선규, 정용선, 이경구, 한원희, 김상기, 박중희, 이진규, 이천구, 곽용길, 고광덕, 곽성흙 등이고 현재 1통은 박현희, 2통은 이변구가 봉사하고 있다.

## 12) 지곡동 개발위원회

새마을 사업을 통해 인근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1970년 조직,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개발위원회는 직급 상 이장 위의 조직으로 편제되었으나 실지로는 마을 통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조직을 말한다.

현재 마을 대동회, 산제사에 관한 일, 경로관광, 복달임이 등이 있을 때 통장, 새마을 회장, 개발위원장이 모여 결정하고 있다. 위원은 9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장은 조종실이 맡고 있다.

■ 진 속 / 이종구

## 1-6. 지곡동 마을 인물

### 1) 고려시대

#### (1) 김달상 (金達祥)

김달상(?~1368, 공민왕 17))은 고려말기의 공신으로서 본관은 전주(善州)이며, 한림학사 신함(愼緘)의 손자이자 직제학(直提學) 우류(右鏐)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고려 충목왕 3년 2월에 정치도감으로 출사하였고, 공민왕 6년(1357년) 경상도 체찰사, 이어 추밀원(樞密院) 좌부승선 등 중책을 역임하였으며, 공민왕 10년인 1361년 신축에 10만의 홍건적이 삭주(朔州), 이성(泥城)에 침입하였고, 이어 경성이 점령되자 왕이 남천할 때, 좌대언(左代言)으로 있던 선생은 공민왕 및 태후, 공주 등 비빈종실을 모시고 임진강을 건너 남행하여 수종한 공으로 신축호종(辛丑扈從) 1등 공신으로 책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福州)와 청주(淸州)로 피난하였다가 난이 진압되자 환도하여 흥왕사(興王寺)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때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김용(金鏞)이 역심을 품고 무리들과 함께 이 절에 침입하여 시위병을 죽이고 왕까



김달상의 묘

지 시해하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왕을 온전히 호종하여 신변을 보호하였으므로 이 해에 또 다시 부시피난(扶侍避難) 1등 공신에 책봉된 인물이다. 그러나 1364년 밀직부사(密直副使)로서 왕의 충애를 한 몸에 받았으므로, 이를 시기한 무리들로부터 친척을 추천하여 관작을 범람했다는 모함을 받아 옥주(沃州)로 유배되었으나 곧 사면되어 한양윤(漢陽尹)에 제수되었으며, 1365년 양광도(楊廣道) 도순문사(都巡問使)를 역임한 후 화의군(和義君)에 봉군되었다.

1366년에는 동지밀직사사(종2품)로서 첨서밀직사사 목은 이색과 함께 신돈의 횡포를 탄핵 상소한 좌사의대부 정추, 우정언 이존오를 국문하면서 왕명인 극형을 면하게 하고 관직 강등으로 끝나게 하였다. 이후 금위제조관, 지밀직사사로 승진되었으나 1368년 신돈의 만행으로 나라를 망칠 것을 우려한 서녕군 유숙선생과 여러 충신의 논의가 발각되어 신돈에 의해 유숙선생과 함께 살해당했다. 신돈의 역모가 발각되어 1371년에 처형되자 같은 해 7월 27일, 신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충신과 연루인에게 대사면이 내려



군기감 소윤 오현의 묘소(사기막골)

졌을 때 복권되었다. 김달상의 묘소는 중동마을 동쪽 등성이에 묘소가 있었으나 후손들이 1990년대 말 이천으로 이장하였다. 묘소가 있던 자리는 개발되어 아파트와 공장이 들어오면서 흔적이 없어졌다. 김달상의 묘소 남서쪽 인근에 김달상의 사위이며 한양도성 건립 책임자인 전주인 최유경(1343-1413) 묘가 있다.

## (2) 오현 (吳顯)

오현(1336~1398)은 본관이 해주, 아버지는 사운, 조부는 효충이다. 오인유의 8세 손으로 고려 말에 군기감 **소윤<sup>1)</sup>**을 지냈다. 용인에 세거해 온 해주오씨는 대부분이 오인유를 시조로 하는 해주오씨로, 1세조인 오인유는 지절과 덕망, 학식을 고루 갖춘 송나라의 대학자이다. 984년(성종 3년) 고려에 귀화하여 검교군기감사를 역임하였고, 이윤관, 이충섬 등과 함께 사직, 국자감(국립교육기관), 오묘(五廟) 등의 창건을 주창하여 이를 설치케 했다. 해주에 근거하여 살았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해주로 삼게 되었다.

1) 군기소윤은 군기시(軍器寺)의 종4품 관직으로 군기시(軍器寺)는 고려, 조선 시대에, 병기, 기치, 용장, 집물 따위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이었다.



해주오씨가 용인에 정착하게 된 것은 혼인관계로 인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오현의 조모가 용인이씨이다. 아버지 오사운(吳士雲)은 태안군수를 역임하였는데, 해주오씨의 26개 계파 중 지군사공파의 파시조이다. 오현(吳顯)은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 (3) 오축 (吳軸)

오축(1354~1424)은 본관은 해주로 오인유의 9세손이고, 소윤공 오현의 2남2녀중 장남이다. 판예빈시사<sup>2)</sup>를 역임하였다. 공조참의를 지낸 오윤(吳輪)과 동기간이다. 오축의 후손은 진천에 세거하고 있다.

### (4) 오순종 (吳舜從)

오순종은 본관이 해주로 조부는 소윤공 오현, 오현의 둘째 아들인 충무형부사를 지내고 공조참의에 추증된 오윤의 장남이다. 선천군수를 역임하였다.

오현의 둘째아들 윤(생몰미상), 윤의 둘째아들 계종(?~1501)의 묘가 수지구 상현동에 있으며, 오현의 4촌인 오희보의 묘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에 남아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해주오씨는 이미 고려 말부터 용인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오현의 후손들 중 큰 아들 오축의 후손은 진천에, 둘째 아들 오윤의 후손들은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에 이거하여 안성의 대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2) 판예빈시사는 예빈시의 판시를 말한다. 예빈시란 조선시대 외국사절에 대한 연회나 종친 또는 높은 벼슬을 거한 사람들의 식사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곳이다. 판시는 가장 높은 책임자로 정3품이다.



고려시대 오족의 묘소



선천 군수 오순종의 묘소

## 2) 조선시대

### (1) 이예견

이예견 (1436 ~1510)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불린(不磷),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고조부는 목은(牧隱) 이색(李穡). 증조부는 제학을 지낸 이종학(李種學)이며, 할아버지는 이숙묘(李叔畝)이다. 아버지는 이형증(李亨增)이고, 어머니는 조아(趙雅)의 딸이다. 부인은 선산김씨로, 김관안(金寬安)의 딸이다.

출생한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모친이 작고하여 외조모의 손에서 자랐다. 성장한 후 힘써 배워 1471년(성종 2)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관직에 오른 후 장례원 사평(司評), 예조좌랑과 소격서령(昭格署令)을 거쳐 사헌부 직강(直講), 형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475년(성종 6) 군주로 나아갔을 때에는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길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힘써 구휼하여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



대사간 이예견의 묘표

그 후 한성부 서윤(庶尹)이 되었고 사헌부 집의로 있을 때 임금이 전주(建州)의 오랑캐를 치려 하자, 그는 부당함을 주청하였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려 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으로 좌천되었다가, 삼척부사(三陟府使)에 이어 1500년(연산군 6)년에는 대사간에 올랐다. 이때 연산군의 정치가 점차 황란(荒亂)해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신(舊臣)은 벼슬에 나아가서는 직책을 다하여야 하고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듣는대로 다 말함이 옳다>고 여기고 간하다가 용궁(龍宮)으로 귀양보내졌다가 성주로 다시 유배지가 옮겨졌다.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죽고 사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중종반정 후에 귀양에서 풀려나서 적소였던 성주목사를 제수 받았다. 이 고을 백성들이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경멸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는 일체를 불문하고 후하거나 박하게 하지 않고 선치함에 사람들은 그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였다. 그러나 1510년(중종 5) 10월에 발병하여 11월에 생을 마감하니 향년 75세였다. 그는 효우(孝友)가 천성이어서 누님을 섬기기를 어머니같이 하였으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고 겸양을 지켰으며, 경사(經史)를 담론하기를 늙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후에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고 그의 부인에게도 정경부인으로 증직하는 교지가 내려졌다.

묘소는 기흥구 지곡동 산 11-17번지에 있다.

## (2) 이우(李耦)

이우는 대사간 이예건의 4남 2녀 중 장남이다.

당포만호를 지냈다.

묘는 수원시 광교동에 있고 후손이 없어 동생인 음애후손들이 시향을 모시고 있다.

## (3) 이운 李耘

이운(1469~1535)은 대사간 이예건의 둘째 아들로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야(仲野). 이숙묘(李叔畝)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형증(李亨增)이다. 아버지는 이예건(李禮堅)이며, 어머니는 김관안(金寬安)의 딸이다.



을묘증광사마시에 진사 3등으로 합격하고, 1501년(연산군 7)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07년(중종 2) 이조좌랑이 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521년 청주목사가 되었다. 한 번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관내의 한지(閑地)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넓힐 것을 국가에 건의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이어서 강릉부사, 제주목사, 호군·사과(司果)·위장(衛將), 남양부사 등을 거쳐 1532년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제주목사로 있을 때 둔전을 개척하여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공물을 경감하여 제주목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술이나 노름을 멀리하였고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고 한다.

#### (4) 이누(李耨)

이누(?~1529)는 익재 이제현의 문인으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정당문학 문효공 가정 이곡의 6대손이며,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문하시중 문정공 목은 이색의 5대손이고, 진현관 제학을 지낸 인재 이종학의 현손이다. 어머니는 선산김씨로 종사랑 김관안의 딸이며 대사간 이예건의 4남 2녀 중 3남이다. 이누의 출생년도는 가첩이 소실되어 알 수 없으나 그의 둘째형인 참의공 이운의 출생년도가 성화기축년(1469)이고 그의 동생인 음애공 이자가 경자년(1480년)에 태어났다는 기록으로 이누는 1470년에서 1479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sup>



3) 이누의 묘갈 내용중에 「其生卒年家牒失傳 然公仲兄參議公生於 成化己丑年 弟陰崖公生庚子 公之生其在庚寅己亥十年之間」이라는 기록이 있다. 『내고장 용인 금석문총람』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2000년

부인은 해주 최씨로 찰방을 지낸 최홍보의 딸이나 후사를 두지 못해, 조카 장사랑 이임을 계자로 들였다. 자는 계야(季夜)로 연산군 1년(1495)에 증광시에 진사로 합격하였다. 문풍이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누는 아우 음애 이자와 함께 어려서 학업에 전념하였다. 과거에는 인연이 닿지 않았으나 음보로 종사랑, 선무랑에 임명되었고, 의금부도사를 지내기도 했다. 급진적인 사림과는 뜻을 조금 달리했지만, 기묘사화 이후 벼슬을 단념한 채 고향에서 은거하다가 60세가 넘어 생을 마감하였다. 평소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였다고 한다. 묘소는 부친 대사간 이예건의 묘소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5) 음애 이자(陰崖 李耜)

음애 이자(1480~1533)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차야(次野), 호는 음애(陰崖)·몽옹(夢翁)·계옹(溪翁)이다. 목은 이색(李穡)의 후손으로, 대사간 이예건(李禮堅)의 4남 2녀 중 막내아들이다.

음애 이자는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나, 선영이 있는 용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기곡(器谷)의 두암산 기슭(지금의 기흥구 지곡동)에서 조광조, 조광좌, 조광보, 제현과 함께 밭 갈고, 나무하고, 고기 낚으며, 채소를 기르면서 장수강학지소로 하였고 이들이 회동하던 곳을 4은정(四隱亭)이라 하였으니 지금도 유적이 전하고 있다. 1501년(연산군 7)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이때 함께 급제한 김안국(金安國)·성세창(成世昌) 등과 교유했다. 1504년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감찰(監察)·이조좌랑 등을 역임하다가, 연산군의 난정에 불만을 품고 외직을 자청하여 의성현령이 되었다. 1506년 중종반정 이후 언관직에 발탁되어 수찬(修撰)·교리(校理)·사간 등을 지냈으며, 1517년 부제학·우부승지에 올랐다. 1519년 형조판서·우참찬 등이 되었으나, 이 해에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사림파로 지목되어 파직되었다. 이자는 조광조 등 기호사림의 급진적 정치개혁을 따르지 않고 훈구파와 사림파의 중도적 정치노선을 걸었다. 기묘사화 후 음성에 퇴거하여 ‘음애’라 자호(自號)하고, 다시 충주 달천으로 이거 하고 자신과 처지가 비슷하였던 김세필(金世弼)·이약빙(李若氷)·이연경(李延慶)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과 독서로 여생을 마쳤다.



음애 이자 묘역



음애 이자 신도비 세우는 과정 (지곡동 산11-17)

저서에 『음애일기(陰崖日記)』, 『음애집(陰崖集)』이 있으며, 노수신(盧守愼)이 행장을 썼다. 이자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산11-17번지에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172호로 지정되었는데, 묘는 원형의 쌍분이고 봉분 앞에 묘비·상석·향로석·문인석 등이 있다.

한산의 문헌서원, 충주의 팔봉서원에 배향되어있다.

### 3) 근·현대인물

#### (1) 해운 이희구 (海雲 李喜求)

해운 이희구는 한산이씨 목은 이색의 20대손으로 이장규(李璋珪)의 3녀 중 장녀로 1935년 5월 2일 출생하였으며, 천성이 정직하고 근면하고 인자하였다. 서울 재동 초등학교, 풍문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였으니 젊은 시절부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24세에 故 홍재길 박사와 결혼 하였으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보건학 연구과정을 이수하였고, 또한 일본 동경 숙덕문화전문학교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보모 자격 및 유치원 2급정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젊은이를 교육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홍익인간’의 기본윤리를 바탕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1973년 7월에 홍재길 박사와 함께 전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 동남학원(동남보건대학)을 설립하여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대 이사장에 취임, 이사장직을 수행하다가 1998년 9월 에 제9대 학장에 취임하였다.

유아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동남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학 내에 박물관을 개설하고 역사 및 교육사료를 전시하여 젊은이들에게 온고지신의 교육철학을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1997년 2월 경기대학교에서 명예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계속해서 경기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였을 때, 당시 나이가 63세였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원으로 건전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였고, 여성청소년선도, 환경운동, 여





해운 이희구 박사와 홍재길 박사 동상 (동남보건대학)

성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다.

해운 이희구는 동남학원(동남보건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1999년 4월 7일 65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묘소는 지곡동 산 11-1 중동마을에 있다.

## (2) 이학규 (李鶴珪 1900~1975)

일제강점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유지로 활동하다 광복 직후 마을이장을 역임하던 중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자 기흥면 면의원으로 활동하며 기흥면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후 마을 부농으로서 주민의 기근해결에 노력하여 마을의 어른으로 숭상 받았다. 공의 큰아들 이준구는 교직으로 영북여자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 (3) 이철규 (李喆珪 1927~)

지곡리에서 재직의 아들로 태어나 숙부(양직)에게로 양자를 간 분으로 서울대학교 대

학원 정치외교 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국회도서관 사서국장 1급 관리관으로 재직하며 각 대학에 나아가 강의를 한 전형적인 학자이다. 공은 이곳 출신으로 가장 높은 관직생활을 한 분이기도 하다.

#### (4) 곽용기 (郭鎔基 1932~1973)

지곡동에서 태어나 신갈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6년을 다니면서 줄곧 1등을 하며 반장을 역임한 수재로 전해진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실업학교라 정평이 있는 도상(현 경기상고)를 졸업하였다.

가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취업을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다가 제대 후 1960년대말 각 지역에 협동조합이 형성될 때 보라동에 조철원, 지곡리 한영희 등과 함께 기흥농업협동조합 설립에 기여하였다. 농협설립 후 초대 조철원 조합장과 함께 농협 발전에 기여하던 중 불행하게도 지병으로 41세라는 짧은 나이로 별세하였다.

#### (5) 서천봉 (생몰미상)

서천봉은 강점기에 서울에서 인력거를 끌며 생활하다 광복 전에 이곳으로 이사온 분이다. 1951년 1,4후퇴 당시 중공군이 지곡리에 침공하여 방공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벽을 쌓았다. 당시 사기막, 다래울 기와집말에 마을 주민과 피난민들이 수백 명 모여 살았는데 UN군이 진격하며 기와집말 뒷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마을을 향해 포사격을 준비하였다.

이에 위협을 알아챈 서천봉 어른은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중공군의 눈을 피해 눈 쌓인 산등성이를 포복으로 올라가 UN군에게 태극기를 보이며 “마을에는 중공군이 없고 산 밑에 중공군이 있다”며 정확한 지점을 말해 주었다.

이 같은 살신성인에 힘입어 주민들이 참화를 피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서천봉 어른은 광복 전 인력거를 끌 때 일본인을 접하여 간단한 일본말 소통이 가능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일본에 주둔했던 관계로 말이 통했다. 이 일로 인해 지곡주민들과 피난민들의 생명에 은인으로서는 현재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 후 외지로 이사하

여 현재 소식마저 끊어져 당시를 기억하는 세대에겐 아쉬움과 그리움을 주고 있다.

## (6) 한영희 (韓榮熹 1928~2007)

기흥농협의 산파역할을 했다. 1960년대 중반 농협이란 말이 생소한 시절 사랑방에 조합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기흥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조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출자를 받아 현 기흥농협협동조합을 설립한 조합결성의 주역이다.

조합설립 후 조철원 조합장을 모시고 조합을 이끌다 8년간 조합장을 역임하였다. 조합장시절 강직하고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인물이라 조합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 (7) 김성래 (金聲來 1930~2001)

우리나라 최초의 이양기를 만든 분이다. 기흥구 영덕리에서 태어나 수원농고 서울대학교를 거쳐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던 중 미국으로 유학하여 농기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귀국 후 기계 연구를 계속하여 이양기를 발명하고 농기계와 제휴 우리나라 최초의 이양기를 개발하였다. 그 외 다수의 농기계를 발명한 인물이다.

이후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으로 이직하고 동교 농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지곡동과의 인연은 지곡동 한 씨와 결혼하고 부터다. 1970년대 영덕리가 개발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하동마을을 구성말에 농지를 마련하고 농장을 운영하였다. 학교 퇴직 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sup>4)</sup>

## (8) 이영구 (李瑩求 1945~?)

이영구는 지곡동 한산이씨 음애공 15대 손으로 태어났다. 공은 군 제대 후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일에 솔선하여 마을의 일꾼으로 모범을 보인 인물이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당시 교량건설, 도로확장 등의 마을숙원사업을 벌였다. 이 당시에는 관련

---

4) 기흥읍지, 용인문화원 2000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여야 되는 상황이었다. 봉사심이 투철한 그는 군 공병대에서 익힌 기술로 마을 일을 진두지휘하여 숙원사업을 성공리에 해결하였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 “영구가 아니면 징검다리를 건너야 될 거야” 하며 지금도 칭송하고 있다.

### (9) 김대균 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58호 기능 보유자

줄타기는 줄광대가 양쪽 기둥에 줄을 연결해서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의 줄 위에 서서 앞뒤, 위아래, 손과 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재주를 보여주고, 어릿광대와 재담을 주고 받고 소리를 하면서 노는 전문예인의 놀이 형태이다. 줄타기는 2011년 11월 28일 유



김대균 줄타기

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김대균이 보유자로 전승하고 있다. 현 줄타기 보유자인 김대균의 은 약 42가지 기예를 전승하고 있다. 그를 중심으로 1991년에 줄타기 보존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19세기 말~20세기의 줄타기 명인을 보면 고인이 된 김봉업, 이정업 이후로 광대줄꾼 이동안(1906~1995), 김영철(1920~1988), 조송자(1931~2000)가 있으며 현재는 김영철의 제자인 김대균이 맥을 잇고 있다. 보유자 김대균은 경기도 안성에서 활동하다가 과거 뛰어난 줄꾼 김관보의 출생지이며, 스승 김영철의 활동 근거지인 과천으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



1967년에 태어난 김대균은 아버지가 근무하던 한국민속촌에 놀러가 줄타기를 구경하다가, 아홉 살에 처음 줄에 올라 스승이었던 故 김영철 선생에게 줄타기를 배우며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줄을 타며 열심히 노력해, 열세 살이던 1980년 줄타기 전수자로 선정된 후 1987년 줄타기 전수조교가 됐다. 1982년부터는 한국민속촌에서 전속공연 무대에 올랐다. 공연을 하면서도 소리와 재담, 춤, 판소리까지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스승 故 김영철 선생의 뒤를 이어 중요무형문화재 제 58호 줄타기 인간문화재 제2호로 지정돼 지금까지도 줄타기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좁은 외출위에서 걷고 뛰고 비상하고 재주를 부리며 35년여 시간을 줄과 함께 살아온 김대균, 정신적 태산이었던 스승을 잃고 젊은 시절 방향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1년간 줄을 떠나야 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 부었다. 자신을 찾는 관객이 있다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공연을 하고 있다. 35년 외출 인생 김대균은 줄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우리시대의 진정한 **줄광대이다.**<sup>5)</sup>

## (10) 이철규 (李喆珪 1926~)

지곡동에서 태어나 광복후 권투에 입문하여 권투선수로 활동하던 중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에 피난중에 각종권투 시합에 출전하여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시름을 달래 주었다 한다.

그는 전쟁 후 선수생활의 피로가 누적되어 정신이 흐려졌다 하며, 고향에 산제사가 되면 보름 전부터 찬물로 목욕한 후 각종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산제에 참여 하였다. 공의 딸 창숙은 인천세무서장, 국세청 부이사관으로 퇴직하고 현재 인천에서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 김정희

5) EBS직업의 세계, 2012년 5월5일 고비프로덕션.

## 1-7. 지곡동 자연과 식생

다래울 봄 이야기 - 나무와 풀꽃

다래울 여름 이야기 - 버섯

다래울 가을 이야기 - 곤충

다래울 겨울 이야기 - 새

필자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다래울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 작은 개인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아담한 마을과 이 마을을 둘러싼 산이 청겨운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강아지랑 산책하듯 산을 둘러봅니다. 봄이면 마을에 살구꽃과 매화, 산수유가 소담하게 피고 산에는 들꽃 잔치가 시작됩니다. 여름 장마철이 지나면 유난히 많은 버섯이 산행을 즐겁게 해줍니다. 가을에는 풀벌레 소리를 음악 삼아 유유자적 쉬면서 놀면서 걷기 딱 좋습니다. 겨울에는 작은 산새들과 눈 맞춤하며 눈길을 걷는 재미가 있지요.



## 1. 다래울 봄 이야기 - 나무와 풀꽃

마을 담장마다 살구꽃과 매화가 피기 시작하면 산에는 노란 생강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마을 가로수인 산수유와 어우러져 다래울을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이지요. 마을길이 산수유와 개나리로 온통 노란색이고 산이 생강나무로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면 필자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카메라 하나 달랑 챙겨들고 부지런히 산을 오릅니다. 산 중턱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서어나무를 보기 위해서지요. 서어나무는 꼬끼리다리 같은 우람한 나무 기둥을 자랑하는 당당하고 멋진 근육질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지요. 우람한 근육질 가지 사이로 작고 뽀족한 초록의 잎이 돌아날 때는 귀엽기까지 합니다. 이 시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이지요. 우람한 근육질 사이로 참새 혀같이 내민 초록의 잎이 참 좋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이걸 보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서어나무는 숲의 천이과정에서 가장 최상위층에 나타나는 나무입니다. 숲의 천이과정이란 숲이 변해가는 과정인데 그 마지막 단계에 까치박달이나 서어나무 같은 나무들이 나타나는데 다래울에 이 서어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햇빛 한줌 들어오지 않는 서어나무 숲에 들어서면 진한 원시의 아름다움을 넘어 경외심까지 들 정돕니다. 하지만 봄에 만나는 서어나무 숲은 정겨움을 넘어 귀엽기까지 합니다. 보디빌딩 선수가 양증맞은 초록색 핀을 머리에 꽂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래울은 숲의 천이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입니다.

다래울 산으로 오르는 입구에 잘 정비된 음애 이자 묘역이 있는데 산행의 시작점을 이곳으로 하면 숲의 천이과정대로 나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천이과정이 약 25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생명이 시작되어 숲의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까지 걸리는 기간이 250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음애 이자 묘역에 있는 비석과 상석 그리고 장명등에 거뭇거뭇한 곰팡이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어떤 것은 둥근 쟁반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작은 나뭇가지나 잎사귀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것도 있고 빛바랜 연둣빛인 것도 있습니다. 모두들 지의류(地衣類)라고 부르는 생태계의 개척자 같은 생물입니다. 지의류는 보통 ‘돌꽃’이라고도 부르며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곳

· 수상지의류







• 고착지의류

에 이 지의류가 피면 비로소 숲의 천이과정이 시작됩니다. 지의류는 특수 화학물질 등을 배출해서 돌 표면을 부수어 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 이끼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굵은 소나무 등걸에 이끼가 자라는 게 보입니다. 바닥에도 이끼가 보이는군요. 이끼들은 숲의 천이과정에서 지의류 다음에 나타나는 생물들입니다. 이끼들이 자라면 땅이 기름져져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식물이 망초, 쇠별꽃, 냉이류, 꽃마리 같은 한해살이풀입니다. 이 한해살이풀들이 자라다가 죽으면 거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쑥이나 토끼



· 개암나무 암수꽃

풀, 쇠뜨기 같은 여러해살이풀들이 그 기름진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풀들이 자리 잡은 곳에 서서히 작은키나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목이라고 부르는 나무들입니다. 산을 오르면서 보니 개암나무와 산초나무가 가장 많이 보이는군요. 그리고 진달래나 가막살나무 같은 나무들도 보이고요. 조금 더 걸으니 칙이나 청미래덩굴, 풍지나무 같은 덩굴성나무들도 보입니다.

작은키나무가 주를 이루는 곳을 조금 지나니 소나무와 리기다소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두 햇빛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양수입니다. 이 양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숲은 큰키나무들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 정도 되는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 같은 양수들이 숲을 이루게 되면 자신의 그늘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기 어려워집니다. 햇빛을 좋아하는데 어미 소나무의 그늘이 너무 깊어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나무는 자신의 씨앗을 멀리멀리 바람에 날립니다. 솔방울을 자세히 보면 기왓장처럼 켜켜이 쌓인 껍질 사이사이에 비행접시처럼 생긴 씨앗들이 들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신의 씨앗을 바람에 날려 멀리보내기 위한 소나무의 전략입니다.

소나무가 전성기를 이루기 시작하면 바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다른 나무의 씨앗들이 들어오는데 이 때 소나무 숲에 들어오는 식물은 적은 양의 햇빛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는 참나무 같은 음수들이 주를 이룹니다. 주로 잎이 넓은 활엽수들입니다. 이제 숲의 주인이 소나무에서 참나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소나무 숲에서 바로 참나무 숲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중간에 노간주나무가 나타나면서 차츰 참나무 숲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간주나무는 숲이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 어린 노간주나무



중간기에 나타나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숲을 계속 오르다보니 바닥이 온통 참나무 잎들이군요. 이제 본격적인 장년기의 숲인 참나무 숲이 시작되나 봅니다. 신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참나무라고 부르는데 모두 도토리라는 열매를 만들죠. 대표적인 음수인 참나무가 전성기를 이루는 숲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 겁니다. 많은 곤충과 새 그리고 동물들이 이 숲에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 서어나무숲





참나무 숲의 전성기가 시작되면 서서히 참나무보다 더 음수인 서어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나무들이 숲 바닥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역시 차면 기울게 되어 있고 정점에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쇠퇴기가 시작되는 게 자연의 이치인가 봅니다. 참나무 숲 한쪽에서 자라기 시작하던 단풍나무와 서어나무가 곧 숲의 주인이 됩니다. 특히 다래울은 서어나무숲이라고 이름 지어도 될 만큼 서어나무가 많습니다. 서어나무는 울퉁불퉁한 나무줄기와 양증맞은 잎이 잘 어울리는 아주 멋진 나무로 장수하늘소의 산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늘소 같은 대형 애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 크낙새나 까막딱따구리 같은 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지요.

서어나무가 주인인 숲을 극상림이라고 합니다. 참나무 같은 음수보다 더 음수인 극음수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곳은 거의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늘이 깊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런 성질 때문에 자신의 어린 나무들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서어나무는 튼튼한 근육질의 겉모습과는 달리 속이 잘 썩습니다. 썩을 때 나오는 ‘인’ 같은 물질이 사람들의 부주의나 번개 같은 자연현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서어나무 숲은 종종 큰 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어나무 숲에 도깨비불이 많이 보인다. 인이 번개 등에 반응해서 반짝이기 때문이다. 동네어른들은 이 서어나무숲을 도깨비가 사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숲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숲의 천이과정이라고 하며 보통 온대지방에서는 25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래울 봄 숲의 또 다른 묘미는 들꽃을 구경하는 일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갖가지 들꽃과 눈 맞추며 산에 오르는 일은 여유로움을 넘어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돕니다. 현호색은 눈길 주는 곳마다 특유의 자태를 뽐내고 있고 털팽이눈과 선팽이눈 애기팽이눈 식구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마을길을 따라서는 냉이와 꽃다지 그리고





• 산자고

광대나물이 소담스런 봄 잔치를 시작하며 무덤가는 솜방망이와 할미꽃 차지가 됩니다. 꽃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3월말에서 4월초면 필자는 어김없이 카메라를 챙겨들고 음애 이자 묘역으로 향합니다. 다래울의 대표 들꽃인 산자고를 만나기 위해서죠. 다른 지역 산자고들은 주로 바닥에 모여 피어 구도 잡기가 어려운데 다래울의 산자고는 봉분 위에 그리고 옆에 당당하게 자태를 뽐내고 씹니다. 난초 같은 청초한 잎과 순백의 꽃잎, 그리고 새색시 불터치 같은 분홍빛 무늬,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지요. 산자고가 필 때면 무덤가에 앉아 이 녀석과 눈 맞추하느라 봄날이 다 가는 줄 모릅니다.

## 2. 다래울 여름 이야기 - 버섯

지곡동의 지(芝)는 불로초(영지) 같은 버섯을 의미하며 곡(谷)은 골짜기입니다. 말 그대로 버섯이 많이 피는 골짜기가 지곡동입니다.

조선 전기의 정자인 사은정이 있는 두암산 자락은 지곡천의 하류라 하여 하동이라 부르고 지곡천의 상류에 해당하는 상동에는 기와집말, 사기막, 다래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운데에는 가운데 마을이란 뜻의 중동이 자리 잡고 있고요. 기와집말은 조선 중종 때 일어났던 기묘사화로 화를 입은 조광조를 비롯한 일군의 사람들을 말하는 기묘명현의 한 사람인 음애 이자의 사당과 그 옆의 기와로 된 가택(家宅)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래울은 음애 이자가 즐겨 달맞이 했던 곳이라 이름 붙여진 월애동(月厓洞)의 우리말인 달애울이 변해서 된 이름이고요. 필자가 자주 찾는 다래울 뒷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 음애 이자 묘역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산에는 버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습도 높은 여름이 되면 이 골짜기에는 온갖 버섯들이 앞 다투어 피어납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버섯은 동네 지명처럼 영지라고 불리는 불로초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막 올라오는 녀석부터 활짝 갓을 펼친 녀석, 그리고 새 주둥이처럼 노랑계만 보이는 녀석 등 불로초 한살이 전체모습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며 어렵지 않게 다양한 크기의 불로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라 걷기가 힘들지만 나무들 사이사이로 온갖 버섯들을 보며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비 오듯 흐르는 땀 그리고 모기의 공격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버섯길입니다. 주로 덩치가 큰 광대버섯 종류와 무당버섯종류가 많이 보입니다. 가장 몸집이 큰 암회색광대버섯아재비를 비롯해서 양파광대버섯, 흰가시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뱀껍질광대버섯 등 당당





하고 멋진 광대버섯들이 여름 다래울 산을 수놓습니다. 버섯들과 일일이 눈 맞추는 하다면 긴 여름해가 금방 넘어가기도 합니다.

광대버섯이 당당하다면 무당버섯은 화려합니다. 무당버섯, 장미무당버섯, 자주빛무당버섯, 노란무당버섯, 기와버섯 등 화려함으로 장식한 무당버섯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듯 시위합니다. 화려함으로만 따지면 무당버섯 못지않은 녀석들이 바로 그물버섯들입니다. 일본연지그물버섯, 붉은그물버섯, 흰둘레그물버섯 등 크기와 화려함으로 승부하는 그물버섯들이 지천입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그물버섯은 주홍분말그물버섯입니다. 녀석이 핀 자리가 환하게 빛날 정도입니다. 그 밖에도 등색가시비녀버섯, 붉은피꼬리버섯, 앵두낙엽버섯 등 이름도 모양도 색도 화려한 온갖 버섯들이 다래울의 여름을 수놓습니다. 여름 해가 보라산 뒤로 넘어가 주위가 어둑해질 때에야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지곡동은 이름처럼 지초 골짜기가 분명합니다.

• 주홍분말그물버섯





### 3. 다래울 가을 이야기 - 곤충

다래울도 여느 산처럼 다양한 곤충들이 삽니다. 곤충은 산 보다는 오히려 마을에 있는 텃밭이나 과실수 등에 더 많이 보입니다. 고추좀잠자리와 갯동잠자리 그리고 뽕장잠자리와 두점박이좀잠자리 등 많은 잠자리들이 마을 위를 날기 시작하면 텃밭 주변에는 사마귀가 사냥 준비를 하고 메뚜기들이 잎을 갉아먹느라 분주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어스름 저녁이면 카메라를 하나 챙겨들고 길을 나섭니다. 모기의 공격이 심하지만 이젠 적응이 돼서 괜찮습니다. 온갖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걷는 길은 그대로 음악회장이 됩니다.

달구경을 즐겼다면 음애 이자 흥내를 내며 마을길을 올라 숲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좀 일까? 이자가 자주 달구경을 했다는 곳이,..... 달을 볼 새도 없이 필자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바로 늦털매미의 탈피장면입니다. 땅속에서 3,4년 정도의 애벌레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막 날개돋이를 하는 늦털매미들이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털매미는 우리나라 매미 중 가장 늦게 날개돋이(우화)를 하는 매미입니다. 늦은 봄부터 울기 시작하는 소요산매미와 털매미, 그리고 여름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참매미, 애매미, 말매미, 유지매미 등이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 간 후에 본격적인 날개돋이를 하고 늦가을까지 숲을 자신의 음악소리로 채우는 녀석들이 바로 늦털매미입니다. 늦게 나타나고 몸에 털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다른 매미처럼 리드미컬하게 울지 않고 짹짹 짹 짹 하고 금속성의 울음소리를 가진 작은 매미입니다. 달구경을 하러 올랐던 다래울에서 늦털매미의 향연을 보게 됩니다.

여름 더위가 가시고 가을다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녀석들의 음악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래울의 가을은 이 녀석들의 울음소리로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 베짚이

날이 선선해지면 다래울에 유난히 귀뚜라미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 들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주로 산에서 지내다가 날이 선선해지면 귀뚜라미들이 인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청명하게 들리는 온갖 곤충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저절로 시인이 됩니다. 특이한 운율을 가진 베짚이란 녀석도 음악회에 참석합니다. 쓰윽 척, 쓰윽 척 하고 베 짜는 소리로 우는 베짚이와 철썩철썩 파도소리처럼 들리는 철썩기, 그리고 영롱한 구슬 같은 방울벌레 소리와 숲의 음악대장 긴꼬리의 울음소리가 다래울의 가을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다래울은 달구경도 좋지만 곤충들의 음악회도 일품입니다. 여름밤부터 시작되는 음악회는 초가을에 절정을 이루다가 서서히 줄어들며 겨울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 줍니다.

참,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이 마을의 매력, 바로 매화 마중입니다. 옛 선비들이 더디 오는 봄을 맞이하러 탐매(探梅)를 했듯,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필자는 기와집말 위쪽 산으로 가을 탐매를 떠납니다. 아, 이제 가을이





• 물매화

구나 하고 느껴질 무렵이 바로 적기입니다. 매화를 닮은 꽃을 피우는 작은 들꽃인 물매화가 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디 오는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지곡동으로 가을 탐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다래울은 잠자리가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는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잠자리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잠자리의 한살이를 온전히 관찰할 수 있었던 습지가 사라지고 나서는 왕잠자리를 비롯해서 배치레잠자리와 작고 아름다운 실잠자리들의 개체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필자는 일전에 다래울에 있는 작은 습지를 1년 동안 관찰했었습니다. (이 기록은 용인의제21에서 2012년에 발간한 용인습지이야기의 ‘다래울습지 관찰기’에 200여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물은 생물의 보고입니다. 특히 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잠자리나 하루살이, 물방개 같은 수서 곤충에게는 꼭 있어야할 곳이지요. 그곳에서 봤던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



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다래울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죠. 습지를 메우고 축구 클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불을 켜 놓은 채 열심히 공을 차는 모습을 볼 때면 그 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생명들이 생각나 저절로 코끝이 찡해집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다래울 위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지곡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다래울의 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단순한 공생(共生)을 넘어 상생(相生)의 자리가 다래울에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 4. 다래울 겨울이야기 - 새

다래울에는 작은 새들이 참 많습니다. 박새, 딱새, 참새, 오목눈이, 곤줄박이, 붉은머리오목눈이, 숲새 등 작고 귀여운 새부터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같은 딱따구리와 파랑새, 피꼬리, 소쩍새 같은 여름철새 그리고 말뚝가리와 쇠오리, 넓적부리 같은 겨울 철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새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눈이 내리고 더 이상 먹이를 구하기 힘든 한겨울이 되면 필자는 마당에 작은 먹이 터를 만들고 새들을 위해 곡물과 견과류 그리고 쇠기름, 감 같은 먹이를 놓아둡니다. 물론 마실 물과 함께요. 그곳을 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노랑턱멧새, 쑥새를 비롯해서 직박구리, 물까치, 그리고 가끔 때까치와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가 다녀갑니다.

· 직박구리





• 딱새

이른 봄에는 이들 중 일부가 필자의 마당에 달아놓은 새집에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한번은 딱새 부부가 필자 작업실의 가스렌즈 후드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두 달여 동안 불을 사용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겨울이라 해도 날이 조금 풀리면 다래울 산을 오릅니다. 서어나무 숲을 터전으로 사는 새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갑작스런 장끼의 비상에 놀라기도 하고 먹이를 물고 날아오르는 말뚝가리의 위엄에 발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눈 맞춤을 하는 녀석은 동고비와 딱따구리입니다. 나무줄기를 빙글빙글 돌아가며 먹이를 찾는 오색딱따구리와 큰오색딱따구리 그리고 썩은 나무를 정신없이 쪼아대는 쇠딱따구리, 그들 사이를 위아래로 부지런히 오르내리며 먹이를 찾는 동고비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녀석들의 부리질에 나무가 패이며 나무가루가 떨어지는 장면은 장관을 넘어 경외심까지 들 정돕니다. 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 쇠오리



· 큰오색 딱따구리

겨울 지곡천에는 흰뺨검둥오리와 쇠오리 그리고 넓적부리 가족이 찾아옵니다. 이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 재미가 쏠쏠합니다. 흰뺨검둥오리의 주홍빛 부리 그리고 날개 사이로 보이는 보랏빛 띠, 쇠오리의 작지만 아름다운 울음소리, 그리고 넓적부리가 넓적한 부리로 물을 휘휘 저으며 내는 소리 등 바로 곁에서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쇠백로와 대백로의 먹이 사냥 모습은 덤으로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요즘은 하천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서 이곳을 산책하는 동네사람들 때문에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편히 겨울을 지내야 봄이 왔을 때 먼 거리로 이동도 하고 건강한 알도 낳을 텐데,..... 편리한 자전거도로가 새들의 눈엔 어떻게 비칠지,.....지곡천에 편의 시설이 늘어날수록 필자의 카메라는 쉬는 날이 찾아옵니다.



· 다래울

다래울이 속해있는 지곡동은 부아산 자락이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사시사철 다양한 생명들이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입니다.

십여 년 전 이 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았던 황금 들녘과 갈대 숲 그리고 멋진 둌병들과 습지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앞으로 십 년 후에는 그 때 필자가 보며 감동을 느꼈던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손윤한

An aerial photograph of a village, likely in a rural area, showing a network of roads, buildings, and green spaces. A large teal-colored geometric shape, resembling a stylized '2' or a folded corner, is overlaid on the bottom right portion of the image. The title '2 생활과 민속' is printed in white on this teal background.

## 2 생활과 민속

- 2-1 지곡동 마을 의식주 112
- 2-2 지곡동 민속과 세시풍속 124
- 2-3 지곡동 종교와 교육 137
- 2-4 지곡동 민간신앙 148
- 2-5 지곡동 전설과 일화 154
- 2-6 지곡동 일과 놀이 165





## 2-1. 지곡동 마을 의식주

### 의생활 衣

#### 1) 겨비누

세제나 빨랫비누가 없었던 때에 모두 잿물을 내려서 사용했다. 그 후 시장에서 양잿물을 사다 쌀겨와 함께 섞으면 물이 부글거리면 맨 손으로 뭉쳐 비누를 만들어 썼다.

“술에다가 속겨를 넣고 잿물을 넣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만들더라고 부글부글 끓인 비누를 그걸 손으로 뭉쳐서 하면 손이 다 터지는거야. 그거 다 화학물질이잖아, 때는 잘 지는데 손이 마르고 난 뒤에 물에 넣으면 얼마나 아파? 아주 그냥 악~소리가 나지.”(김경화·여·89·중간말)

맨 손으로 잿물을 만졌으니 손의 피부가 다 터져 얼마나 아픈지 온 몸이 으스스 해 질 정도를 아팠던 기억에 몸서리를 쳤다.

#### 2) 바느질

기성복이 나오기 전에는 계절 별로 다양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었다. 천연섬유인 면, 마, 모피. 비단이 옷감의 전부였다. 서민들의 옷은 주로 시장에서 끊어 온



벽보



벽보

광목으로 옷을 마름질하여 만들어 입었다.

“옛날에는 옷을 다 해 입었어. 바느질 못하면 시집도 못 가. 옷이 떨어져도 기워 입지도 못해. 그리고 눈썰미가 없어서 마름질을 못하면 더욱 그랬어.”(김경희·여·89세·중간말)

숨씨가 좋으면 결혼 전에 혼수 장만을 하면서 손수 벽보를 수놓아 가져 오기도 했다.

호룡불 아래에서 가슴 설레이며 수놓던 예쁜 꿈을 기억한 그 벽보는 지금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곱게 남아 있어 차마 다른 오래된 옷 들을 버릴 때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다.

80대들은 아기를 낳으면 누비저고리도 만들어 입히고 해진 것도 꿰매 입었다.

“무명을 짜긴 짰는데 그걸로 옷을 하느니 광목 바꿨다 해야지, 미영(무명)을 하루 보통 16자 정도는 짰고, 실을 직접 뽑아서…. 애들은 대부분 까만 바지 위에다 분홍저고리 입히고, 여자애들은 까만 치마에 그렇게 해서 입혔지, 그리고 소죽을 꿴이면 옷소매 끝에 검댕이가 묻어서 금새 까매져.” (박양순·78세·여·다래울)

70대 초입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베를 짜거나 누에를 쳤던 기억은 없다지만 옷을 만들어 입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광목을 시장에서 사다 검은 색으로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어머님들은 하얀 색이나 검은 색으로 만들어 입었고, 소죽을 꿴이는 아버지의 하얀 옷이 금새 까매졌다고 기억하는 것은 손끝이 닿도록 마름질해서 뽕얇게 만들어 입힌 옷에 검댕이가 까맣게 묻혔던 것이 오롯이 기억 속에 남은 것이 아닐까 싶다.

### 3) 파마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 것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 결혼 후 쪽진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는 것도 아주 오래 되진 않았다. 90대 여성 경우 30대 초반에 비녀를 꽂은 머리에서 벗어났다.

“파마 한번 하면, 일 년에 서너 번만 지지면 오래 갔어. 머리가 길어서 걷어 올려 돌돌 말아 뽕 찢러서 기름을 바르고 했어. 그리고 미용사가 동네로 다녔어.” (박양순·78세·여·다래울)



파마하는 모습 <출처 인터넷>

## 먹거리 食

### 1) 자연 먹거리 간식

누에를 키워 고치에서 실을 뽑으려면 조그만 솥에 물과 여나무 개 남짓의 고치를 넣고 불을 지피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나무 막대기로 휘휘 저으면 실이 풀려 나오고 번데기가 하나씩 나온다. 명주실을 뽑는 어머니 옆에서 따끈하게 익어 나오는 번데기를 하나씩 얻어 먹는 맛을 지금도 기억했다.

누에가 마지막 잠을 자기 전에는 머리가 말갱게 되는데, 그걸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해서 살아 있는 누에를 꿀떡꿀떡 삼켰다는 어르신은 지금은 번데기도 못 먹는다고 했다. 먹거리가 없던 시절 그리고 단백질원이 많지 않았던 그 때만의 경험이다.

겨울이면 변변한 도시락을 싸 줄 수 없는 그 시절에는 가을에 갈무리 해 둔 생고구마가 그 자리를 메꿨다.



“국민학교(초등학교) 때 변또 대신 날고구마 두어 개 싸 주면 그게 겨울에 얼면 달아요. 서낭탱이의 나무 밑창에 묻어 났다가 학교에서 돌아 올 때면 먼저 빼 먹는 놈이 임자여. 지금도 그 서낭당이 있어 불당골(저수지 위)에도 매주굴에도 있고, 그 시절 처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짚신 신고 다니면서 오다가 찰뿌리 캐 먹고 봄이면 뽕기도 뽕아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 달착지근하니 맛있어.(이진규·80세·다래울)

그리고 진달래꽃 밑창에 문둥이가 숨어 있다 애들 잡아간다는 어른들의 말에 혼자서 무서워서 못 오고 동네 애들끼리 쭈욱 모아서 오곤 했어.”

## 2) 산나물

산골짜기와 물길을 따라 형성된 자연마을인 지곡리는 어디를 둘러봐도 산이 있다. 산나물은 70대 여성들의 젊을 적에는 봄이면 커다란 보따리에 산나물을 가득 뜬어 온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난방 연료나 취사용 연료가 기름이나 가스로 바뀌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숲이 우거지면서 나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 산에 가도 초본인 나물은 거의 볼 수 없고 나무의 어린순인 산나물만을 그나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산나물의 종류는 제일 많이 먹는 취나물로 종류도 다양해서 취, 가얏취, 미역취가 있고, 모싯대 그리고 고사리가 있었다. 요즘 여름에도 산에 가서 뜬어 올 수 있는 나물로는 하얗게 꽃이 피는 똑갈나물의 잎이 있다. 똑갈 나물은 다른 산나물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에 데친 후 기름에 달달 볶아 먹었다.

“제일 많이 먹는 산나물은 취나물이 제일 맛있지. 옛날에는 많았지 나물이, 가얏취 미역취 달래 이런 걸 한 바구니 가득 따왔어.”

고사리의 경우 가까운 모든 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나물이었지만, 그나마 다른 산보다 뽕주굴에 고사리가 많았고, 조리해서 먹는 방식은 다른 나물처럼 볶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국을 끓여 먹는 경우도 있었다.

“물고사리를 가져다 멧쌀을 쌀 뜬물처럼 갈아 넣고 국처럼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몰라. 쌀을 오지그릇에다가 방뎡이로 들들 갈아서 국 끓여 먹으면 맛있어.”(박양순·78세·여·다래울)

가을이면 산에 버섯도 많았다. 청버섯, 알버섯, 가시버섯, 싸리버섯, 가다바리버섯 등이 있었고, 버섯은 삶아서 물에 독을 우려내고 그냥 볶아 먹으면 된다. 지금은 갈퀴나 무를 하지 않아 숲이 우거지면서 다른 나물과 마찬가지로 흔하게 볼 수 없다.

### 3) 보리밥

보리쌀을 돌확 대신 속이 우푹푹두룩한 오지그릇에 물과 보리쌀을 넣고 닦아서 밥을 해야 보리쌀이 입 안에서 굴러다니지 않고 적당하게 퍼진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었다. 더운 여름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밥이 잘 되었지만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잘 퍼지지 않아 매를 먹었다.

“보리밥하기 싫어, 보리밥 지겨워 진절머리나, 오지그릇에다 매일 닦아야 돼. 털 닦으면 미끄러워서 못 먹어.” (감경희·89세·중간말)

“보리쌀이 여름에는 잘 퍼지는데 찬바람만 나면 술 안 열어보면 버글버글 끓기만 하고 밥이 안 돼, 퍼지지가 않아. 보리밥이 바람을 용케 알아 애를 먹었어.”

우물에서 길어다 먹는 물로 설거지를 하면 지금처럼 많은 물을 쓸 수 없어 깨끗이 그릇도 씻을 수 없었다. 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세미도 귀해서 무명천으로 그릇도 대강 씻으니 그릇에 까맣게 묵은 때가 많이 끼어 더러울 때는 빨래를 삶는 솥 안의 빨래 사이 사이에 사기그릇도 같이 넣고 삶으면 뽕양게 때를 벗길 수 있었다.

### 4) 김장

김장의 종류는 배추김치, 깍두기, 알타리, 동치미가 기본이고 봄에 먹을거리로 시래기의 고갱이 연한 것만 골라서 소금에 새우젓, 고춧가루 버무려서 눌러놔다 봄에 먹거나, 데쳐서 말려 놔다 다시 삶아 푹푹 썰어 간장에 들기름 넣고 지져 먹는 반찬이 있다.

김장을 담글 시기가 되면 어느 누구 집을 막론하고 개울가로 나와 짚을 깔고 배추를 씻어 김장을 했다. 마을 앞을 흐르는 작은 개울이 맑은 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 5) 명절 음식

설날의 대표 음식은 떡국과 만두 그리고 명절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다. 가래떡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80대의 젊은 시절도 있고,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을 만들어 집에 와서 굳힌 후 모든 가족이 모여 앉아 끓여 먹기 좋게 썰어 놓은 것도 설날을 준비하는 그 시절 풍경이다.

만두는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를 이용해서 미리 빻어 밖에서 얼려 놓고 설 준비를 했다. 집집마다 양의 차이는 있지만, 가을 김장 김치를 하면서 만두 속 용 김치를 따로 마련해 놓은 집들도 있다. 그것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떡국에는 계란 지단을 부쳐서 고명으로 사용 했고, 만두는 따로 찌서 하나씩 얹어서 내놓았다. 떡국에 수수부꾸미를 밀어서 넣어 먹는 집도 있었다. 국물은 집집마다 다르지만 쇠고기로 육수를 내기도 하고 간장만으로도 떡국을 끓여 먹기도 했다.

겨울이면 추석과는 다르게 농사일이 바쁘지 않았고 추운 날씨 탓에 음식이 상하지 않으니 만들어 먹는 음식도 추석에 비해 다양했다.

엿을 만들기도 하고 쌀 다식이나 초청에 버무려서 송화다식을 만들었다. 송화 가루는 봄이면 직접 산에 가서 털어 와서 미리 준비를 해 놓았다.

추석의 대표 음식은 단연코 송편이 우선이다.

송편의 속은 녹두 등 다양한 속 재료를 가지고 껍질 벗겨서 찢어서 만든 후 하나하나를 빻었다. 송편을 찢 때는 솔잎을 뿌리기도 하지만 소나무 생가지를 통째로 잘라서 가마솥에 깔고 그 위에 송편을 얹어 찌면 많은 양의 송편도 쉽게 찢 수 있었다.

## 6) 잔치음식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등 많은 음식이 필요한 경우에 계원들이 돌아가면서 국수를 한관씩 들여 넣어 주기도 하고, 감주나 술, 콩나물을 한 동이씩 만들거나 길러서 품앗이를 했고, 갑자기 초상이 나면 팔죽을 끓여 주는 등의 음식 품앗이로 손길을 도왔다.

잔치음식은 두부, 콩나물, 돼지고기, 감주, 잡채, 누르미 등이 있었다.

누르미는 녹두나 팥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팥과 쌀을 섞어서 만들었다.

“쌀 한말에 팥 닷 되 넣으면 기름 한 병 다 들어가, 솔뚜껑에다 그냥 부쳤다니까 기름은 무로 찍어서. 녹두 그거도 쌀 들어가, 녹두로 하면 노랑고 좋아, 맛있어.”(박양순·78세·다래울)





안채\_이변구씨 댁(지곡리 359-1)

## 주생활 住

### 1. 가옥의 형태

현재 남아 있는 옛 모습의 주거 형태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옛 모습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집들도 1970년, 1980년의 개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래식 한옥이 슬래브 형식의 양옥집으로 개보수 되는 경우도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지붕의 재료는 전통적인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에서 슬레이트와 함석지붕, 슬래브 지붕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슬레이트, 함석, 슬래브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난방 방식도 산에서 구한 나무를 사용하던 것에서 1980년대에 연탄보일러, 1980년대 후반에 기름보일러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봉계랑\_중간말



안채 건넌방\_이변구씨 댁



안채 마루 천정\_이변구씨 댁

집의 배치는 평면은 대체로 ‘ㄱ’자 형태거나 역‘ㄱ’자 형태를 보이며, 안채에 대응하여 ‘ㄱ’자 혹은 역‘ㄱ’자 형태의 바깥채가 첨가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안채와 바깥채가 함께 구성되어 ‘튼 ㄷ자형’의 살림집을 이룬다.

전통 살림집은 일반적으로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안채에는 안방, 마루, 건넌방이 들어서고 부엌이 있으며, 사진에서 보는 주거 형태의 바깥채에는 대문간, 외양간, 광 등이 부속되어 있는 구조이며, 사랑채는 따로 분리 되어 있다. 마루를 ‘대청마루’ 혹은 ‘말래’라고 부르며, 건넌방을 ‘걸음방’ 혹은 ‘거름방’이라고 부른다. 안채는 주부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들과 갓 혼인한 신혼부부가 기거하며, 보통 바깥채의 사랑채에서는 가장이 기거한다. 특히 사랑방에서는 바깥마당과 이어지는 뒷마루를 통해 손님맞이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집으로 남자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사랑방에서 모시며, 여자 손님일 경우에는 안채에서 맞이한다.



바깥채\_이변구씨 덕

마당은 안채와 바깥채가 둘러싸는 안마당과 외부와 만나는 바깥마당으로 구성된다. 보통 안마당에서는 혼례를 치르거나 규모가 작은 농사일을 주로 한다. 바깥마당에서는 손님을 많이 치르는 규모가 큰 잔치나 벼 타작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일을 처리한다.

살림집의 지붕 역시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처음에는 초가로 지붕을 구성했지만, 새마을 운동이 시작 되면서 함석이나 슬레이트가 보급되면서 이것으로 대체하거나, 개량기와를 올리는 집들이 늘어났다.

푸른색을 칠한 함석지붕이나, 슬레이트 지붕이 늘어났으며 지금도 푸른색 지붕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꽤 많이 남아 있다.

## 2) 전기

전기가 마을 전체에 들어오기 전에 일치감치 충전한 밧데리를 이용해서 형광등을 사용



한 집도 두 집 있었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집이나 신문물에 호기심을 가진 집들이었다.

“마을에서 하는 일은 모두 청년회가 주관을 했는데 그때 내가 청년 회장이었어. 밧데리를 충전하러 동네 경운기를 이용해서 신갈로 나가야 하는데, 아마 그 경운기도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경운기였었나? 그런데 후배들이 가지고 나가다가 밧데리를 깨뜨리는 바람에 그것도 할 수 없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분이 지금은 작고했는데, 뉴스에 육영수 여사 서거 소식을 듣고 14인치 TV가 있는 그 집에 이 지곡리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았던 말이야. 아마 그 밧데리를 안 깨뜨렸다면 형이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을 놔 주었을거여.”(이진규·80세·다래울)

그 이후 1974년쯤에 전기가 들어 왔다. 전깃세가 호롱등잔에 들어가는 석유 가격에 비해 비쌌기 때문에 반기지 않은 집도 있었지만 전기가 들어오면서 사는 형편들도 훨씬 좋아져서 그 염려를 무색하게 했다.

땃밭\_다래울







가마솥\_다래울 이진규씨 덕

### 3) 땔나무

땔나무는 산에 가서 낙엽을 긁어 오는 경우가 급하면 낮으로 생나무 잘라 와서 땔감으로 사용했다. 그 구술 끝에 나온 이야기가 있다.

“나 어릴 적에 설날이면 군청의 산림 감시원하고 경찰서 순경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그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낙엽을 긁으면 산사태가 난다고 해서 걸리고, 생나무 잘라 와도 걸리고, 그러니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명단을 적어 가면, 그때 당시에 용인경찰서에 이 동네 출신 고참 경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장이나 누가 대표가 되어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여. 돈 걸어서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벌금이 나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조서 꾸미러 가는 일 자체가 공포였으니... 지금이야 경찰서에 가면 친절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이진규·80세·다래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그렇게 묵인되었던 시대였다.

이을영



장독대\_다래울 이진규씨 덕

■ 도움주신 분들

이진규\_남·80세·다래울

박양순\_여·78세·다래울

김경희\_여·89세·중간말

주택사진\_이변구씨(지곡리 359-1)



## 2-2. 지곡동 민속과 세시풍속

### 1. 지곡마을 세시풍속

#### 1) 설날과 정월의 음식과 세시

설날은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다. 각 집에서는 섣달 그믐날(음력 12월 30일 경) 밤 가족들이 모여 차례 상에 놓을 음식을 만들면서 정담을 나눈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돈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 상을 준비한다. 지곡동에서는 만두를 만들어 떡국에 같이 넣어서 올린다. 만두는 떡국위에다 살짝 얹기도 하고, 아예 아래에 만두를 담고 그 위에 떡국을 담기도 한다. 차례상적으로는 박양순씨 집에서는 소고기, 닭고기, 문어를 따로 올렸으나 지금은 3단을 하나로 쌓아서 올린다고 한다.

차례를 지낸 후에는 예전 집안 어른들과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정월에는 토정비결을 보러 가기도 하고 구술자는 남편이 책으로 집에서 가족들 운수를 보았다고 하며, 그해 운수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제웅(짚



인형)을 만들어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면 액운이 날아가거나, 동전을 안에 넣어 버리는데 동전을 주워가는 사람이 액운을 가져간다고 생각했다. 구술자는 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

## 2) 정월대보름 음식과 세시

정월대보름은 음력 새해의 첫 보름날이다. 이 날은 마을의 명절이라 불릴 만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여 건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들이 주로 행해졌다. 지곡동의 정월대보름 음식과 풍속으로는 오곡밥, 5가지 묵나물, 부럼 깨기, 귀밝이술 마시기, 그리고 복쌈, 밥 흠쳐내기, 아홉 번 행동하기 등이 있었다.

오곡밥과 묵은 나물은 14일에 해서 먹었는데, 나물은 고사리, 취나물, 시래기, 무나물, 호박고지기 등을 하는데 옛날엔 전깃불이 없으니까 ‘죽을 때 달 밝으면 좋다’는 의미로 호박고지기 나물은 꼭 해서 먹었다고 한다. 15일에는 하얀 쌀밥을 해서 김에 싸서 복쌈을 해먹었다.

“옛날에는 김이 얼마나 귀해. 명절날이나 먹었지. 솔까지(솔잎)나 북어 쫄면이(꼬리)로 기름 발라서 구워 먹었지. 지금 사먹는 것보다 들기름에다 구워서 먹어봐” -지곡1리 (중간말) 김경희 씨

또 아이들은 바가지(바가지)를 들고 동네를 다니며 집집마다 밥을 얻어먹거나 흠치러 다니는데, 이때 집주인은 아이들이 쉽게 흠쳐 먹도록 부엌에 밥과 나물을 내놓기도 하고, 구술자는 일부러 다른 쪽으로 주위를 끌어서 그 사이 다른 사람이 흠쳐 내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흠쳐온 밥을 비벼먹으면서 밤늦도록 놀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 외에도 열나흘 날엔 아홉 가지 나물에 아홉 번 밥 먹고 나무 아홉 짐을 해야 한다고 한다. 오곡밥은 많이 했다. 가난한 집과 나누어 먹기 위해. 하지만 ‘밥 흠쳐 먹기’도 한옥이 양옥으로 바뀌고 현관문이 생기면서는 그러한 풍속도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풍속으로는 달맞이(망우리).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돌싸움. 옷놀이(척사대회), 지신 밟기 등이 있었다.

달맞이(망우리)는 보름날 낮에 산 잔등이에 여럿이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서 산더미같이 쌓는다. 해마다 가서 잘라서 하기 때문에 공간도 넓단다. 나무를 쌓은 후 수숫대, 싸리나무, 서석대(조대)를 칩으로 묶는데 20살은 20번을 나이대로 묶어서 불을 붙여 “망우리여~ 망우리여~(만월이여)” 하면서 하늘 위로 태워서 액운을 없앴다. 이때 절도 같이 하면서 망우리를 외쳤고 불뚝이 튀어서 옷도 많이 태워서 혼나기도 했었다. 어려서 몸이 약한 구슬자는 어머니께서 업고 산위로 올라가서 어머니 등에 업힌 채로 망우리를 하셨다고 한다. 산위에다 달집을 만든 이유는 산위에는 나무가 없어서 불이 날 염려도 없고, 또 달을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곡2리의 망우리장소는 가마골 가마 장탱이(산봉우리)에서, 기와집말은 뒷릉산(보라산)에서, 지곡1리는 중간말 뒷산(보라산)에서 망우리를 했었다. 망우리 하는 날짜는 그 해 떠오르는 달을 보고서 판단하는데 달이 작으면 16일에 올라가기도 했었다.

돌싸움은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망우리를 마치고 가마 장탱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뒷릉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중간쯤에서 돌싸움을 했었다. 짚으로 만든 짚 방망이를 던지거나 돌을 던지면서 싸웠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날 때는 “야 그만 가자”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쥐불놀이는 음력 첫 쥐날(上子日)이나 대보름 전날 강통에다가 구멍 뚫어서 광술(관술)따다가 넣고 돌리다가 던지는데, 날아오는 강통을 피하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고 옷도 태워 먹기도 해서 구슬자는 어머니에게 혼나기도 했었는데, 쥐불놀이는 14일 하루만 했었다고 한다.

지곡2리의 옷놀이는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벌어진다. 지곡1리 역시 1리 노인정 앞에서 벌어진다. 예전에는 1리와 2리가 같이 하다가 지금은 각 마을에서 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쯤에는 삼성전자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삼성이 남자. 여자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어 TV 등 100여 만 원 정도의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동네에서는 돼지도 잡고, IMF가 터지면서는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원래 하고 있던 방식으로 4~5백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다. 참여하는 기준은 원주민과 경노회에 가입된 사람들로 한집에 하나씩 선물이 다 돌아가도록 한다. 상품으로는 작년에는 오곡밥세트. 그 전에는

웃놀이 참가상을  
바가지로 받았어요.



웃놀이시상식-상(床)을 상(賞)으로



웃놀이 시상식-1등 (2017년)



웃놀이 (2017년)

전기후라이팬 등을 상품으로 주었다. 하지만 지곡1리는 3년 전 구제역 여파로 중단되었고, 지곡2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

### 3) 2~3월의 세시

2월 초하루에는 나이 떡을 해서 먹었다. 나이 떡 해먹기는 원래 한 해의 농사일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노비나 머슴이 배불리 먹어 힘을 내라는 위로의 의미로 행해졌다. 그러나 노비나 머슴이 없어진 이후에는 가족들의 무병장수와 소원성취, 만사형통 등을 빌고 지곡동에서도 쌀로 송편을 빚어 나이 수만큼 해서 먹었다고 한다.

3월은 삼월 삼짇날과 한식도 주로 3월에 들어온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지곡동에서는 생업으로 고구마를 많이 심었는데 봄이면 고구마 싹을 잘라서 수원 시내로 가지고 가서 팔아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그래서 당시 기흥읍에서는 현금이 제일 많은 동네였다고 한다. 이진규씨 댁에서는 지금도 한식 1주일 전 즈음에 고구마 씨를 넣고 4월말부터 잘라서 팔고 있다. 싹을 자를 때 가운데 부분은 자르기 어려워





새다리 (사다리)

서 새다리(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자른다 한다.

한식날에는 산제(山祭)를 지냈는데, 음식은 기제사(忌祭祀)와 같지만 떡은 송편을 하고 메(밥)도 쓴다. 한산이씨 집안에서도 제사와 한식에는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지만 설날과 추석에는 차례로 간단하게 지낸다고 한다.

지곡2리 이정순씨에 의하면 옛날에는 4월 말쯤 이면 여럿이서 나물을 뜯으러 산 속 깊은 곳까지 다녀왔다고 하신다. 하지만 지금은 멧돼지, 올무 때문에 무서워서 못가고 대부분 밭둑 등에 심어놓고 뜯어서 먹는다고 하신다.

#### 4) 4월의 세시

4월은 입하(立夏), 소만(小滿)이 드는 달이면서 보리나 (망종이 지나야 보리 뻗) 밀을 베어 내고 모내기를 하는 시기이지만 지곡동에는 '지곡 저수지'가 생겨서 밭을 논으로 만들기 전에는 밭이 대부분이었다. 밭에 보리와 밀을 베고 고구마, 콩, 팥, 수수, 옥수수, 조, 깨 등을 심었고 특히 '누에치기'도 많이 해서 밭의 가장자리에 뽕나무도 많이 심었다. 일 년에 두 번, 봄과 여름(7월경)에 전매청에서 누에 종자(누에알)을 주고 모두 수매를 해갔다. 그런데 가끔씩은 몰래 산으로 들어가서 솔 걸어놓고 실을 뽑고 번데기도 먹고 했다고 한다.

봄에는 어버이날 즈음해서 나들이를 간다. 1970년대 말에 ‘경노회(敬老會)’를 만들어서 2017년 현재 44회를 맞이했다. 용인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노인 공경잔치라고 한다. 이 날은 외지에 사시는 노인 분들도 전부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다. 경노회 기금은 처음엔 쌀 10가마 목표로. 동네사람들이 걷어서 그 이자로 사용했었다. 해마다 봄에 날을 잡아서 회관 마당에다가 천막치고 그 해 환갑 넘은 사람을 따로 상을 놓아서 대접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잘 먹는 세상이 아니니까 닭을 하면 반 마리씩 상에 놓으면 노인 분들이 손자들 생각나서 못 잡수고 싸가셨다고 한다. 잔치 때는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술 한 잔씩 얻어먹고 돈도 얼마씩 내고 가면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시작을 하고 얼마 지나니까 관광 봄이 붙어서 관광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동네에서 밥, 국, 반찬 등을 다 준비해서 갔는데. 조금 잘 한다면 도시락을 맞춰가기도 하고, 국을 끓여 가지고 갈 때는 젓소 젓 짜서 닭은 우유 통에다 넣어서 갔는데 안에다 국을 넣고 고무망치로 뚜껑을 치면 속 들어가는데 절대로 국물이 새는 법이 없다고 한다. 뽕 때는 톱 치면 뚜껑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 준비해간 음식은 주로 관광지 잔디밭에서 드셨다.



국 담아갔던 우유 통



부녀회 나들이

## 5) 5월의 세시

단오에는 창포에 머리를 감거나 수리취떡은 해먹지 않았으나 쑥떡이나 쑥 인절미를 해 먹기도 했었다. 옛날 지곡동 행성(行喪, 喪興)둑 (지곡2리 마을회관)이 있던 냇가에 미루나무가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위에다 동아줄을 틀어가지고 가서 굵은 나무에 동아줄을 묶어서 그네를 탔었다. 사람들이 성냥골을 만들려고 많이 베어가서 지금은 없다.

“그네 맨드는게 절골(보라산) 올라가는데 밤나무 많은데 거기다 메달았어요. 승구아버지가 잘 뻗어요. 나이든 사람은 못하고 동네 어른들이 동아바(동아줄)를 틀어주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메달아 줘요. 밑창에 깔리는 게 이름이 뭐게? 이렇게 발 딛고 올라가는 것, 아주 재미난 이름이여. ‘미쌍개’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송판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2개 놓고 엮어서 만들었어. 근데 그 말이 맞아. 옛날엔 휴지가 없어 가지고 지푸라기로 닦았으니까 미쌍개가 맞는 거야” -농악 구술자

## 6) 여름의 세시

지곡마을은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지곡천이 있어서 지곡 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지곡천은 물도 깨끗해서 여름이면 목욕도하고 물고기도 많아서 수시로 천렵을 했다.

“지곡천이 옛날에 깨끗할 때 애들이 미역(목욕)도 감고 물고기, 가재 뭐 그런 것 잡아 먹고 그랬는데 정화조를 냇갈(냇가)로 빼가지고 더러워져서 못 했지. 근데 지금은 정화조 묻어 가지고 도로 깨끗해 진거여~” -중간말 김경희 씨

“옛날에는 자숙들 오면 냇갈에서 놀고 빨래 그런 것도 죄다 냇갈에서 했지. 30년 전만 해



90년대 초 지곡천 모습





복달임 (지곡1리 중간말 노인정)

도 냇가에다 원두막 지어놓고 토·일요일 서울서 사람들 놀러왔다가 올라갈 적에 오이, 고구마, 가지 이런 것 팔면 토. 일요일 날 10만원씩은 벌고, 시래기만 팔아도 그 정도 벌고 그랬어요.” -중간말 정순심 씨

지금은 여름이면 더위에 지친 마을 어르신들에게 부녀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 보신탕, 떡 등 음식을 대접하며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 7) 8월과 추석의 음식과 세시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명절이다. 8월 보름이 되기 전에 조상의 산소를 보수하고 벌초를 하며, 또한 햅쌀로 송편을 만드는데 속에 팔이나 콩, 깨 등을 넣지만 지곡동에는 밤나무가 많아서 밤도 많이 넣었다. 밤은 생으로 까서 통째로 넣고 찌면 잘 익어서 송편 만들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한다. 놀이는 거북놀이, 윷놀이(척사대회), 노래자랑, 연극공연 등을 했었다.

지곡동에서는 추석에만 거북놀이를 했었다. 동네 젊은 사람이 모여서 거북이를 만드



거북놀이-인터넷 참조

는데, 무섭게 보이라고 엄나무 2개로 머리를 만들고 수수깥 껍데기를 벗겨다 엮어서 몸통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안에는 3~4명이 들어가고 거북이를 끌고 안내하는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송편을 얻어먹었는데 60대 구술자에 의하면 이때만큼은 어른들에게도 큰소리로 “맛있는 것 내놔라” 했었던단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고, 수수 심는 사람도 줄어들고 하면서 거북놀이는 없어지고 대신 전기가 들어오면서 빛을 발하는 연극이나 노래자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월에는 윷놀이를, 추석에는 노래자랑을 했는데 1960년대는 동네의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대본과 무대의상은 물론 수레를 여러 대 이어서 무대를 만들어서 ‘리어왕’, ‘고주몽’ 같은 연극공연을 했었다. 이 공연은 8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서 했었다고 한다. 농악단이 있어서 지신밟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농악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

## 8) 9~10월의 세시

9월은 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달로 늦가을 무렵이다. 절기로는 한로(寒露)와 상강(霜降)이 드는데 이때 지곡동은 이 시기에 가을보리를 심기 시작을 한다.

10월은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달로,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이 든다. 또 10월은 상달(上月)이라 하여 가장 으뜸이 되는 달로 곡식을 수확하여 조상신과 집안의 여러 신에게 상달고사(告祀)를 지낸다. 지곡동에서는 동제(洞祭)인 산신제(장승제)를 지내고, 집안의 터주신 등 집안의 가신(家神)에게 고사를 지내거나 같이 해준다. 집집마다 김장도 담근다.

### 1) 산신제(장승제)

지곡동에서는 마을에 있는 산의 산신과 마을의 장승에게 매년 음력 10월 초 하루날 고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10월에 날을 잡아서 했었는데, 이런 저런 일들이 생겨서 지금은 10월 초하루로 날을 정해서 지낸다. 산신제에 여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지곡동2리 마지막 부녀회장님을 지내신 이정순씨(71세)는 예전에 4년 정도 산신제 준비를 해 주셨는



1.부아산 산신제  
2.산신제 소지하는 모습  
3.부아산 산신당  
4.중간말 주장승

데, 먼저 전 날 누룩, 쌀, 엿기름을 해서 회관에서 술밥을 만들어준다. 술밥을 만드는 동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회관 앞에다 짚을 깔고 그릇에 물을 떠서 놓는다. 특히나 여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술밥을 만들어 주면 깨끗한 물(올해부터는 생수로)과 함께 가지고 올라가서 이장님께서 술을 담그신다. 짐을 가지고 올라 갈 때 예전에는 지게로 운반을 했지만, 지금은 트랙터로 운반을 한다. 이튿 날에는 남자들이 봐온 장으로 새우젓 등 젓국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 두부, 무생채 등 음식을 준비하는데, 소고기는 괜찮지만 돼지고기, 닭고기, 비린생선 등은 일절 금지한다. 그믐날 전에 떡쌀을 담가 놓아 남자들이 빵아오면 팔을 삶아서 팔떡을 한다. 이것을 ‘회관 안시루’라고 한다. 그런 다음 초하룻날에 소머리가 오면 단감, 대추, 밤, 실, 북어 한축, 미역, 다시마, 소머리 삶은 물 10통 정도 등을 가지고 남자들이 산신당에서 소머리를 삶는 등 제사 준비를 한다. 소머리가 익을 동안 아래 회관에서는 고사에 쓸 백설기를 찌고, 떡이 익으면 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간 후 미리 불려서 가지고 간 쌀로 밥을 한다. 밥은 술 쟀 놓고, 담가놓은 술로 고사를 지낸다. 초하룻날은 동네사람들이 다 같이 일찍 준비를 해서 저녁 11시30분경에 지냈다고 한다. 11시부터 1시가 자시라 이틀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 시간 아래 회관에서는 또 한 번의 백설기를 찐다. 이유는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상동 장승, 주장승, 하동 장승에게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이다. 백설기는 3조각으로 나눠서 각각 하나씩, 실, 감, 북어, 돈을 놓고 장승제를 지내는데, 거기에 놓은 돈을 주워오거나 떡도 가져다 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는데 떡을 안 가져가는데 돈은 금새 주워가서 웬만해서는 줍기 힘들다고 한다.

## 2) 터주가리

집의 터를 지켜주는 터주신(神)이 좌정하는 터주가리 안에 향아리가 있고 향아리에는 옛날엔 버를 넣었는데 지금은 쌀을 넣는다. 쌀은 장마시기 전에 꺼내어 밥해 먹고 가을에 햅쌀을 찧어 넣는다. 지곡2리 박양순씨 댁에는 지금도 터주가리가 뒤편에 있다. 10월 상달에 떡(고사떡)을 해서 마루에 상 놓고 그 위에 시루 놓고 정화수 시루 안에 놓고 무사 안일을 빌고 점시에 떡을 담아 먼저 터주 앞에 놓고 이 때도 정화수 또 놓는다. 옛날엔 터주시루를 따로 했다. 그리고 떡을 조금씩 떼어 사방에 던진다. 떠도는 굶은 귀신



터주가리 (박양순씨 댁)



먹으라고. 여러 점시에 답아서 안방 광방 장독대 수도 대문 사랑방 다 뵈다가 조금씩 떼어 놓고 갓다 먹는다. 옛날엔 고사떡이라기 보다는 갈(가을)떡이라 했다.

지곡1리(중간말) 김경희씨 댁에는 지금은 종교 때문에 없애 버렸지만 예전에는 대청마루에 항아리에 쌀을 넣고 창호지로 덮은 ‘대감 항아리’가 있었고, 뒷장독 밑창에는 벼를 넣은 ‘터주가리’, 성주굿을 하고나서 성주대에 한지로 옷을 만들어 입힌 후 잡귀를 막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들어오는 대문위에 걸어 두었다고 한다. 터주가리 벼는 박양순씨 댁처럼 칠석날 꺼내서 밥 해먹고 가을에 햇베(벼)를 다시 넣었다고 한다

지곡2리(사기막골)의 한양수씨 댁 역시 예전에는 터주가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대신에 현관문 들어가는 바로 위에 엄나무. 코뚜레. 제기(祭器). 복조리. 복주머니를 하나로 묶어서 메달아 놓았다. 복조리 안에 들어있는 복주머니는 언젠가 할미성대동굿 하는 곳에 갔다가 무녀들이 던져주는 주머니를 재빨리 하나 주워서 가져와서 같이 메달았다고 하신다. 그 복주머니는 복을 가져오고 나쁜 일을 없애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풍 곽씨 집안 큰며느리가 손주들을 4명이나 낳고 집안을 지키고 아주 잘 커가고 있어서 항상 마음이 좋다고 하신다.



벽사<sup>1)</sup>의 의미로 현관 바로 위에 지곡2리 한양수씨 댁

1)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것. 또는 재앙을 불제(祓除)하는 일.

## 11) 겨울의 세시

11월은 한겨울에 접어든 시기로 대설(大雪)과 동지(冬至)의 절기가 든다. 농사일이 없고 주로 부아산 등에서 뿔 나무를 준비한다. 동지가 음력 초순에 들면 애동지(애기동지), 보름 이후에 들면 노동지라고 한다. 지곡동에서는 팔죽 안에 찹쌀로 만든 옹심이만 넣는 것이 아니라 쌀도 같이 넣어서 죽을 끓인다. 팔죽을 쑤면 잡귀 들어오지 말라고 그릇에 담아서 부엌, 장광, 광, 대문 등에 놓기도 하고 집안 곳곳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팔죽을 뿌리기도 했었다. 지곡2리에 사는 한양수씨 댁에서는 팔죽을 쑤지 않는 애동지에는 팔죽대신 팔떡을 해서 먼저 동서남북에 조금씩 떼어서 던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부엌을 관장하는 부뚜막신인 ‘조왕신’에게 집안 무탈하게 해달라고 빌었었는데, 부뚜막이 없어진 지금은 가스렌지 위에 먼저 올려놓는다고 하신다.

12월은 늦겨울에 접어든 시기로 소한(小寒), 대한(大寒)이 드는 절기이다. 지곡동에서는 다음해 설날에 사용하기 위해 수수나 쌀로 엿을 고거나 두부, 만두를 주로 만들었다. 그리고 12월 선달그믐쯤이면 복조리 팔러 다니는데, 어른이나 애들이 “복조리여~ 복조리여~” 하면서 복조리를 집 문간에다 던져놓고 다니고 돈은 명절 쇄고 받으러 오면 복조리 값을 현금으로 줬다고 한다. 그러면 “복 받으시오~” 하면서 갔다고 한다. 60년대생 지곡동 구술자에 의하면 한동안은 4H 청년회에서 복조리를 사와서 복 받으시라는 글귀와 함께 집집마다 복조리를 돌렸다고 한다.

이은성

## 2-3. 지곡동 종교와 교육

본 자료는 과거 1940년대부터 2017년 현재까지 지곡동의 종교와 교육 시설에 대한 기록이다. 현재의 시설은 문헌이나 기록물 등을 참고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과거의 시설은 지곡동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사실 확인과 실제 경험자의 체험적 내용을 담았다. 하여 과거의 시설물은 현재 지곡동에 위치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시설이었기에 기록의 가치를 위해 이 지면에 소개하도록 한다.

### 1. 종교

본장에서는 의료시설이 전무했던 지곡동에서 **플라시보효과<sup>1)</sup>**를 톡톡히 발휘했던 민간 신앙과 상동 사기막골의 지명에서 전해오는 천주교 박해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한다. 또한 지곡동의 발전 가능성을 예견하여 이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갈과 공세동에서 이전해 온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 한국 불교의 특징을 존

---

1) 위약(僞藥) 또는 플라시보(영어: placebo)는 심리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환자가 의학이나 치료법으로 받아들이지만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 약제를 말한다. 영어로는 플라시보(placebo)(사실 라틴어로서, '마음에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위약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현상으로 심리 현상 중 하나인 위약 효과(placebo effect)가 있다. 이를 플라시보 효과 또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그대로 읽기도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하면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약이 부족할 때 많이 쓰였던 방법이다.(위키백과)

재로 보여주는 불교에 대해 지곡동 주민의 증언과 시설관리자들의 인터뷰, 언론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 1) 민간신앙

굿- 구슬에<sup>2)</sup> 의하면 지곡동은 30여년 전만해도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무당을 불러 자주 굿을 하였다. 우환이라 함은 가족 중 일부가 아파 눕거나 우울증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가족의 걱정거리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집안에 새 물건이 들어왔을 때, 출타를 하고 돌아온 후 이유 없이 앓아누웠을 경우 발생한다. 병의원은 신갈에 하나 있었으나 용이치 못했기에 굿에 의지하였다. 백방으로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경우 굿을 하면 신기하게도 나았다. 굿은 귀신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귀신을 불러내어 원한을 달래는 것이었다. 그들의 슬픔을 구슬려 돌아가게 하는 의식으로 행했다하니 굿을 의뢰한 이나 보는 이 모두가 위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플라시보효과로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굿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적게는 쌀 몇 말에서 크게는 쌀 10가마니로 우환의 정도에 따라 무당과 협상을 하여 가격이 책정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골무당으로는 민재궁 무당, 쇠푼이(지금의 상갈 지역)의 조막손이, 대삿돌(지금의 동백)의 만신 무당, 공세리 무당이 있었다. 단골무당의 굿이 효험이 없을 때는 용하다는 타 지역의 무당을 알음알음하여 부르기도 했는데 수원과 인천지역에서 오곤 하였다. 타 지역 무당의 신들림으로 맨발에 서슬이 퍼런 작두를 타는 굿은 장관이었을 뿐 아니라 효험도 있었다. 굿을 위한 상차림은 제사상과 유사하여 떡과 과일, 전 등을 푸짐하게 준비하는데 이는 무당이 해울 때도 있고 집안에서 준비할 때도 있었다. 한번 진행 할 때마다 장구와 징 치는 이가 무당과 함께 왔으며 3~4명이 무악을 갖추어 신을 모셔서 즐겁게 하여 보내드리거나 죽은 이를 불러내어 위로하여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굿의 진행은 해질 무렵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곤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마친 후에는 굿 떡을 나눠 먹었다. 현재는 무당집들이 사라지고 없으며 굿을 하는 집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정 어르신들도 굿이 미신인걸 알아 타파된 것이 맞다 생각은 하시지만 당시에는 용케도 나았으며, 현재 종교가 귀신을 쫓아 액을 면하는 것이

---

2)지곡1리 노인회관 이용주민들의 인터뷰.



라면 과거 굿은 귀신을 불러내어 말을 시키고 위로하며 달래었다고 입을 모았다.

**푸닥거리** - 굿보다는 소규모의 간단한 주술적 의례인 푸닥거리는 무당을 부르지 않고 일반가정의 주부가 하였다. 잡귀에게 간단한 제물을 주어서 주술적으로 잡귀를 쫓아 근접하지 않도록 하거나 몸에 붙어 있는 잡귀를 떼어버리는 것이다. 손 없는 날에 밥과 나물 정도의 간단한 제물로 죽을 쑀어 바가지에 담아 땅에 놓고 잡귀를 달래었다. 이는 많은 음식으로 잘 대접하면 다시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잡귀를 멀리하려는 뜻이다. 제물과 더불어 식칼을 들고 집안을 두루 도는 것은 귀신을 위협하여 쫓으려는 것이다.

**자리견이** - 1960대~70년대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장사를 지낸 당일 저녁에 죽은 사람의 방이나 죽은 장소에서 망자가 입던 옷 한 벌을 올려놓고 의식을 행했다. 죽은 이의 유감을 달래고 죽은 다음에 남기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밖에 **조왕신**<sup>3)</sup>(부엌신), 터줏간신(**터주신**<sup>4)</sup>)에게 떡을 해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기도 했으며 우물 고사라 하여 봄, 가을에 우물에서 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하나 많은 집이 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 천주교

지곡동 상동에 위치한 「사기막골」이란 지명으로 인해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살던 피신처로 유추하여 천주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증언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사기막골의 생성에 천주교 신자가 한명이라도 개입했거나, 특별히 더 많은 신자들이 이곳에 거주하였거나 하는 기타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현재 천주교 신자가 3가구 있다. 이들은 사기막골이 아닌 하동에 살고 있었으며 대부분 신갈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1980년대 수

---

3)부엌을 관장하는 신이자 부녀자들의 신이다. 조왕각시, 부뚜막신, 삼덕할망(제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집안의 재액을 막아주고 가업이 번창하게 해 주는 일을 하며, 부엌에는 늘 불씨가 있으므로 불에 대한 부분도 맡고 있다. 음력 12월 23일에 승천하고, 설날 새벽에 지상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조왕신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주부들은 불을 때며 악담을 하면 안 되고, 부뚜막에 걸터앉거나 발을 디디면 안 되며, 부엌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한다. (위키백과)

4)집이 깔고 앉은 대지에 터주라는 지신(地神)이 있어서 그 집을 지켜주는 땅임자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터의 주인인 터주신께 땅을 파헤치고 집을 짓게 되었으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덧고사'를 지냈다. 터주신이 하는 일은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재앙을 막고 만복(萬福)이 깃들게 해 주는 일이다. "터주는 키가 오십 척이 넘고 창승 귀에 사팔뜨기 눈이며 빈대 코에 쥐 모양 입이고 조막손에 마당발로 괴이하게 생겼지만, 복이 많아서 지신대장(地神大將)이다."라는 내용에서 무기는 터주가 복을 소유한 신으로 복을 알 수 있다. 때로는 땅의 주인이기에 그 집 논밭의 재해를 막아주고 풍요로움을 안겨준다고 한다. 특히 무엇보다 터주의 기능은 집안 구성원의 재물 운수를 도맡아 주관한다는 점이다. (위키백과)

원 지동성당 주임 신부였던 독일인 **공라도**<sup>5)</sup> 신부의 선행 소식이 지곡동 신자들에게 회자되었다하니 전교는 근대의 일 인듯하다. 보라동 성당이 건립되기 전까지(2002년 이전) 지곡동 예비 신자들은 신갈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현재 **494명**<sup>6)</sup>(써니벨리APT 주거 신자 제외 시 81명) 가량이 천주교 신자이며 보라동 성당을 본당으로 하고 있다. 상동의 언덕 넘어 용인시청 가기 전에 삼가동 성당이 있지만 지곡동은 보라동 성당의 관할 구역이다.

### 3) 기독교

**성심교회**- 1970년 5월 한상근 목사가(대한예수교장로회) 기흥구 상갈리에서 첫 개척 예배를 실시한 후 2004년 8월 지곡동(기흥구 지삼로 235)로 이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2006년 5월 27일 입당예배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신갈 성심교회가 이칭이다. 현재 담임 목사는 2008년 5월 위임된 강승원목사로 20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신자들은 지곡동 써니벨리를 비롯하여 동탄, 수원, 보라동, 동백, 화성, 에버랜드, 상하동에 이른다. 예배는 일요일 오전과 수요일 오후로 구성되어있다. 지역 활동으로는 마을 주민을 위한 중북행사, 노인대학, 정월대보름 행사 등이 있다. 노인대학은 2013~2016년까지 운영하였으나 참석률이 저조하여 지금은 폐강상태이다. 중북행사로 삼계탕을 노인정과 주변 주민들께 대접하는 봉사는 10여 년을 지속하고 있다.

**보라비전교회**- 2002년 6월 구경모 목사가(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민속촌 앞에 위치한 상가교회에서 첫 예배를 실시한 후 2007년 지곡동(기흥구 사은로 236) 으로 이전하여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가 이뤄지고 있다. 양지면 주북리에 위치한 예녹의 집에 정기적 방문으로 봉사활동을 초창기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00여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주사랑교회(장애인 나눔 공동체)**- 2011년 4월 26일 이희규 목사가 신갈초등학교 뒤 주택가에 위치한 교회를 지곡동(기흥구 지삼로 118-5 지곡중앙교회)으로 이전하였다. 교

5) 1964년 한국에 첫 발을 디딘 후 반평생 나환자와 장애인, 불치병 환자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해 헌신한 콘라드 피셔(본명 Konrado Fisher, 한국명 공라도·83세) 신부. 어려움을 딛고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8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9.9.18)

6) 보라동 성가정 성당 사무실에서 확인한 신자 수. 2017.9월 현재

회 산하 장애인 나눔 공동체 안선화 대표를 중심으로 2~3명의 봉사자가 동일 장소에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기흥구 산하 장애인을 모시고와 무료 급식을 하고, 독거 장애인을 위한 반찬 배달과 후원 물품의 전달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계 영광교회, 무지개교회, 시온의 빛 교회, 큰 나무 교회 등이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 4) 불교

절로는 상동에 광덕암과 보명사, 여래사가 있고 하동에 법운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토착신앙을 수용하면서 호국적 불교인 엘리트 신앙과 토착 민간 신앙에 기반을 둔 기복적 불교인 서민신앙이 혼재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말해주듯 지곡동의 불교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지곡동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여래사는 1960~70년대 사이 생긴 곳으로 며느리에게 대를 이어준 기복적 불교의 절이다. 또한 광덕암은 1975년 생긴 곳으로 15년 전 아들이 물려받아 대를 이어가는 절이다. 최근에 생겼지만 규모가 가장 큰 법운사는 경기도 안산 무위선원이 2016년 11월 용인 보라산(기흥구 지곡동 351)으로 이전하여 대한 불교 조계종의 법운사로 개원한 **절이다**.<sup>7)</sup> 그 외 절터로는 다래울, 매작골에 있었다.

## 2. 교육

지곡동에는 지곡초등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학교가 없어 상·하동 모두 산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했기에 지리적으로 인접이 용이한 곳을 이용하였다. 본 장에서는 교육 시설에 관한 자료는 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표기하며 구술에 의한 스토리는 별도로 기록한다. 또한 교육 후원단체인 수양장학회, 교육행사를 주관하는 사은정보존회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기로 한다.

7)이날 주지 대명스님, 사천 신해사 회주 무공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이운 점안식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BTN불교TV 2016. 11. 11 참조/ \*이운(移運): 불화나 불구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하는 의식/ \*점안식(點眼式): 불교신앙의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종교의식

## 1) 지곡동 교육시설 현황(2017.9월 현재)

지곡동은 행정상으로는 한 고을이나 과거 교육에 있어서는 지곡천을 중심으로 1943년부터 상동 하동으로 분리돼 서로 다른 학군에 해당했기에 다른 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에 있어서 상동은 기흥초등학교, 하동 지역은 신갈초등학교로 산을 넘어 삼삼오오 등교를 하였다. 중·고등에 해당하는 상급학교는 수준과 능력에 맞추어 타지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였다. 현재 용인 교육 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3개원(공립 1, 사립2)과 초등학교 1개교가 지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한 과거와 현재의 교육 및 연구시설을 모두 다음의 표로 정리한다.

## 2) 구술에 의한 과거 교육시설 이용 사례(1940~1970년대)

**지곡리 노인 회관 구술자료** - 신갈 국민학교는 오전, 오후반을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등교하였으며 당시 월사금은 400원이었다. 한반에 60여 명가량 되었으며 국어, 사회생활, 산수, 음악, 미술 등을 배웠다. 물자의 부족으로 미술시간에 사용하는 도구인 크레용과 서예도구는 한반에 20여명 만 준비가 되어 도구가 없는 이들은 빌려 쓰거나 연필로 같음하였다. 시험을 볼 때는 프린트가 흐려서 시험 문제를 교사가 읽어주고 시작하였다. 6.25 직후 교사(校舍)가 불타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였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학교를 가지 않았고 등교 후 비가 많이 올 때는 지곡동 아이들을 일찍 귀가 시켰기에 지곡동 아이들이 개근상을 타는 일은 없었다.

**곽 모씨 구술자료** - 사기막골에 살았기에 기흥국민학교를 다녔다. 당시 한 반에 60여명 가량 있었고 지곡동에서는 6명이 함께 등교를 했다. 1950년 6·25전쟁이 나고는 잠시 휴교하였으나 공산당 치하에 학교를 다시 갔을 때는 빨치산 노래를 가르쳐서 학교를 안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저수지 매몰로 학교를 이전할 **당시<sup>8)</sup>**에는 가정집의 사랑방을 빌려 그곳을 돌며 공부했었다. 수원지역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 신갈에서 **수여선<sup>9)</sup>**을 타고 다녔다. 당시 기술이 좋지 못했기에 언덕을 오를 때는 걸어가는 게

8)1946년 공세리 23번지에 교사 신축. 1950년 6.25 전쟁으로 학교 건물 대파되어 사랑방 또는 공회당과 나무 그늘에서 교육 실시. 1955년 국방부 대민사업에 의해 새 건물 지음. 그 후 기흥 저수지 공사로 학교가 수몰됨에 따라 공세리 현 위치 이전. 1945년 10월 2일 개교. -기흥읍지 728페이지 참조  
9)수여선: 수원-여주 간을 잇던 협궤 철도 노선이다. 1972년 4월 1일 전 구간 폐선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 12월에 사철인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여주 지역의 쌀을 수탈하려는 목적으로 부설하였다. 광복 후 박정희 정부 때 구둔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세워진 적이 있으나, 1971년에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여주와 수원 사이의 철도 교통 수요가 급감하여 1972년 4월 1일에 전 구간 폐선되었다. -위키백과 참조



구분		형태	주소	학급 수	세부사항
어린이집	써니벨리아파트 내 어린이집	가정	기흥구 사은로 274-22 (지곡동, 써니벨리아파트)		공주왕자어린이집, 신나는어린이집, 써니벨리아어린이집, 에코비요정어린이집, 지봉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내 5곳
	사과나무어린이집	민간	기흥구 지삼로98번길 3-4		3~4세 유·아동 어린이집
	기흥복지재단 용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기흥구 지삼로 161	4	1993년 08월 20일 개원하여 지곡동에 제일 먼저 생긴 유·아동 교육시설
유치원	지곡초 병설	공립	기흥구 사은로 274-45(지곡동 703)	3	2004.12.27 병설유치원 설립인가
	예일유치원	사립	기흥구 지삼로 73-3(지곡동 483-1)	11	자연친화적 생태교육 유치원
	한아름유치원	사립	기흥구 지삼로 98번길 10 (지곡동 542,546-4)	15	
초등학교	신갈초등학교	공립	기흥구 신갈로 76(신갈동 56)	18	1909.6. 사립용인보충학교로 개교, 1949.12 신갈 국민 학교로 개칭
	기흥초등학교	공립	기흥구 공세로82번길로 5 (공세동 200-3)	18	1945.10.기흥 공립학교로 개교, 1957.12. 기흥 저수지 매몰로 현 위치 이전
	지곡초등학교	공립	기흥구 사은로 274-45(지곡동 703)	13	2004.9. 지곡초등학교로 개교. 본교 개교 전까지 지곡동 학생들은 신갈초, 기흥초로 입학하였음.
중고등학교	태성중학교	사립	처인구 백옥대로 1059-2	10	1946. 4. 29 태성초급중학교 설립인가. 용인최초의 중등 교육기관
	태성고등학교	사립	처인구 백옥대로 1059-2	27	1946년 7월 10 재단법인 태성학교 설립
	배성중학교	비인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	1956년 개교, 1971년 폐교
	유신고등학교	사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16(우만동)	44	1972.07.28 학교법인 유신학원 설립. 1973년 유신고등학교 개교
기타 교육 및 연구 시설	용인 어린이전문대	민간	기흥구 지삼로 98번길 11지번 (지곡동 564-3)	5	초등학생 전문 교육 시설로 평일 14:00~23:00운영
	신갈 승마클럽	민간	기흥구 지삼로201번길 9 (지곡동 257)	16,528㎡	1995년 3월 개설하였고, 마필 7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규모 승마장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준정부 기관	기흥구 지삼로 331		2008.12.8 개원. 소방관련용품 인증 검사, 소방관련 연구, 소방관련 종사자 교육
	금호타이어 연구소	민간	기흥구 사은로 215-21(지곡동 456-9)	34,842㎡	2013.9.1 전라도 광주에서 용인으로 이전. 연구·실험동 2개동으로 구성
	우리산업(주) 용인연구소	민간	기흥구 지삼로 89(지곡동)	3,305㎡	1989년 창립. 2008년 차량용 부품 연구개발 연구소 용인이전. 2017.3우리산업 본사 소재지이기고 한 본 건물 준공

출처: 어린이집-기흥구청 어린이집 현황, 용인어린이집 정보

유치원·학교 및 기관시설-경기도 용인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현황, 각 학교·기관 사이트의 연혁, 언론자료 참조

기흥국민학교1950년대 모습.  
(한규원님의 큰누이 한규순 초 3)



배성중학교 9회(1964.2) 졸업기념.  
(한규원님 맨 뒤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더 빨라 그 틈에 올라타고 학교 인근 수원에 다다라 속도가 늦춰지면 뛰어내렸다. 무임승차로 등하교를 했기에 부모는 별도로 차비를 챙겨주진 않았다.

**박 모씨, 한모씨 구술자료** - 신갈 초등학교를 나와 신갈 **배성 중학교**<sup>10)</sup>에 다녔다. 비인가 중학교여서 다른 학교 보다 월사금이 짝기에 형편이 어렵지만 배움에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 다녔다. 당시 월사금으로 1년에 두 번 쌀을 냈다. 봄에 보리쌀 1말, 가을에 쌀 1말을 냈던 걸로 기억한다. 여유가 되는 집 애들은 주로 수원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배성중학교 당시는 유신고등학교가 없었다.

10)배성 중학교 : 1956년 월남하여 선교 활동을 하던 이기구가 설립하였다. 신갈 지역의 정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였던 비인가 중학교였다. 1969년 당시 학생 수는 남학생 54명, 여학생 75명으로 총 129명이다. 교사는 4명이며 교실은 4개였다. 당시 재학생을 보면 남학생은 수원 등지의 중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학생이 훨씬 많았다. 1971년에 신갈중학교가 개교하고, 학교 시설을 갖추지 못해 정규 중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고 폐교되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3) 교육 후원단체 수양장학회

1984년 지곡저수지가 들어오며 수리계가 생기고 몇년 후 양식계가 조직되었다. 농수용 물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주가 된 수리계와 지곡저수지의 활용을 위해 낚시터를 조성한 양식계의 회원 30여 명이 15만원씩 걷어 그 시작을 하였다. 이후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하며 임대료로 1991년 장학회가 출범했다.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후손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발족되었으며 처음 시행하는 장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산이씨 가목 장학회 이사였던 이현규씨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수양장학회 회원은 처음 30여명으로 시작하여 80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 회원이 정리되어 현재는 50여명이다. 수혜학생은 회원의 자녀들로 현재까지 300여명에 달한다. 장학금은 고등학교 입학금 20만원, 대학교 입학금 40만원과 성적장학금 20만원이 지급되었다. 회원의 자격은 장자에게 승계되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저금리로 자금운영의 차질이 빚어지자 2010년 자율기금을 모금하며 회원의 이탈이 있었으나 장학기금 1억 원이 정기예탁으로 예금되어 있을 정도로 탄탄한 장학회로 성장해 있다.

### 4) 교육행사를 주관하는 사은정 보존회

한양조씨와 한산이씨의 후손들이 결성한 보존회로 매년 사은정에서 글짓기 대회를 실시한다. 6월 “내 고장 문화”라는 주제로 사은정 관련하여 3~5개교 참여하는데 상금 30만원과 심사비 20만원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5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6년 6월 15일 청소년 백일장 및 한시 백일장을 개최하였다.

김지혜

추가 사진자료

종교: 1.천주교-천주교 공소에서 세례 받는 장면 2.성심교회, 비전교회, 주시량교회, 무지개 교회 3.광덕암, 법륜사

교육: 한아름 유치원, 사과나무어린이집, 용인어린이집,

연구: 소방기술원, 우리 연구소, 금호 연구소, 천문대



금호타이어용인연구소



지곡초등학교

용인어린이 천문대  
옥상의 관천대



우리연구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용인어린이집



사파나무어린이집



한아름유치원





보리비전교회



주사랑교회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천주교 세례 모습



법운사



무지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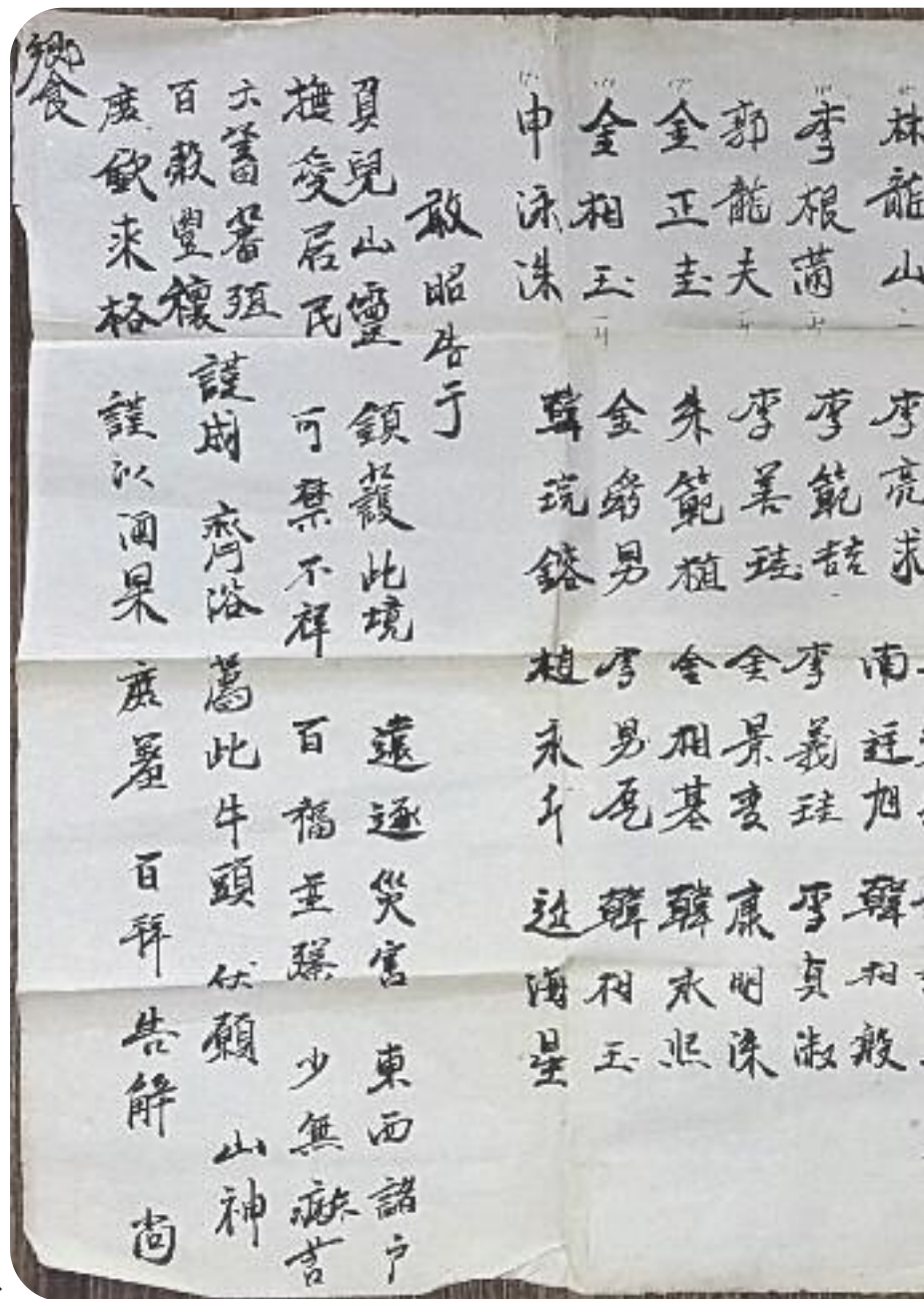


성심교회



광덕암

## 2-4. 지곡동 민간신앙



산신제문▶

### 1) 지곡동 산신제(山神祭)

산신제는 마을 수호신으로 믿는 산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고 산제사, 산신제, 선제, 산치성이라 하나 지곡동에서는 산제사 혹은 산축이라 말하고 있다.



維

歲次丁巳十月壬申朔初一日壬申里長李善珪

鄭相業	韓良燮	金範龍	金園龍	朴教集	高光德	李基天	鄭寅大	郭今禮	桂國煥	鄭東煥	李天求	李寬求	邊昌鉉
李萬珪	南千鼎	韓今浩	李德求	李廷珪	李榮求	盧石錫	朴仁鳳	張翼贊	高光福	高光得	李鶴珪	李亨珪	李玄珪
李範珪	元相殷	朴千錫	李然茂	李元植	李運珪	朴在閏	蔡洪錫	李世植	金玉山	李鳳珪	南萬照	南尚照	李晉珪
李益照	李八萬	孫昌龍	韓元照	李德鉉	李奉雨	裴長元	孔錫珠	李南珪	李東珪	孫壽男	鄭然珠	李允求	李鴻植
李容求	李哲珪	朴魯錫	韓德洙	朴成義	李容周	朴光瓚	朴好權	朴贊義	朴齊義	朴龍義	朴光俊	朴福周	裴長成
													金甲山
													裴尚根

이곳 산제의 절차를 보면 제일과 당주선정, 제사준비, 제사, 장승고사, 음복, 마을잔치로 이루어진다.

제일과 유사선정을 보면 주로 마을 대표들이 모여 음력 10월 중 좋은날을 택하여 날을 잡은 후 당주와 제관, 주비, 축관을 선정한다. 날짜와 당주가 정하여지면 마을 주민들은 비린음식을 멀리하며 자숙하며 생활한다.



### (1) 제사일과 당주선정 그리고 준비

당주는 마을 성인남자 중 부정이 없는 사람(상을 당하거나 기르는 동물이 새끼를 낳거나 여자가 월경)으로 선정하며 당주로 선정되면 본인 집 문밖에 정한수를 떠놓고 황토를 뿌려 제일에 대비한다.

주비는 각마을(사기막골, 다래울, 기와집말, 중간말, 박천말, 한천말)에서 각 1인씩 선정하며,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당일 날 당주 집에 와서 옛날엔 절구질을 하며 떡 만드는 일을 돕고 지금은 방앗간에서 해온다. 전날 산제당 지붕을 이엉을 엮어 새롭게 단장한다.

당주 집에서 준비한 제물은 과거에 지게로 산제당으로 운반 하였으나 현재는 트랙터로 운반하여 편리하게 되었다. 제일 날 주비들이 산제당에 가 깨끗이 청소하고 소머리를 삶고 제기를 닦아 제사준비를 한다.



## (2) 진설과 제사

진설은 소머리를 정중앙에 놓고 떡을 좌측에 포는 미역위에 여러마리를 올려놓고 우측에 진설한다. 그리고 좌측으로부터 대추, 사과, 배, 감, 밤(통밤)으로 진설하며 떡, 소미리만 익힌 것으로 하고 나머지 모두는 칼을 대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진설한다.

제사는 주비들이 모여 제관이 산신에게 제사 올림을 고하고 모두 절한 후에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난 후 모두 절을 한다. 절을 한 후 마을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각인의 소원을 빌며 축원을 한 후 축원자의 명단을 소지한다. 소지가 끝난 후 당주집에 모여 음복하였으나 지금은 마을 회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음복을 한다.

음복한 후 낮에 새로 단장한 **장승<sup>1)</sup>**으로 이동하여 간단히 장승제를 올리고 떡을 싸서 북어와 실을 가지고 하동, 상동 장승에 놓고 절하고, 북어는 장승에 실로 묶어 놓는다. 모든 행사가 끝이 난다. 다음날 점심에 마을 주민 남녀모두가 마을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3) 비용과 금기사항

제수비용은 마을 주민 각자가 5천원 내지 1만원씩 추렴하며 주변회사로부터 찬조를 받아 충당하며 옛날에 금기사항으로 제삿날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며 불일이 있어 나갔을 경우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올 경우 자신의 집에서 못자고 남의 집에서 잔 후 다음날 집에 들어간다.

당주와 제관들은 일주일 전부터 매일 찬물에 목욕을 해야한다.

제삿날을 정한 후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하는 불길한 일이 있을 경우 제삿날을 다시 정한다. 그래서 60년대 초하루로 정했다. 지금은 제사 시간도 밤 12시에 지내던 것을 8시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

1) 과거에 장승은 나무로 깎아 만들었으나 매년 만들기가 불편함으로 돌로 장승을 세웠으며 장승이 있는 곳은 지곡동 입구, 상하동 중간지점, 사기만 입구 세 곳에 양옆으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세워져 있다.

## 2) 마을의 신앙

민간 신앙이란 특정한 교조·교리체계·교단조직을 가지지 않고 일반민중의 생활 속에 전승되고 있는 신앙을 의미한다. 지곡동 마을에 전해오고 있는 민간 신앙으로 굿, 푸닥거리, 죽 쭉 버리기, 경 읽기 등이 있다. 굿은 신 내린 무당이 하는 것으로 재숫굿, 병굿 등이 있는데 병을 낫게 해 달라는 기원, 재수가 있게 해달라는 기원 외에 마을 잔치의 기능과 부녀자들이 밤새도록 춤을 추는 놀이문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무당은 현 하갈동(보뜰)에 사는 지씨 집 여인이 이 지역 단골무당이었고 이 단골무당은 여름과 가을에 집집마다 다니며 보리며, 벼를 거두어 갔다한다. 또 마을에 아이가 무당에게 수양으로 맺게 되면 무병장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여러 어린이들이 수양 딸리나 아들이 되기도 하였다 한다. 푸닥거리는 무당이 와서 간단하게 키를 굵으며 주문을 외워 재수가 있게 하거나 병을 없애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 행위를 말한다.

죽쭉워 버리기는 환자가 있을 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쌀과 미역으로 멸경계 죽을 쭉워 바가지에 담아 환자 머리맡에 놓고 칼로 바가지를 굵으며 “어리석은 인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미련한 인간이 이렇게 죽을 쭉워 비오니 진 것은 잡수시고 마른 것은 싸가지고 삼천리 밖으로 가 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고뿔감기 배알이 모두 거두어다가 강가에도 버리고 산에도 버리고 가십시오” 하고는 엄포를 놓는 주문을 외운다.

“이렇게 먹이고 비는데도 가지 않으면 엄나무몽둥이 북송아가지로 내리 칠 터이니 열신도 하지 말거라” 하고는 환자보고 죽바가지네 침을 세 번 뱉으라 한 후 대문밖에 나아가 죽바가지를 던지고 부엌칼을 던진다. 이때 칼끝이 밖을 향하면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 한다.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고치거나 지계를 만든 후 우환이 생기면 나무귀신이 붙었다하여 경을 읽어 병을 물리치려는 목살경을 읽는 풍습이 있었다. 그 과정은 씨래를 안방부엌에 놓고 엄나무 가지, 논두렁에 박았던 소나무 말뚝, 지미 풀을 외로 쏜 새끼로 묶어 씨래에 올려놓은 후 떡과 밥, 막걸리를 차려 놓는다.

성이 다른 세 사람이 동쪽으로 자란 북송아나무가지로 씨래를 두들기며 “나무목살 동토신 나무목살 서토신...나무목살 북토신 나무목살 서토신...”하며 주문을 외운다. 이를 목살경 읽기라 한다.

이종구



장승제



## 2-5. 지곡동 전설과 일화

### 양반은 양반이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크게 배운 것은 없으나 양반에 후손이라는 자존심 강한 전주이씨가 있었다. 그는 비록 가난하기는 하나 지체 있는 양반으로서 양반집과 혼인 하려 하다 보니 혼인이 늦어져 노총각으로 살게 되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라 이미 우리사회에 반상의 제도가 무너져가는 시기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양반으로서 체통을 지키려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이에 형과 마을사람이 오래 동안 설득하여 지체 낮은 집안 규수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한다. 혼인 후 3개월 만에 처삼촌이 조카딸이 어찌 사나 보려고 다니러 왔는데 이 서방이 처삼촌을 보고 “작은 빙부님 오셨어요” 인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체통을 지킨답시고 “자네는 어찌 왔나”하였다 한다.

이에 분개한 처삼촌이 그날로 조카를 데려감에 평생을 홀아비로 살았다하며 늙어서는 조카에 얹혀 살면서도 양반 타령을 한 고집스런 이야기가 있다.

곽용길(1939~)



## 전쟁으로 부자된 박서방

6·25 동란이 일어나자 지곡동에 피난민들이 몰려와 이곳에 머물거나 지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는 저녁 늦게 피난민 한 가족이 와 하루밤 묵어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그러면 이 “이불이라도 맡겨 주시오. 여름이라 이불뭉치가 커 불편하여서 그렇습니다.” 그것마저 거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 헛간은 비를 막을 수 있으니 그곳에 놓고 가시오”하였다 한다. 몇 달이 지나도 찾으러 오지 않자 이불을 옮기려 하니 이불 속에 돈뭉치가 나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박중희(1943~)

## 체봉굴 피묻은 싸리비와 광생원

체봉굴은 현재 사기막골을 올라가다 왼편에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체봉[초빈(草殯)]이란 죽은자의 시신을 일정기간 가매장하였다가 시신이 탈골되면 정식으로 무덤을 만들어 매장할 때 뼈를 수습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례법을 세골장(洗骨葬)이라 하며 전라도 남해안 지역의 장례문화이나 이곳에도 세장골이 있나 하는 의심이 생긴다. 여하튼 어느 여름 날 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세장골 옆을 지나가다가 도깨비 불을 만나 이를 밤새도록 따라 다니다가 겨우 집에 와서 자게 되었다. 잠에서 깬 광생원이 괴이하게 여겨 밤에 다니던 곳을 돌아 다녀보니 체봉굴 옛 무덤 앞에 싸리비 한 자루가 있음에 “이놈한테 흘렸구나”하면서 불태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곽용길(1939~)

## 명석말이를 당한 어떤 사람

1950~60년대만 하여도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어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빨래를 하거나 세수를 하였다. 여름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우물에서 보리쌀을 씻고 한 남자가 낫을 갈고 있었다. 낫을 갈던 남자가 보리쌀을 씻는 여인의 보드랍고 하얀 손을 보고 열결에 여인의 손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혼비백산,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남에 동

리 사람이 모두 알게 되었다한다.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여 그 남자를 명석에 맡아 몽둥이로 때며 죄를 다스린 일이 이마을(사기막)에 전해진다.

곽용길(1939~)

### 먹는데 김서방 가는데 김서방

옛날에 옛날 이래야 일제강점기에 사기막 마을에 본관이 다른 김학기, 김덕준이라는 두 김서방이 살았다한다. 두 김서방이 남에 집에 일을 가면 새참이 나오면 일 하다가 언제나 맨 먼저 먹으러 나가는 사람은 학기였고 일이 끝나는 시간만 되면 언제나 맨 먼저 일손을 놓고 일어서 가는 이는 덕준이었다 한다. 이러한 일이 빈번히 있자 마을 사람들은 “먹을 때는 학기요, 갈 때는 덕준이다”라는 말이 생겼다 한다.

곽용길(1939~)

### 두더지 광서방

일년 삼백육십오일을 날이 밝기만하면 들에 나아가 일하고 해가 저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을 하는 광씨 어른이 있었다 한다. 열심히 일을 하여 논도 사고 밭도 사 부자가 되어서 품을 사 일할 때 해가 저 어두운데에도 일꾼들에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일을 부탁하여 마을 사람들이 두더지 광서방이라 별명을 불렀다한다.

그의 친구들은 의례히 이름을 부르지 않고 두더지 왔나, 두더지 밥은 먹었나 일하고 싶어 어찌 밥은 먹었나 하며 놀려 대었다 한다. 그는 부자가 되어 잘 살아 마을 사람들에게 근면성실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별명이라 할 수있다.

곽용길(1939~)

### 엄마의 고통

새마을운동이 한참일 때 어린 자식 둘을 가진 가장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아닌데에도 마을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여 집안일을 부인이 도맡게 되었다 한다.

어느 여름날 부인이 아이 들을 데리고 가 아이들은 밭둑에 앉아 놀게 하고 어머니가 밭을 매고 있는데 아이가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르자 뛰어가 보니 땀비(땅속에 굴을파 집을 짓고 사는 작은 벌로 사람의 옷속, 머릿속 으로 파고들어가 쏘는 속성이 있는 벌)집을 건드려 벌을 쏘인 것이 아닌가. 아이를 추스르자 엄마도 온몸에 벌을 쏘여 셋이 모두 통통 부어 집에 와 벌쥔 자리를 찾아 된장을 바르고 누워 있었다 한다.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웬 된장 냄새여” 하였다 한다. 아이와 엄마는 고통스러웠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열심히 협조하여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었다 한다.

### 산소로 쟁송을 하다

지곡동은 기묘명현 중에 한 분인 음애 이자선생의 사패지(임금이 내려준 땅)이다.

이후 음애의 후손들이 이곳에 세거하며 살아오던 중 사패지에 해주오씨 묘(고려시대 묘)가 있어 한산이씨와 해주오씨 간에 산송이 벌어졌었다 한다.

해주오씨는 “사패지가 되기전 부터 있었던 묘소이니 이장할 수 없다”

한산이씨는 “임금으로부터 받은 땅이니 마땅히 묘소를 옮겨야 마땅하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함에 이 쟁송사건이 임금에게 까지 알려지자 임금이 고민 끝에 “두 집안 모두 조상을 숭배하는 일이니 가히 칭찬 할만하다” 하면서 “한산이씨는 오씨 묘자리가 아니더라도 묘지 쓸만한 자리가 많으니 한산이씨가 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내리어 지금도 해주오씨 묘소와 산이 사기막 앞뒤에 있다.

이진규(1938~ )

### 웃대 형제의 의리

두 분이 다 처가댁 동리에 살았고 병으로 같이 돌아가셨다. 지금부터 백 이십 삼십년 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다한다. 너무나 가난하여 부인은 서정리 친정에 가 친정살이를 하고 남편은 고향이 지곡동에서 글방을 열어 학동들을 가르치며 살아갔다 한다.

어느 날 처갓집에서 부인이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전갈을 받고 급히 가보니 이미 염병

(장질부사)으로 운명한 후였다 한다. 염병은 전염성이 강하여 누구도 환자 옆을 가지 않는 병이라 처갓집 친척 누구도 시신을 처리 하지아니 함에 본인이 스스로 염하여 인근에 매장한 후 열 한살, 일곱 살 배기를 데리고 지곡동으로 돌아왔다 한다.

그러나 남편마저 염병에 걸리어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심에 형은 할 수없이 동생을 부자인 이모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지곡동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았는데 추운겨울이 되자 동생이 궁금하여 이모 집을 찾아 갔다 한다. 이모 집에가니 사촌들은 솜바지에 따뜻한 옷을 입었는데 어린 동생은 여름옷인 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밥도 먹지 않고 그 길로 동생과 함께 지곡동으로 돌아와 형제가 함께 마을에 허드렛 일을 도우며 살았다한다.

성장하여 형은 큰 부를 이루고 살면서 동생을 언제나 보살피며 의종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일로 한산이씨 집안에서는 형제간에 의리 좋기는 옷택 집안이 최고라는 칭송이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이종구(1950~)

## 숯가마에 불을 지르다.

지금도 도박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과거에 타 곳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도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전해지며 도박을 다른 말로 노름이라 한다. 노름은 좋은일이 아니라서 남의 눈을 피해 주막 으숙한 방이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노름에 중독이 되면 가정에 끼니가 걱정되어도 노름꾼들은 품을 팔아 돈이 생기면 모여 노름을 하고 돈이 떨어지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그 빚을 계속하여 집안이 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다.

아버지가 끼니가 걱정되어도 노름을 함에 누차 말리었으나 그래도 계속 하고 있던 어느날 송골 빈 숯가마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몰래 가 숯가마에 불을 지르고 산으로 도망가 불타는 숯가마를 보니 노름하다 뛰어나와 불을 끄며 “웬 빈 숯가마에 불이나” “어느 놈이 불을 지른거야. 어느 놈인지 잡아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 “어느 놈이야” 하며 불을 끄더라 한다. 얼른 집으로 뛰어나와 자는 척하는데 들어오시더라 한다.

아침에 조반을 먹으면서 시치미를 떼고 “아버지 눈썹이 탔나봐요” “응 쇠죽쭈다 탔단다” 하시더라 하였다 한다. 아마도 아버지는 알았을 것이라 추측되며 이 후에 자제는 하



었다하나 그 버릇은 고치지 못하였다 한다.

이기천(1947~)

### 어머니가 남편의 편을 들다.

두 부부는 자식들이 있거나 말거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 한다.

어느 가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가 아버지가 부인을 두들겨 팼에 아들이 보다 못해 아버지를 때리자 아버지가 겁이나 급한 김에 어머니 치마 속으로 피하였다 한다.

어머니가 치마 속에 숨은 남편을 감싸며 아들을 꾸짖자 아들이 곧바로 집을 나아가 삼일 만에 돌아와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빌기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 손을 잡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저의 부자의 잘못을 용서 해달라 빌었다 한다. 이후 그 집에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다 한다.

곽용길(1939~)

### 중손의 위력

광복 전 후에 지곡동 산에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벌목사업이 있어 왔다. 한국전쟁 직전에 어느 벌목꾼이 군청에 가 지곡동 큰 나라 산에 소나무를 벌목하려 허가를 신청하자 산주에 허락을 받아 가능하다 하였다 한다. 이에 산주의 허가를 받기 위해 벌목에 경험이 있는 이병직 어른을 찾아와 부탁하였다 한다.

부탁받은 이병직 어른이 “이놈들아 돈벌이가 얼마나 좋으면 남에 조상 묘앞에 나무를 베이려 하느냐, 네 조상 묘 앞 부터 벌목해 쳐먹어라” 호통 치며 돌려보냈다 한다.

벌목꾼들은 중손을 찾아가 감언이설로 꼬득여 허락을 받게 되었다 한다. 중손의 허락을 받으면 되던 시절이라 허가가 날 판인데 이 소리를 들은 중인이 이병직씨에게 “그렇게 안 된다고 야단 치시더니 가만이 계세요?” 여쭙니 “중손이 결정한 일인데 난들 어찌 할 수 있는고” 하였다 한다. 당시 중손의 영향력이 대단하였음을 말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벌목을 하지 않아 지금도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이진규(1938~)

## 늦둥이 외동아들의 대우

기와집말 어느 집에 딸만 여럿 낳다가 나이 먹어 뒤늦게 외동아들을 두었다 한다.

이 아들이 성장하여 친구들 사귀는데 나이가 7~8세 위라도 친구로 사귀었다 한다. 당시에는 친척이 아니면 10세 차이가 나도 벗으로 사귀는 것이 흥이 아니었다. 이 외동아들이 이웃 마을에 15세 더 많은 사람과 벗으로 지내왔는데 세월이 흘러 40줄이 되었을 때 이웃마을 벗과는 15세 적고 그의 아들과는 9세가 많으니 벗의 아들 또한 이 늦둥이와 벗으로 지내도 흥이 될 수 없다.

어느 날 나이 많은 벗의 아들이 외동 아들을 보고 “00아 밥 먹었니” 함에 “이놈아 내가 너의 애비와 벗으로 지내고 있는데 네가 어찌 농을 하려 하는가”하며 꾸짖었다 한다.

꾸짖음을 당한 아들이 집에 가 아버지에게 “어찌 아버님은 00이와 벗을 하십니까?”하니 아버지 왈 “늙은이 아들인데 어찌 하겠니” 이 후로 깍듯이 어른 대우를 하였다 한다.

이진규(1938~)

## 곡자상과 고시네 이야기

고려가 원나라에 지배를 받을 때 고려는 원에 공녀를 보내야만 하는 수난을 겪고 있었다. 부당함을 고려의 대신 이곡(李穀)이 원나라에 가 원나라 순황제에게 공녀제도의 부당성을 낱알이 열거하여 상소를 올렸다 한다. 이 상소문을 본 황제가 크게 감명 받아 공녀제도를 폐지하는 꾀거를 이루게 되었다 한다. 이로 인해 고려의 백성들은 이곡선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혼례를 올릴 때 이곡(李穀)선생에게 잔을 올리는 풍습이 형성되어 술상을 곡자상(穀字床)이라 한다

이 곡자상 차림은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얼마전 까지만 하여도 들에서 들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밥을 먹기 전 “고시네” “고시레”하면서 밥을 조금 떠 들에 뿌리는 풍습을 볼 수 있었다. 이 고시내하는 풍습 또한 이곡선생 신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곡(穀)신에 드린다.” “곡(穀)신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줄여지고 변음하여 오늘날 고시레로 변한 것이라고 지곡동 한산이씨 집안에 전해지고 있다.

이진규(1936~)

## 페니실링

한국전쟁 때 젓먹이 꼬마가 폐렴에 걸리어 다 죽어 가고 있었다 한다. 이에 마을에서 내려오는 풍습대로 굿을 하였다한다. 이때 북으로 진격하던 UN군이 이를 보고 병원에 가야지 굿하면 나을 수 있는가? 함에 할아버지가 길을 통제하는데 어찌 병원엘 갈수가 있는가? 이 말은 들은 장교가 싸인을 해주며 급히 가라고 하여 다죽어가는 어린 애를 업고 수원병원에 가 주사를 맞으니 순식간에 눈동자가 돌아와 살아났다 한다. 병명은 폐렴이고 약은 페니실링 주사였다 한다.

이종구(1950~)

## 까치산소

조선 영조년간이 이이장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암행어사로 나아가던 중 광주에서 하루 밤을 묵을 때 꿈에 노인이 나타나 “선대 묘를 찾으라” 함에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 내일 아침이면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한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하니 까치가 까악까악 하고 울며 날아 가길래 따라가보니 어느 고층 위에 앉아 이곳이 어른이 찾고 있는 선대 묘라는 듯 까악까악하며 짓었다 한다. 반가운 마음으로 고층을 헤쳐 보니 지석이 나와 선대 묘임을 알게 되었다 한다. 이 후 까치가 알려 주었다하여 까치산소라 하였다 하며 지금도 지곡동 한산이씨들은 이 묘소를 까치산소라 부르고 있다. 또 까치 덕으로 묘소를 찾았다하여 후손들은 까치를 신성시 하고 있다 한다.

이변구(1955~)

## 채봉굴

일제 강점기에 술을 좋아하던 마을 구장을 역임하던 분이 면사무소에 다녀오다가 술을 거나하게 들고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다 장승백이에서 도깨비를 흘려 자기 집을 지나 채봉굴까지 갔다 한다. 집에 들어가 잠을 잔 후 일어나보니 집이 아니고 채봉굴 큰 소나무 밑

이였다 한다. 소나무 아래 평평한 곳이 방인 줄 알고 갓은 소나무 옹이에 걸어 놓고 잠을 잤다는 도깨비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 호랑이를 꼬신 키작은 어른

윤승문이라는 분이 키는 작고 왜소하나 힘이 장사이고 배포가 컸다한다.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저녁에 용인(김량장)에가 술 두어 말을 사 지계에 지고 고동굴고개(삼가동에서 지곡리 넘어오는 고개) 성황당을 지날 때 호랑이가 지계에 앞발을 얹더라 한다. 깜짝놀라 기는 하였으나 담이 큰 윤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마을에 내려가 개를 잡아 줄터이니 따라오거라” 하며 별일 아닌듯 내려오니 호랑이가 뒤를 따라오더라 한다. 마을 근처에 오니 솔가지더미가 있어 그것에 지체를 내려놓으며 이곳에 개가 있구먼. 하면서 불을 지르니 호랑이가 혼비백산 하여 도망갔다 한다.

### 중공군 무덤

한국전쟁 당시 지곡동은 주둔해있던 중공군과 기와집말 산 능성에서 진격하는 UN군과 격전지였다, 중공군은 기와집말 위쪽 산 밑에 방공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UN군은 산능성에서 다래울 마을 산으로 포격하자 일부는 상하동쪽으로 후퇴하고 일부는 산능성이를 향하여 진격하여 진격하던 중공군과 방공호에 숨어있던 중공군이 전사하여 산과 들에 중공군 시체가 즐비하였다 한다.

때는 한겨울이고 묻지도 못하여 시체가 널려져 있었는데 얼어붙은 시체의 눈을 새들이 파먹어 매우 흉측하였다 한다. 한달 후쯤 주민들이 마차로 시체를 모아 세 개울에 있는 삼구덩이에 묻었다 한다.

곽용기(1939~)

### 육혈포

어느날 중공군과 통역관이 노인 집에 들이 닥쳐 노인을 끌고 가려함에 반항하자 육혈



포(권총)로 위협하며 농서리를 안내하라 하여 할 수 없이 안내를 하였다 한다. 농서리에 가서는 이제 되었다 하며 돌아가라 함에 “내가 돌아가다 다시 붙들리면 나는 집엘 못 갈 터이니 증서를 써주소” 하니 중공군이 무엇을 써주어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한다.

이종구(1950~)

## 피난골

처인구 역북동 한학자 조씨 집안에 둘째 딸을 낳았는데 어른들이 말하기를 섭섭하기는 하나 이 애는 앞으로 피난골로 시집을 보내어 난리를 피하면 되겠구나 하였다한다. 성장하여 지곡동으로 시집오자 한국전쟁이 일어남에 각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피난하였는데 지곡동은 일부만 피난하고 대부분 피난하지 않았다 한다. 이때 친정아버지는 딸내 집으로 피난하다 양력 8월 말쯤 사돈에게 “사돈 나는 이만 집으로 가야겠요. 내 운명이 다한 듯 하오. 벼가 고개 숙이기 전에 국군이 올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집에 숨어 있는데 인민군이 일제 앞잡이(강점기에 경찰)이라 끌고 가다 국군이 진격하자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한다.

이행구(1956~)

## 시집살이

어느 집 외동아들에게 마음씨 곱고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있었다 한다. 그러나 정리정돈을 잘 못하여 시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자주 받았었다 한다.

어느 때 화로에 불을 담고 화로테에 재를 닦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부지깽이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물을 동이에 이고 부엌으로 들어 갈 때 회오리가 쳐 물둥이를 머리에 인채 봉당에 엎드리져 얼굴이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 데몽 데몽한 년 어디다 정신 파는거여”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란다. 또 아들 셋을 낳은 후 딸을 낳자 “에이 겨우 계집애를 낳았어”하였다 한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숙명처럼 생각하고 시어머니에게 거스리지 않고 고분고분 효성을 다하였다는 시집살이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조구(1952~)

## 동생은 짓고 형은 허물고

지곡저수지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이곳에 수익사업을 위해 낚시터를 조성 할 때 마을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냇물 위에 낚시꾼이 쉴 수 있도록 정자를 허름하게 지었다 한다. 그러나 이는 불법 건축물이라 면사무소에서 헐어야만 되는 건물이다.

이 정자를 주동하여 지은이와 이를 헐어야 하는 이는 이는 형제간 임으로 이 건물이 헐림에 “동생은 짓고 형은 허물고”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하는 미담이 전해진다.

## 우스개 지명

솔이 많아 송골, 위에 있어 윗송골, 아래있어 아래송골, 오그라져 병목안, 드러누어 드굴고개, 박달나무 박달재, 구매구매 구매고개, 소키우자 송축골, 빼서 사서 뺄논, 불에타서 불땅굴, 그릇구워 점말, 무턱대고 무턱굴, 길게 뻗어 흥두깨날(?), 아이 업어 부아산, 높이 있어 고등굴고개, 속이 깊어 깊풍굴, 느리저서 느라굴, 사기 구워 사기장굴, 따로있어 판산, 요리조리 요굴, 애충많아 체봉굴, 술이가려 술안, 윤씨산소 윤성날, 제사지내 산제봉, 다래따라 다래울, 까마귀울어 까마귀봉, 굴 있어서 굴바위, 말 같아서 말장텅이, 안에 있어 안대라울, 밖에 있어 밧대라울, 파헤쳐서 파방굴, 샘이 나서 샘골, 북에 있어 북굴, 가마위에 가마장텅이, 명현산소 큰나라, 앞에 있어 앞산, 뒤에있어 뒷산, 다랑논에 다랑굴, 이어져서 이고개, 연꽃같다 연화봉, 기와집에 기와집말, 사기장굴 밑에 사기막골, 달아래동네 달아울, 절 있었다고 절굴, 큰산소 있어 뒷능, 눈썹답아 아미산골, 대책없다 대착골, 매가 날라 매주굴고개, 쉬고싶어 매작골, 뒤에 있어 뒷골, 전쟁터라 이진봉, 새에 있어 새터굴, 중간에 있어 중간말, 박씨살어 박천말, 한씨살어 한천말, 구석이라 구성말, 개같아서 개고개, 사은정에 산장고개, 돌모으자 서낭당, 이럭저럭 외다보니 우리동네 다 다녔네.

이진규(1936~)



밭에서 일하시는 이진규, 박양순씨 부부

## 2-6. 지곡동 놀이

일상 활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과 놀이이다. 일은 주로 생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주어진 자연과 문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일을 통해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용한 자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를 보거나, 논이나 밭에서 농사짓거나, 상품을 만들어 팔아 수익을 내는 경제활동을 포함하며 가족들의 쉼터이자 재충전의 장소인 가정에서 행해지는 전반적인 가사 일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놀이는 생활에서의 이해관계를 떠나 재미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감력을 갖춰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유로움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일하지 않고 쉼다는 휴식의 뜻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재미를 즐기기 위해 일정한 놀이 활동을 한다는 뜻이다.

## 지곡마을 사람들의 일

### 1. 농사일



1990년대 중반 콤바인으로 농사짓던 김종호(51세)씨, 현재 양지면에 거주

#### 1) 논농사

지곡마을은 골이 좁고 길어서 다른 지역보다 농토가 적었으며 기흥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에 속했다. 그나마 논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적어 예전부터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타지인 소유의 논을 빌려 모내기하고 김매며 농사짓는 경우가 많았다.

#### 2) 밭농사

지곡마을은 콩, 팥, 참깨, 들깨, 조, 수수, 열무, 호박, 오이, 고추, 고구마 등의 다양한 채소와 수박, 참외 등을 밭에서 재배한다. 지곡마을의 땅은 척박했다. 1960년대 상동 다래울로 세간나와 터전을 잡은 박양순(여, 78세)씨는 50년 전 다래울엔 돌이 많아 밭을 일구려면 하루 종일 밖에서 살았다고 한다. 박양순씨가 밭에서 일할 때면 시어머니는 어린 손녀딸이 돌에 걸려 넘어져 다칠까 봐 아기 뒤를 내내 쫓아다니셨다고 말한다. 중간 말에 사시는 김경희(여, 89세)씨 또한 집안일 하는 시간 외



중간말 이변규 씨(80세)가 소를 키우고 있는 외양간.



에는 밭에서 일했으며 자리를 비우면 금세 표시가 나기 때문에 옆집에도 놀러 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밭농사를 짓기 위해선 새벽부터 늦도록 쉬 없이 일해야 했다고 한다.

다행히 지곡마을은 구황식물인 고구마가 효자 노릇을 했

다. 박양순·이진규씨 부부는 1960년대 세간나올 때 부모님께 받은 고구마 여섯 박스가 살림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비닐하우스에 십지만 1960년대 지곡마을은 한식 전에 고구마 싹을 밭에 심고 인분을 퍼다 나르면서 싹을 키우고 그것을 잘라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만들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고구마 싹을 키워 파는 것은 큰돈이 되었던 것이다. 지곡마을은 예전에도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지었으며 지금도 고구마 농사를 하는 집이 있다.



천렵 후 우마차에 짐 싣고 오는 이진규 씨(80세, 다래울)

### 3) 누에치기



누에치기 (이미지 사진)

한촌말에 사는 박봉달(여, 85세)씨의 말에 의하면 1960년대 누에씨를 받아다 누에를 키웠는데 전문적으로 누에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뽕나무 밭을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산이나 들로 누에가 먹을 뽕잎을 따러 다녔다. 누에는 5번의 잠을 자는데 마지막 잠을 자기 전에는 (4령 이후)

뽕잎을 엄청 많이 먹는데 더운 날씨에도 많은 뽕잎을 따러 다녔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잠을 자기 전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는 마치 소나기 오는 소리와 같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은 기쁘데도 뽕잎 따러 갈 일이 걱정이었다고 한다.

#### 4) 남의 소 키우기

자기 소유의 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리리소라고 다른 사람이 소를 사 주면 그 소에게 여물을 먹이며 대신 키워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소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남의 소를 대신 키우기도 했지만 자기 소유의 소를 키우면서 남의 소를 키우기도 했다. 그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잘 키워서 판다. 다 키운 소를 판 이익금은 소 주인과 반씩 나누어 가졌다(박양순, 여, 78세). 새벽부터 소죽을 끓이고 풀밭에 나가 풀을 베어다 소여물 주기 바빴지만 그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 또 도지소라는 것이 있었다. 일하는 소를 사주면 일 년에 쌀한가마를 주고, 소 주인에게 농사짓고 가을에 소로 준다.

## 2. 장사와 관련된 일

### 1) 나무장사

지곡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마을이 산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땀감을 구하기 수월했다. 나무시장은 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 몇 시간씩 지게에 지고 주로 용인 장이나 수원 장에 가서 팔았는데 수원장에 더 자주 가 팔았다. 수원에 가서 팔 때는 수레에 싣고 가서 팔았다고 한다.

“큰 형님이 우마차가 있어 나무를 해서 길가에 쌓아 놓으면 형님이 대신 팔아다 주었어요. 나는 그 당시 수원 구경도 못 했었거든. 내 나이 또래는 거의 나무를 해다가 팔았어요. 주로 겨울엔 소나무, 참나무 낙엽을, 음력 7월에 꺾는 나무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칠월비’라고 해서 나무를 해서 놓고 마르면 묶어다 팔았어요.” - 이진규(남, 80세)

### 2) 소 장사

아랫마을(한촌말)에 사셨던 박봉달씨의 남편은 1970년대~1980년대에 소장사를 하였다고 한다. 신갈에 살던 사람과 셋이 함께 3일, 8일에 열리는 오산 장으로, 4일, 9일에 열리는 수원 장으로, 5일, 10일에 열리는 용인 장을 돌며 소를 사고파는 일을 하였다

고 한다. 소를 실고 다닐 차량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소를 몰고 걸어 다녀야 했던 고된 직업이었다. (박봉달, 여, 85세)

### 3) 찢 고구마 장사

아랫말(박촌말)에 사는 한정숙(여, 90세)씨는 농사지은 고구마를 가마솥에 한 가득 찢 다음 찌리작대기에 하나씩 꽂은 후 고무다라이(고무대야)에 빙 둘러 담은 후 수원 장 노상에 펼쳐놓고 팔았다. 뜨거운 걸 머리에 이고 30리 길 산을 넘어 다니면 목이 부러질 것 같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 4) 점방 하는 사람

평소에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자기 집 방 한쪽 벽에 과자나 사탕 같은 작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

### 5) 술파는 집

신갈·수원 양조장이나 용인 양조장에서 술(막걸리, 고리 소주-맥주 소주, 셋별 소주)을 떼어다 주전자나 작은 용기에 덜어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3. 제조업

### 1) 가발 공장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외국에서 차관이 들어오면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이종구, 남, 68세). 1960년대에 현 경기도 박물관 있는 (태평양연구소 자리) 근처에 가발을 만드는 ‘다나무역’이라고 공장이 있었다. 지곡마을 처녀들은 이곳으로 출퇴근하면서 일했다. 가발을 만드는 것은 섬세한 작업이어서 여자들이 주로 일했다.

### 2) 양말 공장

지곡동에 양말 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여자들은 양말 공장에서 일거리를 가져와 가정

에서 양말을 꿰매어 다시 공장으로 보내는 부업을 했다. (박양순, 여, 78세)

당시 1960년대 중반 상갈동(다나무역)이 있었는데 여공으로 입사한 여성들이 15~18시간 노동하였으며, 산업 특근을 합친 수입은 공무원보다 많기도 했다.

#### 4. 가사일

##### 1) 일상에서의 집안일

(1) 식사준비와 물 길어오기: 용인 이동면에서 17살에 이 마을로 시집오신 김경희(여, 89세)씨의 말에 의하면 예전 여자들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에 비하면 매우 고되었다고 한다.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나무나 보리 지푸라기로 불을 때 아침밥 해서 식구들 먹이고 자식들 도시락 싸서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다. 당시는 시계도 없어 몇 시에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 몸이 알아서 일어났다. 쌀이 귀할 때라 콩보리밥에 여름엔 주로 밭에서 나는 오이, 고추, 상추 등과 밥 위에 찌서 무친 나물들이 반찬들이었으며 요즘처럼 냉장고와 같은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장아찌를 주로 만들어 먹었으며 때에 따라 국을 끓여 먹기도 했다.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려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써야 했는데 우물이 있는 집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집은 우물까지 한참을 걸어가 길어왔어야 했다. 하루에 최소한 5~6번 이상을 길어와야지 하루를 쓸 수 있었다고 한다. (박봉달, 여, 85세)



마늘까는 박양순(78세) 씨, 아래를 <일상의 가사일>

(2) 빨래하기: 옛날에 옷들은 무명이나 삼베, 모시였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이라 빨래



는 옷을 빨아서 삶고 다시 뻥 후 말려서 풀 먹여 말린 후 다듬이질해 펴고 바느질해 입혔다. 전기가 다른 마을보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두운 등잔 밑에서 바느질했다. 특히 겨울 빨래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자박지(입구가 넓은 오지그릇)에 빨래감을 담아 마을 개울에 가 언 얼음을 절구탕이로 깨고 돌팍에 빨래를 했다. 고무장갑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한 잿물에 맨손으로 빨래하고 나면 손바닥이 다 벗겨졌으며 너무 추워 입이 합죽이가 되었다고 김정희씨는 말한다.

(3) 김장하기 : 냉장고나 김치냉장고가 지금처럼 없었기 때문에 김장하면 땅에다 독(항아리)을 묻고 그 안에 보관했다. 겨울에 먹을 별다른 반찬이 없었기 때문에 김장을 많이 해 겨울나기 준비를 했다. 신건지(동치미), 알타리, 깍두기, 백김치, 배추김치 등 종류마다 담았으며 봄에는 배추를 소금에만 짜게 절여 물에 씻어 먹거나 무쳐 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했다.

(4) 장 담그기 : 김정희씨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별다른 반찬이 없어 음력 2월이 되면 주로 말날을 골라 간장, 고추장을 담았다고 한다. 그것만 먹기 때문에 많이 담아야 했다. 장 담그는 일은 해야 일이 많고 힘들어 간장, 고추장을 같은 날 담진 못하고 간장 먼저 담근 후 고추장을 후에 담았다. 간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먼저 가을에 콩을 쭈어 절구에 찧은 후 메주를 만들어 매달아 두었다가 간장을 담는다. 간장을 담근 후 석 달 후 4월이 되면 메주는 떠서 간장과 된장으로 분리한다. 고추장은 보리쌀을 갈아 시루에 찐 다음 아랫목에서 까맣게 토틈 후 메주가루를 손으로 비벼 섞어 고추장을 담았다고 한다.

## 2) 명절이나 제사 준비를 위한 일

한산이씨 음애공파 종중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규씨 댁은 종중일로 일 년에 설날, 한식, 추석, 음애 선생 기제사, 시제 이렇게 다섯 번의 제사를 준비한다. 명절이나 제사준비를 위해서는 평소 집안일과 달리 신경 써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으며 손님들과 객지에 나갔던 형제들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음식도 더 많이 준비해야 했다. 그만큼 여자들의 일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남자들의 도움도 절실했다.

(1) 장보기 : 장 보러 가는 일부터도 큰일이었다. 마을에서 구할 수 없는 육고기, 생선 등은 수원 장까지 가서 사 왔다. 지곡마을 사람들은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흥정해 온다’라고 표현한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평소에 잘 만들지 않는 음식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 했다.

(2) 술 담그기 : 제사가 다가오면 최소한 7일 전부터는 서서히 준비했다. 제사에 쓸 술은 지금은 사 오지만 예전엔 모두 집에서 직접 담갔다. 옛날엔 정종도 귀했고 시장에서 사는 술은 방부제가 들어가 마시면 골치가 아팠기 때문이다. 오시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큰 항아리에 한가득 담았는데 늘 정성을 다해 담그지만 해마다 맛이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달랐다고 한다. 술 만드는 방법은 먼저 쌀하고 차좁쌀을 섞어 고두밥을 한다. 고두밥을 식힌 뒤 누룩하고 섞은 후 항아리에 물과 함께 넣어 따듯한 아랫목에 잘 모시듯 두면 6~7일 후 술이 된다. 이렇게 담은 술을 약주술 또는 동동주라고 하는데 위에 뜨는 맑은 술은 제주로 사용하고 밑에 가라앉은 술은 물을 조금 섞어 채에 거른 후 오신 손님들에게 대접했다.(이진규·박양순 부부)

(3) 떡 만들기 : 지금은 방앗간에서 떡을 해 썰어서 가져온다. 하지만 옛날엔 절구에 직접 쌀을 빻고 가루를 내고 고물을 만들며 집에서 직접 떡을 만들었다. 설날에 쓰는 가래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을 절구로 빻아 가루를 내고 시루에 찐 후 떡메를 친 후 안반에 올려 둥글게 밀어가며 손으로 가래떡을 만들었고 떡국을 끓일 수 있도록 썰었다. 떡을 많이 하는 집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고 가난해 떡을 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일을 도와준 후 얻어간 떡으로 설날 떡국을 끓여먹었다. 제사 때는 주로 편으로 된 떡을 했다. 고물은 거피한 팥이나 녹두로 했다.

(4) 두부 만들기 : 두부는 주로 겨울에 만들어 먹었다. 콩을 밤새 불렀다 건진 후 물을 섞어가며 맷돌에 불린 콩을 간다. 갈아진 콩을 자루에 넣고 물을 빼낸다. 그 건더기는 비지가 되고 콩물을 가마솥에 넣고 끓이다 불을 끄고 간수를 넣어 몽글몽글해지면 순두부가 되는데 이것을 네모난 틀에 천보자기를 깔 후 막 엉긴 순두부를 넣은 후 뚜껑을 덮은 후 무거운 돌을 얹어 물을 빼다. 그러면 두부가 만들어진다.



2017년 추석, 가족들 모여 송편만들기 (이진규 음애 고택)

(5) 엿과 강정 만들기: 쌀을 맷돌에 갈아서 가마솥에 엿기름과 함께 넣고 끓인다. 다 끓으면 자루에 넣고 그 물을 짠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다들 배고프던 시절이어서 자루에 들어있던 찌꺼기(엿 지게미)는 서로 먹으려 하는 훌륭한 간식이었다. 그리고 겨울에 밖에서 얼렸다 먹으면 참 맛있었다. 그렇게 걸러진 물을 다시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데 불 조절을 하면서 한참을(밤새도록) 저어야 했다. 그렇게 고아 되어지면 1차로 조청을 뜨고 다시 한참을 저어서 엿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엿을 2차로 퍼내고 솥에 묻어있는 엿에 콩 간 것, 볶은 들깨, 쌀 튀긴 것들을 넣어 범벅처럼 버무린 다음 평평한 상에 펼친 후 밀어 강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선달엔 평 튀는 사람, 술 때우는 사람들이 리어커(손수레)에다 그 기계를 싣고 마을마다 다녔는데 그 때 튀길 것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 (이진규, 박양순 부부)

## 지곡마을 사람들의 놀이

### 1. 지곡마을의 집단놀이

#### 1) 농악

지곡마을은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푼푼 뭉쳐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단결이 잘 되었던 마을이다. 마을공동체의 단합과 화합을 이끈 여러 활동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농악놀이였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농악은 윗마을(다래울, 기와집말, 사기막골) 사람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마을에서 못논(모를 심은 논)에 김 맬 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맨 앞에 낭대(‘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인 깃발)를 세우고 북을 치며 ‘어허여~둘레여~’ 하며 선소리꾼과 일하는 마을사람들이 소리를 주거나 받거나 하며 고단함을 농악의 흥겨움으로 달랬다. 당시 목청도 좋고 태평소도 잘 불던 김혜진씨의 아버지가 선소리를 잘 했는데 어떨 때는 약을 올리기도 하고 욕도 하면서 선소리했다. 1950년대 농악이 북치고 소리하는 두레의 모습이었던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곡마을 농악은 활성화되었다.



농악경진대회 (1990년대)

농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음력 정월 보름과 7월 백중 때에 가장 바빴다고 한다. 정월 보름이 되면 ‘근립친다’라 부르는 지신밟기를 했다. 농악패들은 집집마다 들어가 그 집 부엌에 조왕신, 우물과 장독에 터줏신에게 빌며 한바탕 농악하며 놀아준다. 그 집의 주인은 음식을 내놓기도 쌀이나 돈을 내놓기도 했다. 이때 상쇠는 팽과리를 치면서 주인에게 ‘그 집에 모든 액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많이 생겨라!’는 내용의 덕담을 해 주는데 길 때는 길고 짧을 때는 짧아 그것은 상쇠 마음에 달렸었다. 정월엔 집집마다를 다니다 보니 바빴다. 또 농악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랫말(중간말, 박촌말, 한촌말)에 초청받아



원정까지 갔었고 나중엔 고매리, 공세리, 신갈까지도 가서 지신밟기를 했다. 초청받아 간 아랫마을은 모든 집이 참여한 건 아니었고 원하는 집만 방문해 농악 놀면서 지신밟기를 했다. 왜냐하면 당시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가난한 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신밟기 후 농악패에게 줄 쌀이나 돈이 부담스러워 신청 못하는 집도 많았다. 그런 집은 다른 집 지신밟기 하는 걸 따라다니며 구경했다.

1960년대 중반 지곡리의 윗마을에서 농악을 시작해 2~3년간 상모를 돌렸던 박재선(남, 67세)씨의 말에 의하면 지곡마을의 농악은 용인에서도 유명했다고 한다. 어느 해인가 백중 때 신갈에서 열린 농악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한 후 기흥 대표가 되었다. 그때 출전한 하갈팀과 구갈팀은 ‘짚지패’라고 불렀는데 주로 소고놀이 위주였고 지곡리는 상모돌리기를 하였으니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 후 멀리까지 소문이 나 주변 마을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갔으며 백중 때 마평동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용인대회에 기흥대표로 나가 3년 연속 3등을 했다. 용인 백중 농악대회 준비는 모내기를 끝내고 음력 7월이 되면 ‘손 맞춰본다, 발 맞춰본다’ 하면서 ‘한 번 놀지?’하면 영좌집(대장) 앞마당에 모여 새벽 1~2시까지 연습을 했다. 당시 보리밥도 먹기 힘들 텐데 영좌집에서는 늘 흰쌀밥을 넣은 국밥을 제공해 주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짹이하는 선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돌려라’ 하면서 자세를 잡아주면 버꾸들이 따라 했는데 아마도 선배들이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박재선, 남, 69세). 또 연습할 때 새로 산 소품들은 대회에 나갈 때 사용해야했기 때문에 아끼고 사기막골에 있던 아주 오래된 소품(상모 등등)으로 연습했다고 한다. 이진규씨 말에 의하면 당시 영좌를 하려면 돈도 좀 있어 쓰기도 했어야 했는데 김상기씨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 영좌를 했었다는 것으로 보아 지곡마을 농악은 1960년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는 활성화되진 못하였지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며 1960년 중반~1970년 사이 젊은층(15~20세 정도)이 많았던 3~4년 정도 활성화되었다가 중심을 이루던 젊은 층이 산업화되는 과정에 하나둘씩 기술 배우러 외지로 나가면서 지곡마을의 농악은 점차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열심히 연습했지만 용인대회에 나가면 늘 1등은 백암면, 2등은 이동면, 3등은 기흥면이었다고 한다. 백암농악은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때도 실력이 뛰어나고 좋았다. 우승한 백암농악 팀은 큰 소 한 마리를, 2등은 중간 소, 3등 지곡리는 송아지를 탔는데

상으로 받은 송아지를 끌고 동네로 돌아오면 동네에서는 마을 잔치가 열렸다. 그 송아지는 팔아 마을 기금으로 쓰였으며 다른 마을로 원정 가 받아 온 돈이나 쌀도 모두 마을 기금으로 쓰였다. 개인 수고비는 전혀 없었지만 어린 마음에 제일 좋았던 것은 의상이나 소모품을 살 때 대회에 나갈 때 신을 하얀 운동화와 하얀 바지를 사 줬는데 어린마음에 새 운동화 신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박재선씨는 그 시절을 회상한다. 용인대회에 나가면 스폰서처럼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시 용인에 있던 해동양 조장이었다. 한산이씨였던 양조장 사모님은 ‘친정 동네 사람들이 왔다’면서 지곡리 농악팀에게 잠을 잘 장소와 먹을 것, 막걸리까지도 제공해주면서 잘 대해 주었다. 집에 오가기도 힘들고 7월 백중 여름이니 밖에서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무슨 옥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흥이 많은 사모님도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연습과 대회준비로 힘들었지만 어디 가서 놀 곳도 기분 풀 곳도 없었던 또래 친구들에게는 농악은 즐겁고 신나는 놀이였기도 했지만 대회에 나가서 받아오는 송아지, 원정공연으로 받아오는 물품들이 마을 공동기금으로 쓰이면서 농악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는 계기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 더욱 기쁘게 농악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연극

윗마을(다래울, 기와집말, 사기막골)에서는 1950년대 중 후반, 외지로 나간 식구들과 친척들이 모이는 추석날 저녁이 되면 마을의 젊은이(당시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에서 연극공연을 했다. 당시 라디오는 물론 TV도 아예 없었을 시절인데도 연극을 했을 정도였으니 지곡마을의 문화적 감수성은 대단히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래전이라 누구네 집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집에선가 연극 공연을 했다. 그 집 마루는 무대가 되었고 안방과 건넌방은 분장실, 마당과 외양간은 마을 사람들이 멍석 깔고 앉아 구경하는 객석이 되었다.”-(이진규, 남, 80세)

어릴 때부터 소설책 읽는 것을 즐겼던 이진규씨(남, 80세)는 「햄릿」이란 소설책을 펴놓고 읽어가며 역할에 맞는 대사를 한 줄 한 줄 써가며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한다.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학교에 갔다 온 후 달밤에 모이는데 연습하다 배고프면 참외도 깎아 먹고 감자도 삶아 먹으며 밤이 늦도록 연습을 했다고 한다. 당시 무대를 꾸미기 위해

이불흙청을 포함한 동네의 천이란 천은 다 나올 정도였으며 무대에 천을 치기 위해 어머니와 누이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천을 바느질해서 크게 만들고 왕관이나 모자 같은 소품도 반짝이로 만드는 등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한다. 1950년대 후반 그 당시만 해도 지곡리(상동)는 다 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 연극 했던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다.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분장이나 소품 만들기 등 보조적인 일을 도와주었다. 여자 역할을 맡은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장을 해야 했으니 보는 마을사람들은 얼마나 재미있었겠는가. 관람하는 마을 사람들에게겐 큰 웃음이 되었다. 윗마을의 연극은 아랫마을은 물론이고 인근 마을까지(보라리, 삼거리, 고매리) 소문이 나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왔으며 기흥국민학교 선생님들과 그 마을 유지들의 초청을 받아 기흥국민학교에서 공연하기도 했다고 한다. 「햄릿」을 쓴 이진규(남, 80세)씨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전부터 선배들이 마을 연극을 했었을 것 같다고 한다. 「햄릿」 공연 다음 해 육군에 입대한 후에는 이진규씨의 동생 이찬규(남, 77세)씨가 이어 리어왕, 고주몽 시나리오를 써 주면서 마을 연극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이진규, 남, 80세)

“내 남동생 재호가 청년이었을 때인데 내 아들이 4~5살 되었는데 연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썼던 왕관을 우리 아들 머리에 씌어주고 사진 찍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올해 50살 되었으니까 45년 전쯤 되겠네요.”-(노순덕, 여, 74세)



추석날 저녁 마을연극(1982.10.1)



연극공연을 위해 분장하는 마을청년들

그리고 2013년까지 지곡 마을 중동에 살며 4H 활동한 김종호씨 말에 의하면 1982년~1985년까지도 마을연극은 이어왔다고 한다. 당시 안양예고 출신이었던 이평구씨가 대본을 써 주면

주로 마을 청년회(인원이 적어 55세까지로 청년 회원이었음)가 주축이 되었으며 연극의 내용은 전설의 고향과 같은 귀신 나오는 이야기가 많았으며 이때는 여자들도 참여한 마을행사였다.

시나리오를 받으면 마을 어디든 공간만 있으면 연습을 했다고 한다. 무대를 꾸미기 위해 수원까지 가서 앰프를 그때 돈 15,000원 정도를 주고 빌려왔으며 마이크를 세워놓고 소품도 공동회의를 거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 만들었다. 그리고 동네 우마차들을 죄다 끌고 와 서로 연결해 무대를 만들고 직접 그림과 글을 써 포스터까지 만들어 근처 마을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붙였다.

기흥에서 가장 오지 골짜기 마을인 지곡마을이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외지로 보내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외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고향인 지곡마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노래자랑

윗마을에서는 60년대 후반~80년대 추석날 저녁에 동네 노래자랑을 했다. 해마다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어져갔다. 주로 넓은 공터, 현재 상동 마을회관 있는 곳, 현재 승마장이 있는 곳에서 무대를 꾸미고 노래자랑을 했다. 동네 여자와 남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주로 흥 많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잘 부른 사람에게 1등에서 7등까지 등수를 정해 상을 주었는데 심사위원들이 동네 이장, 반장들이었기 때문에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누가 1등을 해도 재미있게 놀자고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별 상관 없었다. 초창기 상품은 주로 양은 냄



추석날 마을 노래자랑 (1980.9.23)

비, 양은 숯, 밥그릇 같은 생활용품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진규씨, 남, 80세) 이후 1984년인지 1985년인지 삼성전자와 지곡마을이 자매결연 맺은 후 노래자랑이 있을 때마다 삼성에서 자회사 가전제품 위주로 상품을 챙겨주었으며 김종호씨(남, 51세)가 마을 방법기동대원, 청년회장으로 있던 1997년~1999년에는 승마장에 무대를 꾸미고 마을 노래자랑을 했으며 상품으로 1등은 싱글침대, 2등은 자전거, 3등은 밥통, 전자렌지 등을 상품으로 주었다고 한다.



#### 4) 척사대회

정월에 현 마을회관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척사대회(웃놀이)를 한다. 현재도 젊은 층이 참여해서 웃놀이한다. 삼성과 자매결연 이후로 삼성전자에서 선물을 남자들 것, 여자들 것, 노인들 것 나눠서 챙겨다 주었다. 하지만 자매결연이 끊어진 90년대 이후부터는 남자들 것, 여자들 것으로 마을에서 상품을 구분해 준비한다.

#### 5) 거북놀이

음력 8월 추석에 하던 놀이로 엄나무나 수수깍데기 벗겨 이은 후 거북이 머리와 덮개를 만들고 두 명이나 세 명이 거북이 안에 들어가 거북이가 되면 마부가 앞에 서서 거북이를 이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수깍 같은 것을 들고 들러리를 섰다. 마부가 “거북아! 거북아!” 하고 부르면 주인이 나오는데 그때 마부는 “금강산에 산신령이 내려왔다!~ 부아산에 산신령이 내려왔다!~ 밥 좀 주세요!~~” 하고 소리친다. 그러면 주인이 사례로 떡이나 밥, 지짐(부침)을 내주고 옆에 들러리들이 그것을 받는다. 그렇게 얻어온 음식은 그날 밤에 친구들이 모여 먹었다.

## 2. 지곡마을의 개인 놀이

지곡마을 여자들의 놀이는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땅따먹기, 비석치기로 종류가 많지 않았으며 놀이 공간도 집 마당이나 동네 골목에서 할 수 있는 놀이로 놀이 활동이 소극적이며 장소도 제한적이었다. 놀이에 필요한 인원이 모여지지 않는 경우엔 나무기둥에 고무줄 한쪽을 매어놓고 놀기도 하고 어머니가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박양순, 여, 78세) 또, 단오가 되면 지금 마을회관 뒤쪽 개울가 커다란 미루나무에 동네 어르신들이 굵은 동아줄을 만들어 그네를 걸어주면 여자들(아이들, 어른들)이 그곳에 모여 그네타기를 즐겼다. 하지만 미루나무가 말라 죽은 이후 그네를 타지 못했다.

반면 남자들의 놀이는 활동내용과 공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어디든 친구들이 모이는 모든 곳이 놀이터였으며 당시 상황에 맞는 놀이를 즉흥적으로 뜻을 맞춰 놀았다고

박재선(69세)씨는 이야기한다.

### 1) 공기놀이

지곡마을 여자들의 놀이는 주로 땅바닥에 공깃돌을 던져 펼쳐놓고 공깃돌 하나를 공중으로 던진 후 땅에 공깃돌을 손으로 쓸어 잡은 후 공중 돌이 떨어지기 전에 잡는 공깃돌 놀이를 했다.

### 2) 고무줄놀이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아주면 노래(유관순 노래 등)에 맞춰 발로 고무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며 노는 고무줄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발목 높이에서 시작해 단계가 올라가면 갈수록 만세 높이까지 올라가는 놀이이다.

“유관순 노래에 맞춰 고무줄놀이를 했다. ‘옥 속에 갇혔어도 대한민국 만세~~’ 다른 노래는 기억나지 않는다.” (김경희, 89세)

### 3) 땅파먹기

땅에 넓게 선을 그어놓고 각자 자기 뽕만큼 자기 집을 그려놓은 후 자기 돌맹이를 말로 해서 손가락으로 튕겨 세 번 만에 자기 말이 집에 들어오면 말이 지나간 만큼 자기 땅을 넓혀 나가는 놀이다. 또 상대방의 말을 쳐내면 상대방 땅이 내 땅이 되기도 하는 놀이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이다. 언제든 땅파먹기를 할 수 있도록 돌맹이로 만든 말을 주머니에 늘 넣어 다녔다. (박재선, 남, 69세)

### 4) 구슬치기

구슬치기는 당시 다마(일본말)치기, 땡구치기라고 불렀다. 지곡리 상동 기왓집말과 사기막골에서 195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박재선(69세)씨는 당시 유리로 만든 구슬이 없을 때라 산에 가서 무른 돌을 깨 와서 그 돌을 깨고 갈아서 구슬을 만들어 놀았는데 시멘트가 있는 벽에 아이들이 돌들을 갈아 다마를 만들다 보니 학교 시멘트벽이란 벽은 늘 하얗게 되었으며 공들여 만든 구슬이 친구들과 놀다가 깨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 5) 가이생놀이

땅에 S자 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은 후 편을 나누어 서로 상대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몸을 밀치고 당기면서 놀았던 놀이로 상대편 땅을 차지하면 이기는 놀이였다. 상대편을 막기 위해 놀다 보면 어떨 때는 무릎도 까지고 살도 터져 많이 다치면서 놀았던 결렬했던 놀이였다.

### 6) 자치기

옛날 남파아이들이 겨울 빈 논에서 많이 했던 놀이로 큰 나무막대기로 작은 나무 막대기를 쳐 내며 놀던 놀이이다. 겨울 빈 논에서 놀다 보면 논이 질척해져서 아이들이 입고 나온 솜바지는 진흙 범벅이 되었다. 이종구씨는 엉망이 된 옷으로 집에 들어가 어머니께 꾸중을 듣고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한다. 다들 가난할 때라 옷이 몇 벌이나 있었겠는가? 어머니들은 쾅쾅 언 개울에 가 빨래해서 말리고 다시 바느질해 입혀야 했으니 화가 날 만도 했을 것이다.

### 7) 말뚝박기

지곡마을 아이들은 학교에 가려면 불당골로 매주골로 산장고개로 방골로, 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는 길과 집에 오는 길은 전부 놀이터였다. 학교 가는 길에 집에서 몰래 들고 나온 고구마를 나무 밑에 숨겨두었다가 집에 오는 길에 꺾아 먹기도 하면서 말뚝박기도 하면서 놀다 집에 오기도 했다. (박재선)

### 8) 제기차기

박재선 씨는 어릴 때 음애 이자 고택 바로 옆에 살았다고 한다. 음애고택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그 당시 고택 사랑방에 책들과 엽전이 많았는데 한지인 책을 여러 갈래로 찢고 거기에 엽전을 넣어 제기를 만들어 차며 놀았다고 기억한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그 책들을 찢어서 제기를 만들어 놀고 했지만, 나중에 그 책들이 문화재급 고서인 줄 알게 되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 9) 진퐁이

야구의 규칙을 적용해 놀았던 놀이로 생각되며 그 당시 공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지푸라기로 단단하게 만든 공을 발로 차면서 놀았다. 또 마을 잔치 때나 어느 집에서 돼지를 잡는 날이면 그때 나오는 돼지 오줌보를 공처럼 차고 놀기도 했다. 이때 ‘진퐁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라는 노래 부르면 아이들이 나와 편을 갈라 놀았다. 이 놀이를 하고나면 신발이 엉망이 되었다. (박재선, 이종구)

### 10) 짐뽕

공이 나오고 나서 한 놀이로 진퐁이와 마찬가지로 야구의 규칙을 적용해 놀았던 놀이지만 그보다 늦은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놀이로 작은 고무공을 배드민턴 서브 넣듯이 던져 치고 달려가서 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 편을 갈라 놀았던 놀이이다.

### 11) 비석치기

손바닥만 한 돌을 땅 위에 세워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돌을 던지거나 발등에, 배에, 가슴에, 머리에 올린 후 그 돌을 날려 상대방 돌을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지곡 마을에서는 ‘장치기 또는 말뚝치기’라고 나무를 깎아 논에다 꽂아두고 상대방이 쳐서 그 말뚝을 넘어뜨리는 놀이로 추운 겨울과 이른 봄에 많이 했다. 당시 입고 다니던 솜바지가 논 진흙탕에 엉망이 되어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다고 이종구씨는 전한다. 그리고 땅에 못을 꽂아두고 쳐서 넘어뜨려 따먹는 못치기 놀이도 많이 했다(김상기). 무엇보다 놀았느냐에 따라 비석치기가 여러 가지로 놀이로 응용된 것으로 보인다.

### 12) 투석전

윗동네와 아랫동네 아이들이 대보름에 쥐불싸움을 했다. 강통에 불을 넣어 돌리면서 던지기도 하고 돌도 던지기도 했다. 아주 위험한 놀이였는데 지곡마을엔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투석전으로 다쳐 병원에 실려 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일종의 전쟁놀이였다. (이종구, 68세)



### 13) 방공호 파서 놀기

음애고택 뒷산에 6·25전쟁 때 쓰였던 방공호가 1950년대 후반까지도 있었다. 마을 남자아이들은 전쟁 중에 실제 쓰였던 방공호에 뚜껑을 만들어 씌우고 그 위에 나뭇가지로 위장해 덮은 다음 그 안에 들어가 친구들과 모여 놀았다. 또 산에다 직접 땅을 파 방공호를 만들고 그 안에 모여 놀기도 했으며 누군가가 개구리를 잡아 뒷다리를 된장, 고추장으로 양념해 가져오면 방공호에서 끓여 먹기도 했다고 한다. 이 공간은 아이들에겐 아지트로 자신들만의 비밀공간이었다. 실제 음애고택 뒷산 방공호에서는 6·25전쟁 당시 쓰였던 대검과 실탄이 발견되었다.

### 14) 딱지치기

종이가 귀할 때라 공책도 찢고 책도 찢어서 네모난 딱지를 만들어 딱지치기를 했다. 특히 음애고택 다락방에 책이 많아 그 책을 꺼내다 딱지를 만들어 주머니가 터지도록 가지고 다녔다 (박재선). 194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진규씨는 공책 찢어서 네모난 딱지 접어서 놀았는데 당시는 사는 딱지는 없었고 전부 접어서 만든 딱지였다고 한다. 또 학교가 집에서 멀고 가는 길도 불당골, 매주골 산을 넘어 학교에 다니다보면 가는 중간에 딱지치기도 하고 다른 놀이를 하며 놀다 학교를 빼먹는 날도 있었고 지각하는 날도 많았으며 가방을 잃어버리는 날도 있었다고한다 (김상기, 남).

### 15) 물고기잡기

여름에 물이 고이면 물고기가 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는 물고기가 많아 붕어도 맨손으로 잡았다. 그것을 ‘웅킨다’ ‘웅켜쥘다’라고 불렀으며 재수 좋은 날은 많이 잡았다. 가을에는 논에서 미꾸라지를 많이 잡아 집에 가져와 끓여먹기도 했는데 장마가 지고 나면 얼개미를 가지고 풀숲을 뒤지며 송사리 등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아이들은 셋개울(상동 마을회관 뒤쪽으로 흐르는 개울)로 먹 감으러 가서 장난치며 놀다가 물고기를 잡기도 했는데 미꾸라지, 송사리가 아주 많았다. 특히 방천이라고 물이 도는 곳인데 여기에도 물고기가 많았다고 한다. 개울에서 가재랑 물고기도 잡고 놀았으며 논 갈고 난 후에는 우렁, 올방개(묵 쭈어 먹는)를 잡으며 놀기도 했다.

## 16) 썰매타기

겨울에 빈 논바닥이나 개울물이 꽁꽁 얼면 집집에서 만든 썰매를 들고나와 썰매를 탔다. 양날썰매도 있었고 외날썰매도 있었다. 스케이트는 60~70년대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탔는데 지곡마을에서는 동네 연못에서(현 윗마을 마을회관 앞) 겨울방학 때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로는 지곡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스케이트를 구입해 탔다기보다 외지에서 공부하던 누군가의 친구가 놀러 올 때 가져왔던 스케이트를 빌려 탔던 것 같다.

“운비아저씨라고 부르던 삼촌의 친구가 우리 마을에 스케이트를 가지고 놀러 와서 연못에서 타면 빌려서 타고 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날이 짧았던 것 같다. 아마 얼음판 위에서 무용할 때 신는 피겨스케이트였던 거 같아.” (이종구)

## 3. 지곡마을의 여가생활과 유흥

### 1) 화투놀이

화투놀이는 처음에 민화투로 시작돼 나이롱뽕으로, 그 후 고스톱으로, 도리짓꾸 뽕(짓꾸뽕은 나이롱뽕 전 옛날부터 있었다)으로 점차 변화해 갔다고 이종구씨는 말한다. 이종구씨의 기억에 의하면 지곡 마을은 놀음판의 판돈이 꽤나 켜던 것 같다고 한다. 놀음해서 판 돈을 다시 잃을까 봐 놀음을 다시 안 하는 것을 ‘뺏다’라고 했다. 1960년대쯤 그 돈으로 땅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논을 ‘빼서 산 논’이다 해서 ‘뺏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정도로 큰 판돈이 오고 간 것 같다. 그 정도다 보니 놀음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 아버지의 놀음 장소였던 숯가마에 직접 불 질렀던 아들도 있었을 정도였다. 이종구씨는 어린 시절 화투놀이의 하나인 나이롱뽕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5명에서 뽕 석 장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뽕을 먼저 내버리며 뽕 석 장(석 장은 자연뽕이라고 해서 지는게 아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졌는데 꼴찌인 사람은 돈을 내거나 벌칙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밥 훔쳐오기를 한 후 그 밥을 화로에다 비벼 먹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나중에 도둑질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두부 사내기, 막걸리 사내기 등으로 바뀌 내기놀이를 했다. 여자들은 대개 내기화투는 별로 안 했으며 해도 ‘민화투’

‘육백’ ‘운때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골패놀이

골패는 납작하고 네모진 검은 나무 바탕에 상아나 짐승 뼈를 붙이고 여러 가지 수를 나타내는 크고 작은 구멍을 새긴 것으로 모두 32쪽이다. 둘이나 넷이서 하는 노름의 일종으로 놀이방법이 복잡하여 투전처럼 대중화되지는 못하였다. 꼬리불이기·포·여시·골여시·찍찍이 따위가 있다.

“정월이면 할아버지 친구들이 오셔서 우리 집 사랑방에서 네다섯 명이 모여 골패놀이 돈내기로 했다. 내가 어리다 보니 귀엽다고 그 놀이에 끼지는 못하고 옆에 앉아서 개평을 뜯었다. 돈을 모으니 재미있었다. 이렇게 모인 할아버지 친구들은 어떤 때는 이틀, 삼일을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다. 우리 어머니는 그동안 밤참은 물론이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 주었는데 식구들은 보리밥을 먹어도 할아버지 손님들은 늘 흰쌀밥을 해서 대접했다.” (이종구)

## 3) 서리하기

남의 밭의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주인 없을 때 몰래 들어가 훔쳐 먹기도 하였다. 요즘 인심으로는 남의 밭에 과일이나 채소를 몰래 훔치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거나 파출소에 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엔 밭주인들이 혼내주는 말 몇 마디 하거나 아님 못 본 척하며 용서해 주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아이가 우리 집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할아버지에게 걸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서 있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집에도 안 가고 그대로 서 있어?’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하고 가라’ 했더니 진짜 일하고 가더라.” (이종구)

## 4) 경로잔치 및 관광

1973년쯤 지곡마을에 경로회가 처음 조직되었다. (당시 용인에서 경로회가 처음 조직된 곳은 좌향리가 첫 번째니 지곡마을이 첫 번째니 했었다고 함) 그때 수원에 사는 ‘이헌규’라는 사람이 정월에 세배 와서 경로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마을 사람들이 조

금씩만 신경 쓰면 노인들에게 하루 날 잡아 막걸리라도 대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었다. 그땐 쌀이 비쌌을 때라 마을에서 10가마를 모으는 게 목표였다. 그때 장리쌀이라고 해서 쌀 10가마를 장리로 놓으면 5가마는 나왔다고 한다. 이자가 비쌌는데도 그때는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많았다. 이 기금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봄(5월 중 하루)에 날을 정하고 마을회관 앞에서 환갑 넘는 분들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했다. 그 때 튀김닭을 반마리씩 드렸는데 집에 있는 손자들 생각에 드시지 못하고 집에 싸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원래의 취지는 고향을 떠난 분들이 교통도 안 좋을 때라 고향에 오기 힘들니까 이분들을 초청해 동리 친구 친지를 만나 회포를 풀게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몇 년이 흐른 후는 주로 관광을 다녔다. 지금은 식당에서 사먹으면 되지만 그땐 동네에서 밥과 국 그리고 반찬까지 만들어 갔다. 당시 국 담아갈 데가 마땅하지 않아 소 젖 담아놓던 우유 통에 담아가서 부탄가스에 솥단지를 올려 뜨겁게 끓인 후 관광지 잔디밭에 앉아서 먹곤 했다. 주로 5월에 했으며 올해로 44회째가 되었으며 현재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수양회 등 각 모임에서 일 년에 두 번 정도 관광을 간다.

김도영





## 2-7. 새로 생긴 마을

### 매자골 전원마을

삼애 마을은 중간 말에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한산이씨 선영이 형성되어 묘직이 집한 채가 있었던 한적한 골짜기였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자 건축회사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이





다. 주민이 늘어 현재 31호가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2014년 지삼로 107번길이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2016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전원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게 되었다. 이들은 매월 첫 주 토요일 마을청소를 함께하고 분기별로 모여 친목과 마을 발전을 위한 자치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이 입주하였으며 주로 4~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부모가 자가용으로 등하교 시키는 불편이 있어 마을버스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과 마을 앞 도로에 전원적 요소가 사라지게 하는 각종 공장과 창고가 입주보다는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늘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 송골마을

송골은 지곡동 맨 위에 위치한 골짜기로 부아산 서쪽에 있는 지곡천의 원류가 되며 지곡저수지가 있는 한적한 골짜기이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하동에 거주하다 외지에 나아가 살던 고광부가 선산을 지키고 전원에 묻혀 살기위해 이주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마을이다.

이후 신갈에 살던 이가 2000년대 초 입주하고 이어서 각 지역에서 터를 마련하고 집을 지어 이주하여 오면서 형성된 마을로 현재 30여 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에 특징은 주로 한적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한 이들이 많아 젊은이들이 적고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이거주하고 있다.

또 한적한 곳에서 식도락을 즐기기 위한 이들을 위해 전원 식당이 일곱 곳이 있다. 이 마을은 저수지 위 숲속에 한적한 마을이나 도로가 비좁아 확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곳은 지곡 2통 마을에 속해 행정적인 일은 이민수가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근에 각종 기업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마을 모임을 조직 활동 하고 있다.



## 자봉마을 써니벨리 아파트

자봉마을을 아파트단지로 사은정에서 효자고개 넘어가는 고개 마루에 2014년 형성된 마을로 지곡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이곳은 공기 맑고 조용해 서울과 수원 등지로 왕래하기가 편리한 입지여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마을이다. 현재 14개동 1092세대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로 지곡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3개 반이 있고 경로당, 자봉어린이마을도서관, 달자봉 북카페 등이 있다.







## 2-8. 지곡동의 택호(宅號)

택호란 이름대신 처의 출신지명이나 가장의 벼슬의 명칭, 호등을 붙여서 그 집을 성명대신 부르는 말을 의미한다. 택호의 유래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처의 출신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처가살이를 하는 혼인 풍습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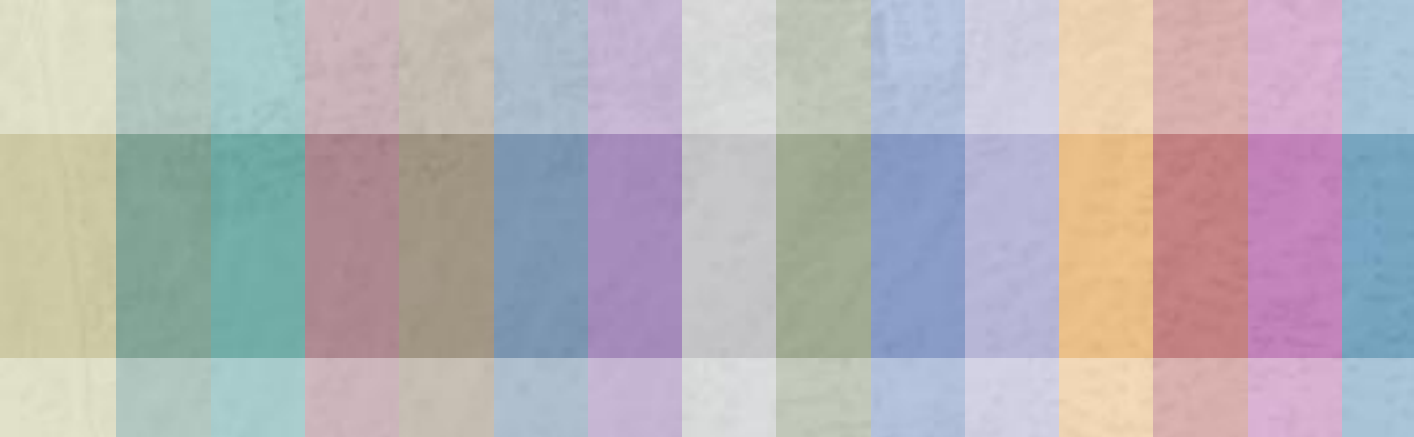
전통사회에서 성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을 호칭할 때 성명대신 택호를 즐겨 사용하였다. 어느 집을 호칭할 때 벼슬이름으로 호칭할 때 ‘홍 판서댁’ ‘군수댁’ 등으로 불려왔으며 처의 출신지로 예를 들면, ‘공석굴댁’ ‘안성댁’ 등으로 호칭하였다

일반적으로 벼슬의 이름보다는 처의 출신지로 택호를 정하는 것이 많았으며 때로는 아이가 없을 때 출신지로 호칭하지 않고 새로 시집왔다 하여 ‘새집’이라 했다.

외지에서 이사 와 이곳에 정착한 집을 외지이름을 따 ‘서울댁’ ‘수원댁’ 등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택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령의 노인들에게만 붙여져 있다.

택호는 우리사회에서 사라져가는 풍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택호는 타인의 집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어서 어린 아이가 없는 집을 어른의 이름을 부르기가 예의에 어긋남으로 강아지 이름을 따 ‘복실이네’ ‘계좌네’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집이 있는 위치의 지명을 따 ‘모퉁이집’ ‘뒤골집’이라 호칭하기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택호로 볼 수 있다.

지곡동 마을은 밀양 박씨, 청주 한씨, 제주 고씨, 현풍 박씨, 한산 이씨, 의령 남씨가 예로부터 거주하여 왔으며 이들 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현풍곽씨는 지곡2동 사기막골을 중심으로 세거 하는 성씨로 7-8호정도 살았다. 곽동환씨가 구매(기흥구 고매동에 있는마을)에서 장가들어 ‘구매택’, 곽용길 씨 조모가 보뜰(기흥구 하갈동)에서 시집와 ‘보뜰택’, 곽상신 씨가 처음 장가들어 세간을 나아가 아이가 없자 새집이라 칭하였다.

나머지 집들은 특별히 택호는 부르지 않고 큰택, 작은택, 00이네 등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택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제주 고씨는 큰택 작은택 00이네집 등으로만 불리고 있다

밀양 박씨는 큰집 작은집 등으로만 호칭하였다하며 특별히 택호는 부르지 않았다 한다. 한산 이씨는 입향조인 음애이자 묘역을 중심으로 기와집말, 다래울 중간말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다래울에 웃택이라 지칭되는 집안이 있었는데 이 집안에서 1900년대에 육형제를 둔 집안이 있었다.

이 육형제가 육형제의 택호를 보면 큰집을 ‘산초골택’, 둘째 집을 ‘한촌택’, 셋째 집을 ‘공석골택’, 넷째 집은 무하고 다섯 째 집을 ‘덕성골택’, 여섯째 집을 ‘골매골택’이라 칭하여왔다.

기와집말에 종손 집이 있어 큰택 동래에서 시집와 ‘동래택’, 이장을 보던 집을 ‘이장택’이라 하였다.

그리고 중간말에 면 의원을 지낸 집을 ‘면의원택’ 또는 ‘갈래택’, 충주에서 시집와 ‘충주택’, 먹실에서 시집와 ‘먹실택’ ‘오금이택’, ‘수천택’, ‘새우래택’ 등의 택호가 있었다. 한산 이씨들은 자손이 번성하여 같은 이름이 있어 마장동 장규, 백암이 장규, 큰봉규. 작은봉규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 이종구